

발간등록번호
BYSC-2013-7

2013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 부산광역시 ||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하나,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하나,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하나,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하나,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나,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하나,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하나,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하나,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나,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나,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나,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하나,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하나,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하나,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나,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년 10월 25일



발간사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임 장 근**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취업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도 수 없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이 장래에 대한 꿈이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진로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청소년 진로활동’의 참여는 학업의 동기부여 뿐 아니라 청소년이 지향하게 될 직업의 세계를 가치롭게 인식하고, 행복지수 또한 높여 줄꺼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로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올바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 요구조사가 밑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진로에 대한 인식 및 가치에 대해 함께 공감해보고 학교 안·밖의 청소년진로활동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는데 있습니다. 또한 교사, 학부모가 바라보는 청소년 진로활동에 대한 인식 및 진로활동 참여 후 청소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진로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청소년 시설 및 단체와 학교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질 높은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로활동에 대한 요구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및 단체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삶의 거점인 지역사회 안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잘 실행 될 때 청소년 진로활동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가 진로교육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다양한 방법의 진로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조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13년 10월



|| 부산광역시 ||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3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Contents

I. 요구조사 개요	/ 9
II. 조사결과 분석	/ 23
III. 요약 및 결론	/ 127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vibrant, abstract composition. It features several thick, flowing, ribbon-like lines in shades of orange, red, yellow, and green, which curve and swirl across the frame. Interspersed among these lines are numerous semi-transparent circles of various sizes and colors, including orange, green, blue, and purple. The overall effect is a dynamic and colorful, modern aesthetic.

I. 요구조사 개요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 연구 목적

- 청소년들의 진로 욕구파악을 통한 정책 및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 마련
- 청소년 진로에 관한 개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발달수준과 실용중심의 지역특색 프로그램 적용 및 확대보급

☐ 개 요

- 조사주제 : 청소년진로활동 요구조사
- 조사대상 : 초·중·고등학교 총 2,100명/학부모용 100명/교사용 100명
- 설문대상학교 : 총 33개 학교

합계	소계	중학교					소계	고등학교			소계	대안학교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33개교	14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2개교	16개교	6개교	7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 조사대상 선정

청소년	청소년은 부산지역의 중고등학생, 대안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교육지원청별, 학교 유형별로 비례층화 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선정
학부모	부모는 설문대상 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협조 가능한 5개 학교
교 사	교사는 설문 실시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함

○ 주요내용

- 자문위원 구성 (교수, 언론기자, 교육청 전문가, 청소년기관 전문가, 청소년)
-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 내용, 추진일정 등)
- 요구조사 및 결과분석 (설문지 제작, 조사활동, 통계분석)
- 결과물 제작 및 배부
- 결과 활용 및 보급, 홍보



□ 추진일정

구분	항 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조사계획 수립	요구조사 전체 계획	✓						
	설문지 개발	✓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자문	✓						
	자문 결과 취합 및 반영		✓					
설문제작 및 조사활동	설문지 제작		✓					
	기념품 제작		✓					
	설문 대상학교 협조 공문 발송		✓					
	설문지 배부		✓					
코딩 통계분석	유효설문지 코딩 연구 보조 활동자 구성		✓	✓				
	대상별 코딩(총 2,000부)		✓	✓				
	결과 통계			✓				
	결과 분석				✓	✓		
	- 연구내용 및 방법 추진체계		✓	✓				
	- 이론적 배경		✓	✓				
	- 청소년 진로 관련 인식 및 요구분석		✓	✓	✓			
결과 활용	자료집 제작					✓		
	자료집 배부					✓		
	요구조사 설명회 개최					✓	✓	✓

□ 자문위원 구성

- 자문회의 : 6. 7(금) ~ 6. 14(금) / 10. 17(목)
- 자문방법 : 온라인 회의 / 자문회의
- 자문위원 : 7명(전문연구위원, 언론기자, 청소년기관 전문가, 청소년 등)

이름	구분	소속	내용
김동찬	책임연구위원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국장	연구총괄 및 설문지 개발, 조사결과 분석
박선영	연구위원	동서대학교 청소년상담심리학과 교수	설문지 개발 자문 조사 결과 분석
전영근	연구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 진로진학 장학관	설문지 개발 자문 조사 결과 분석
윤현주	연구위원	부산일보사 논설위원	설문지 개발 자문 조사 결과 분석
황동한	연구위원	십대이벳 청소년교육센터장	설문지 개발 자문 조사 결과 분석
차정관	연구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홈쿨링	설문지 개발 자문
김경민	연구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부산관광고등학교	설문지 개발 자문



○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일정 공지
- 연구방향, 범위, 방법 설정, 설문지 개발

□ 조사설계

○ 조사대상

설문조사에 응한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생으로 총 2,059명이며 남학생이 953명(46.3%), 여학생이 1,084명(52.6%)으로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990명(48.1%), 일반계고등학교 383명(18.6%), 특성화고등학교 434명(21.1%), 자립형사립고등학교 6명(0.3%), 특수목적고등학교 179명(8.7%), 기타 39명(1.9%)명이었다. 학년은 1학년 630명(30.6%), 2학년 843명(40.9%), 3학년 569명(27.6%)이며 부모님 직업유무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직업을 가진 경우는 1,254명(60.9%), 아버지는 직업이 있지만 어머니는 없는 경우 608명(29.5%), 아버지는 직업이 없지만 어머니는 있는 경우 61명(3.0%),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무직인 경우 39명(1.9%)로 조사되어 구분되었다.

○ 조사내용 : 일반문항+그리드문항

대상	구분	설문 주요내용
중·고등학생용 (총 52문항)	진로활동 인식	꿈과 목표에 관한 인식, 직로를 결정하는 기준, 진로체험을 통한 능력 배양 선호 등
	학교 내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실태	진로에 관한 경험 및 유익한 시간 유무, 만족도 및 진로 관련 검사 경험 유무 등
	학교 밖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실태	진로체험활동을 하는 이유 및 경험 유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선호도 등
	진로성숙도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및 자원 활용정도, 선호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와 계획 등
	진로 활동 요구	희망하는 직업군이나 직장, 진로직업체험관 설치 희망도, 진로에 관한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설문 대상자 일반적 사항	일반적 사항 8문항
교사용 (총 25문항)	진로지도 및 진로 활동 인식, 요구	진로활동 지도방법 및 인식에 관한 사항 진로체험활동 요구 및 선호도 등
학부모용 (총 24문항)	진로지도 및 진로 활동 인식, 요구	진로활동 지도방법 및 인식에 관한 사항 진로체험활동 요구 및 선호도 등



□ 통계 · 분석

- 기 간 : 2013. 7. 15(월)~ 9. 30(월)
- 분석방법 : T-검정, 교차분석, 아노바 분석
 -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PASW statistics 18.0K for Windows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여 판단.
 - 빈도분석과 주요 배경변인별 교차분석, T-검정,
 - 교차분석의 통계는 X2 값을 산정하여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
 - 주요 배경 변인은 성, 학교, 학년, 지역
- 독립표본 T-검정(T-test)

케이스가 다른 두 집단의 모집단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검정이다.

 - 귀무가설 : 두 모집단의 평균은 같다.
 - 대립가설 : 두 모집단의 평균은 같지 않다.

독립성 검정에서 T 통계량을 사용하며, 두 집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두 집단 분산의 동질성을 검정해야 한다. 검정 방법으로 Levene의 등분산검정을 먼저 실시한다.
- 교차분석(χ^2 -test)

명목척도나 순서척도 변수인 두 개의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독립성,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 귀무가설 : 두 변수는 서로 독립이다.
 - 대립가설 : 두 변수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즉, 연관성이 있다.)

독립성 검정에서 카이제곱 통계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셀의 기대빈도가 적어도 1이상이어야 하고,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표본수가 적어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많은 상태로 독립성 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거나 Monte Carlo방법에 의한 검정을 수행한다.
- 분산분석(ANOVA)

세 개 이상의 정규모집단의 모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분산분석의 결과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 귀무가설 : p개 모집단의 평균은 모두 같다.
 - 대립가설 : p개 모집단의 평균은 모두 같지는 않다.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는 것은 p개 모집단의 모평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p개 모집단의 모평균 중 어느 모집단의 모평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야한다.



표 목 차

〈중·고등학생〉

□ 진로활동에 대한 인식 및 가치

〔표 1〕	조사대상자의 구분	25
〔표 2〕	진로에 대한 꿈이나 목표 유무	27
〔표 3〕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계획 정도	28
〔표 4〕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29
〔표 5〕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요소	30
〔표 6〕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31
〔표 7〕	진로를 상담하는 사람	32
〔표 8-1〕	진로 준비성 : 진로정보를 습득 방법 유무	33
〔표 8-2〕	진로 준비성 : 진로결정 조언 유무	33
〔표 8-3〕	진로 준비성 : 내가 관심있는 직업의 하는 일을 알고 있는 유무	34
〔표 8-4〕	진로 준비성 : 내가 관심있는 직업의 전망을 알고 있는 유무	34
〔표 8-5〕	진로 준비성 : 내가 관심있는 직업의 특성을 알고 있는 유무	35
〔표 8-6〕	진로 준비성 :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추기위한 학력 및 자격증을 알고 있는 유무 ..	35
〔표 9〕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36

□ 학교 내 진로활동 경험 유무 및 만족

〔표 10〕	진로 및 꿈에 관심을 가진 시기	37
〔표 11-1〕	진로활동에 관심이 있는 이유	38
〔표 11-2〕	진로활동에 관심이 없는 이유	38
〔표 12〕	진로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간	39



표 목 차

[표 13]	진로에 대해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	40
[표 14]	학교 내 실시하는 진로활동시간의 만족	41
[표 15]	학교 내 경험한 진로활동 프로그램	42
[표 15-1]	학교 내 진로활동에 만족하는 이유	43
[표 15-2]	학교 내 진로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	44
[표 16]	진로 관련 검사 경험 유무	45

□ 학교 밖 진로활동 경험 유무 및 만족

[표 17-1]	학교 밖 청소년 진로활동에 참여한 기관	46
[표 17-2]	학교 밖 청소년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	46
[표 17-3]	학교 밖 청소년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47
[표 17-4]	학교 밖 청소년 진로활동에 참여 후 만족	47
[표 17-5]	학교 밖 청소년 진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48

□ 진로 성숙도

[표 18]	성별, 학교, 진로목표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	49
[표 19]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	51
[표 20]	하고싶은 일은 있지만 고민의 정도	51
[표 21]	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고민의 정도	52
[표 22]	진로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의 정도	52
[표 23]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53
[표 24]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실한 결정 정도	53



표 목 차

[표 25]	나중에 바뀔지 모르나 하고 싶은 직업의 결정	54
[표 26]	무엇을 해야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정도	54
[표 27]	진로를 선택해야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정도	55
[표 28]	적성하고 맞진 않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길 원하는 정도	55
[표 29]	내가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할까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	56
[표 30]	선택한 직업을 잘 해낼 자신감의 정도	56
[표 31]	노력만하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	57
[표 32]	미래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하는 정도	57
[표 33]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의 정도	58
[표 3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은 정도	58
[표 35]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59
[표 36]	미래에 대해 꿈꾸며 희망하는 정도	59
[표 37]	나의 흥미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은 정도	60
[표 38]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정도	60
[표 39]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칠 때 결정의 어려움의 정도 ..	61
[표 40]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61
[표 41]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하는 확신의 정도 ..	62
[표 42]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의 정도	62
[표 43]	희망하는 직업군과 직업	63
[표 44]	선호하는 직장	68
[표 45-1]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	69
[표 45-2]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참여 하고 싶은 활동	70
[표 46]	청소년활동 중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사항	71
[표 47]	청소년활동 중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	72
[표 48]	학업에 대한 열정도	73



표 목 차

〈교사〉

〔표 1〕	조사대상자의 구분	74
〔표 2〕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	76
〔표 2-1〕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불만족인 이유	77
〔표 2-2〕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만족인 이유	77
〔표 3〕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진로교육시간	78
〔표 4〕	3개년동안 학교에서 편성된 진로와 직업과목 수업시수	78
〔표 5〕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	79
〔표 6〕	진로활동 중 향후 계획했으면 하는 활동	80
〔표 7〕	진로활동의 필요성	81
〔표 8〕	진로활동이 필요한 이유	82
〔표 9-1〕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에 관한 사항	83
〔표 9-2〕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 지역별 구분	84
〔표 9-3〕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 학교별 구분	85
〔표 10〕	진로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 있는 활동	86
〔표 11〕	가장 의미 있는 진로관련 심리검사	87
〔표 12〕	진로 및 장래직업에 관한 상담의 비율	88



표 목 차

[표 13]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진로선택의 기준	89
[표 14]	가장 조연해주고 싶은 직업 선택의 가치	90
[표 15]	학생 진로결정에 가장 큰 도움 요인	91
[표 16]	진로결정에 있어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92
[표 17]	진로지도를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93
[표 18-1]	학생의 변화정도 - 자신의 흥미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갈 것 ·	94
[표 18-2]	학생의 변화정도 -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 형성	94
[표 18-3]	학생의 변화정도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95
[표 18-4]	학생의 변화정도 - 교육의 기회와 진학정보의 탐색 및 준비	95
[표 18-5]	학생의 변화정도 - 원하는 진로에 필요한 학력 및 자격증의 준비 능력	96
[표 18-6]	학생의 변화정도 - 진로의사결정능력 및 책임감	96
[표 18-7]	학생의 변화정도 - 자기 정체성 및 자존감 고취	97
[표 18-8]	학생의 변화정도 -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97
[표 19]	진로활동을 연계하거나 학생에게 권장하고 싶은 기관	98
[표 20]	진로활동의 활성화 방안	99



표 목 차

〈학부모〉

〔표 1〕	조사대상자의 구분	100
〔표 2〕	자녀에게 참여 시키고 싶은 활동	102
〔표 3〕	자녀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한 평가	103
〔표 4〕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이유	104
〔표 5〕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이유	105
〔표 6〕	자녀의 진로선택 및 진학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6
〔표 7〕	자녀와의 대화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107
〔표 8〕	자녀가 참여한 진로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	108
〔표 9〕	자녀가 참여한 진로활동 중 가장 참여 시키고 싶은 활동	109
〔표 10〕	진로활동의 필요성	110
〔표 11〕	진로활동이 필요한 이유	111
〔표 12〕	진로지도 경험 부분	112
〔표 13〕	진로활동 관련검사 빈도	113
〔표 14〕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	113
〔표 15〕	자녀의 진로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활동 영역	114
〔표 16〕	자녀의 진로선택 기준	115



표 목 차

[표 17]	자녀의 미래 희망 직업을 선택할 때 조연하고 싶은 가치	116
[표 18]	자녀의 진로 및 진학을 결정할 때 영향을 받는 사람	117
[표 19]	자녀의 진로지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118
[표 20-1]	본인의 흥미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가는 정도	119
[표 20-2]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는 정도	120
[표 20-3]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정도	121
[표 20-4]	교육의 기회와 진학정보를 스스로 탐색, 준비성	122
[표 20-5]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학력 및 자격증의 준비성	123
[표 20-6]	지로의사결정능력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	124
[표 21]	자녀의 진로활동시 참여하고 싶은 기관	125
[표 22]	진로활동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126
[표 23]	자녀가 본인의 직업을 희망하는 정도	126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decorated with abstract, colorful flowing lines and circles. The lines are in shades of orange, red, yellow, and blue,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The circles are in various colors including green, orange, blue, and purple, some of which are semi-transparent. The overall design is vibrant and modern.

Ⅱ. 조사결과 분석



중·고등학생



진로활동에 대한 인식 및 가치

설문조사에 응한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생으로 총 2,059명이며 남학생이 953명(46.3%), 여학생이 1,084명(52.6%)으로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990명(48.1%), 일반계고등학교 383명(18.6%), 특성화고등학교 434명(21.1%), 자립형사립고등학교 6명(0.3%), 특수목적고등학교 179명(8.7%), 기타 39명(1.9%)이었다. 학년은 1학년 630명(30.6%), 2학년 843명(40.9%), 3학년 569명(27.6%)이며 부모님 직업유무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직업을 가진 경우는 1,254명(60.9%), 아버지는 직업이 있지만 어머니는 없는 경우 608명(29.5%), 아버지는 직업이 없지만 어머니는 있는 경우 61명(3.0%),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무직인 경우 39명(1.9%)으로 조사되어 구분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구분

■ 조사학생 성별

성별		빈도(명)	퍼센트(%)
유 호	남 자	953	46.3
	여 자	1,084	52.6
	합 계	2,037	99.9
결	측	22	1.1
합	계	2,059	100.0



■ 학교별 구분

학교 구분		빈도(명)	퍼센트(%)
유 호	중 학 교	990	48.1
	일반계고등학교	383	18.6
	특성화고등학교	434	21.1
	자립형 사립고	6	0.3
	특수목적고등학교	179	8.7
	기 타	39	1.9
	합 계	2,031	98.6
결 측		28	1.4
합 계		2,059	100.0

■ 학년별 구분

학년		빈도(명)	퍼센트(%)
유 호	1 학 년	630	30.6
	2 학 년	843	40.9
	3 학 년	569	27.6
	합 계	2,042	99.2
결 측		17	0.8
합 계		2,059	100.0

■ 부모님 직업유무

부모님 직업		빈도(명)	퍼센트(%)
유 호	아빠 있음,엄마 있음	1,254	60.9
	아빠 있음,엄마 없음	608	29.5
	아빠 없음,엄마 있음	61	3.0
	아빠엄마 모두 없음	39	1.9
	합 계	1,962	95.3
결 측		97	4.7
합 계		2,059	100.0

[표 2] 진로에 대한 꿈이나 목표 유무

구분		진로에 대한 꿈이나 목표 유무			X^2 (p)
		없다	생각중이다	있다	
성별	남자	48 (5.0%)	407 (42.7%)	498 (52.3%)	1.948 (0.377)
	여자	48 (4.4%)	495 (45.7%)	541 (49.9%)	
학교	중학교	52 (5.3%)	458 (46.3%)	480 (48.5%)	31.232 (0.001)
	일반계 고등학교	17 (4.4%)	153 (39.9%)	213 (55.6%)	
	특성화 고등학교	21 (4.8%)	195 (44.9%)	218 (50.2%)	
	자율형 고등학교	2 (33.3%)	1 (16.7%)	3 (50.0%)	
	특수목적 고등학교	1 (0.6%)	68 (38.0%)	110 (61.5%)	
	기타	2 (5.1%)	21 (53.8%)	16 (41.0%)	
전 체		96 (4.7%)	909 (44.1%)	1054 (51.2%)	

각 구분과 응답에 대한 카이제곱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성별, 학교구분에 따라 진로에 대한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중 1,054명(51.2%)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909명(44.1%)은 생각중이라고 대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봐도 양성 모두 전체와 1,2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기타(생각중이다-53.8%)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1순위로 가장 많았다.



[표 3]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계획 정도

구분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계획 고민정도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92 (9.8%)	172 (18.2%)	377 (40.0%)	206 (21.8%)	96 (10.2%)	12.143 (0.016)
	여자	93 (8.6%)	229 (21.3%)	367 (34.1%)	284 (26.4%)	104 (9.7%)	
학교	중학교	78 (8.0%)	169 (17.2%)	365 (37.2%)	247 (25.2%)	121 (12.3%)	83.921 (0.000)
	일반계 고등학교	51 (13.4%)	80 (21.0%)	141 (37.0%)	84 (22.0%)	25 (6.6%)	
	특성화 고등학교	39 (9.0%)	74 (17.2%)	159 (36.9%)	117 (27.1%)	42 (9.7%)	
	자율형 고등학교	0 (0.0%)	1 (16.7%)	2 (33.3%)	2 (33.3%)	1 (16.7%)	
	특수목적 고등학교	20 (11.2%)	67 (37.4%)	57 (31.8%)	33 (18.4%)	2 (1.1%)	
	기타	0 (0.0%)	8 (21.6%)	15 (40.5%)	6 (16.2%)	8 (21.6%)	
	없다	0 (0.0%)	4 (4.2%)	11 (11.5%)	16 (16.7%)	65 (67.7%)	869.767 (0.000)
목표 유무	생각중이다	4 (0.4%)	63 (7.0%)	386 (42.9%)	320 (35.6%)	127 (14.1%)	
	있다	185 (17.7%)	338 (32.3%)	351 (33.6%)	162 (15.5%)	10 (1.0%)	
전 체		189 (9.3%)	405 (19.8%)	748 (36.6%)	498 (24.4%)	202 (9.9%)	

①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과 계획을 세웠다 ②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결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③ 나는 나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만 하고 있다 ④ 나의 장래에
대해 결정했지만 고민 된다 ⑤ 나의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다

장래에 얻고자 하는 직업에 관한 진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나는 나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만 하고 있다 748명(36.6%)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나의 장래에 대해 결정했지만 고민 된다 498명(24.4%) -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결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405명(19.8%)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전체와 1-3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나의 진로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본 적 없다 65명(67.7%) - 나의 장래에 대해 결정했지만 고민 된다 16명(16.7%) - 나는 나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만 하고 있다 11명(11.5%), 목표에 대해 생각중인 학생들은 나는 나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만 하고 있다 - 나의 장래에 대해 결정했지만 고민 된다 - 나의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다,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나는 나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만 하고 있다 -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결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과 계획을 세웠다 순으로 응답에 차이가 보였다.



[표 4]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분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30 (3.2%)	102 (10.7%)	393 (41.3%)	337 (35.4%)	90 (9.5%)	13.955 (0.007)
	여자	27 (2.5%)	136 (12.5%)	481 (44.4%)	380 (35.1%)	60 (5.5%)	
학교	중학교	29 (2.9%)	107 (10.8%)	416 (42.0%)	356 (36.0%)	82 (8.3%)	87.197 (0.000)
	일반계 고등학교	9 (2.3%)	54 (14.1%)	186 (48.6%)	112 (29.2%)	22 (5.7%)	
	특성화 고등학교	17 (3.9%)	56 (12.9%)	205 (47.2%)	133 (30.6%)	23 (5.3%)	
	자율형 고등학교	2 (33.3%)	0 (0.0%)	3 (50.0%)	1 (16.7%)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0 (0.0%)	15 (8.4%)	49 (27.4%)	98 (54.7%)	17 (9.5%)	
	기타	0 (0.0%)	3 (7.9%)	13 (34.2%)	16 (42.1%)	6 (15.8%)	
목표 유무	없다	11 (11.5%)	17 (17.7%)	49 (51.0%)	18 (18.8%)	1 (1.0%)	86.251 (0.000)
	생각중이다	21 (2.3%)	124 (13.7%)	427 (47.0%)	294 (32.4%)	42 (4.6%)	
	있다	26 (2.5%)	99 (9.4%)	410 (38.9%)	412 (39.1%)	107 (10.2%)	
전 체		58 (2.8%)	240 (11.7%)	886 (43.1%)	724 (35.2%)	150 (7.3%)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각 구분과 응답에 대한 카이제곱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성별, 진로에 대한 꿈이나 목표유무(이하 목표유무) 구분에 따라 자신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886명(43.1%)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고 만족한다 724명(35.2%) - 불만이다 240명(11.7%)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양성 모두 전체와 동일하게 1-3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목표유무에 따른 분류에서도 전체와 동일한 1-3순위를 보이고 있다.



[표 5]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요소

구분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요소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자	207 (22.0%)	628 (66.8%)	75 (8.0%)	14 (1.5%)	6 (0.6%)	10 (1.1%)	23.132 (0.000)
	여자	187 (17.6%)	801 (75.5%)	48 (4.5%)	9 (0.8%)	3 (0.3%)	13 (1.2%)	
학교	중학교	193 (20.0%)	699 (72.4%)	50 (5.2%)	15 (1.6%)	2 (0.2%)	7 (0.7%)	142.52 5 (0.000)
	일반계 고등학교	94 (24.8%)	257 (67.8%)	20 (5.3%)	2 (0.5%)	2 (0.5%)	4 (1.1%)	
	특성화 고등학교	84 (19.5%)	289 (67.2%)	43 (10.0%)	5 (1.2%)	4 (0.9%)	5 (1.2%)	
	자율형 고등학교	1 (16.7%)	4 (66.7%)	0 (0.0%)	0 (0.0%)	1 (16.7%)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19 (10.7%)	153 (86.0%)	3 (1.7%)	1 (0.6%)	0 (0.0%)	2 (1.1%)	
	기타	1 (2.8%)	25 (69.4%)	5 (13.9%)	0 (0.0%)	0 (0.0%)	5 (13.9%)	
목표 유무	없다	26 (27.4%)	59 (62.1%)	7 (7.4%)	1 (1.1%)	2 (2.1%)	0 (0.0%)	36.126 (0.000)
	생각중이다	185 (20.7%)	614 (68.8%)	75 (8.4%)	6 (0.7%)	2 (0.2%)	10 (1.1%)	
	있다	187 (18.1%)	772 (74.5%)	41 (4.0%)	17 (1.6%)	5 (0.5%)	14 (1.4%)	
전 체		398 (19.7%)	1,445 (71.4%)	123 (6.1%)	24 (1.2%)	9 (0.4%)	24 (1.2%)	

① 나의 지식정도(성적) ② 적성과 흥미 ③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조건 등)

④ 부모님의 권유 및 지지 ⑤ 교사의 권유 및 지지 ⑥ 기타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깊게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과반이 넘는 수가 적성과 흥미 1,445명(71.4%)을 가장 깊게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나의 지식정도 398명(19.7%)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에서 양성 모두 전체와 동일하게 적성과 흥미-나의 지식정도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목표유무 역시 동일한 응답을 보였다.



[표 6]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구분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자	503 (54.2%)	86 (9.3%)	83 (8.9%)	106 (11.4%)	23 (2.5%)	127 (13.7%)	12.423 (0.029)
	여자	570 (55.1%)	115 (11.1%)	114 (11.0%)	119 (11.5%)	16 (1.5%)	101 (9.8%)	
학교	중학교	556 (59.3%)	97 (10.3%)	81 (8.6%)	88 (9.4%)	19 (2.0%)	97 (10.3%)	69.842 (0.000)
	일반계 고등학교	207 (55.1%)	42 (11.2%)	33 (8.8%)	39 (10.4%)	8 (2.1%)	47 (12.5%)	
	특성화 고등학교	195 (46.0%)	51 (12.0%)	53 (12.5%)	55 (13.0%)	8 (1.9%)	62 (14.6%)	
	자율형 고등학교	3 (50.0%)	1 (16.7%)	0 (0.0%)	2 (33.3%)	0 (0.0%)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91 (51.1%)	10 (5.6%)	28 (15.7%)	28 (15.7%)	5 (2.8%)	16 (9.0%)	
	기타	18 (50.0%)	1 (2.8%)	0 (0.0%)	13 (36.1%)	0 (0.0%)	4 (11.1%)	
목표 유무	없다	53 (55.2%)	11 (11.5%)	7 (7.3%)	4 (4%)	2 (2.1%)	19 (19.8%)	47.294 (0.000)
	생각중이다	455 (52.1%)	113 (12.9%)	84 (9.6%)	81 (9.3%)	18 (2.1%)	123 (14.1%)	
	있다	577 (56.8%)	78 (7.7%)	107 (10.5%)	143 (14.1%)	21 (2.1%)	89 (8.8%)	
전 체		1,085 (54.7%)	202 (10.2%)	198 (10.0%)	228 (11.5%)	41 (2.1%)	231 (11.6%)	

① 적성과 흥미 ② 안정성 ③ 발전성과 장애성 ④ 보람과 자아성취 ⑤ 명예와 명성 ⑥ 수입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적성과 흥미 1,085명(54.7%)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수입 231명(11.6%) - 보람과 자아성취 228명(11.5%)순으로 2-3순위 응답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 남자는 전체와 1-3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여자는 1순위는 동일하지만 보람과 자아성취 119명(11.5%) - 안정성 115명(11.1%)가 각각 2-3순위로 나타났다. 목표유무에서 목표가 없는 학생은 적성과 흥미 53명(55.2%) - 수입 19명(19.8%) - 안정성 11명(11.5%)순으로, 목표에 대해 생각중인 학생은 적성과 흥미 455명(52.1%) - 수입 123명(14.1%) - 안정성 113명(12.9%)순으로, 목표가 있는 학생은 적성과 흥미 577명(56.8%) - 보람과 자아성취 143명(14.1%) - 발전성과 장애성 107명(10.5%)순으로 전체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진로를 상담하는 사람

구분		진로를 상담하는 사람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별	남자	164 18.2%	26 2.9%	90 10.0%	284 31.6%	124 13.8%	4 0.4%	24 2.7%	184 20.4%	115.833 (0.000)
	여자	282 27.5%	47 4.6%	69 6.7%	441 43.0%	47 4.6%	2 0.2%	17 1.7%	121 11.8%	
학교	중학교	204 21.9%	28 3.0%	48 5.1%	384 41.2%	74 7.9%	6 0.6%	19 2.0%	170 18.2%	150.529 (0.000)
	일반계 고등학교	80 22.1%	18 5.0%	47 13.0%	136 37.6%	31 8.6%	0 0.0%	11 3.0%	39 10.8%	
	특성화 고등학교	125 30.6%	21 5.1%	33 8.1%	110 26.9%	40 9.8%	0 0.0%	11 2.7%	69 16.9%	
	자율형 고등학교	0 0.0%	1 16.7%	0 0.0%	3 50.0%	0 0.0%	0 0.0%	0 0.0%	2 33.3%	
	특수목적 고등학교	28 15.9%	5 2.8%	17 9.7%	84 47.7%	24 13.6%	0 0.0%	0 0.0%	18 10.2%	
	기타	7 20.6%	0 0.0%	14 41.2%	5 14.7%	2 5.9%	0 0.0%	0 0.0%	6 17.6%	
목표 유무	없다	20 22.0%	2 2.2%	4 4.4%	24 26.4%	2 2.2%	0 0.0%	3 3.3%	36 39.6%	67.187 (0.000)
	생각중 이다	220 25.4%	38 4.4%	62 7.2%	310 35.8%	70 8.1%	5 0.6%	15 1.7%	147 17.0%	
	있다	214 21.6%	34 3.4%	93 9.4%	399 40.3%	101 10.2%	1 0.1%	23 2.3%	124 12.5%	
전 체		454 23.3%	74 3.8%	159 8.2%	733 37.6%	173 8.9%	6 0.3%	41 2.1%	307 15.8%	

① 또래친구 ② 형제,자매 ③ 교사 ④ 어머니 ⑤ 아버지 ⑥ 조부모 ⑦ 전문상담사 ⑧ 없다

학생들에게 본인의 진로 및 장래 직업에 관한 상담을 누구와 가장 많이 하는지 물었을 때 어머니 733명(37.6%)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응답은 또래친구 454명(23.3%)와 없다 307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어머니 284명(36.1%)로 전체와 같았지만 없다 184명(20.4%) - 또래친구 164명(18.2%) 순으로 전체와 1-3순위가 같은 여자와 응답의 차이점이 있었다.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없다 36명(39.6%) - 어머니 24명(26.4%) - 또래친구 20명(22.0%) 순으로 목표가 있거나 생각중인 학생들과 전체적인 1-3순위와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1] 진로 준비성 : 진로정보를 습득 방법 유무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39	0.86	-2.287 (0.022)
	여자	3.48	0.86	
학교	중학교	3.46	0.87	13.398 (0.000)
	일반계고등학교	3.45	0.81	
	특성화고등학교	3.26	0.87	
	자율형고등학교	3.50	0.83	
	특수목적고등학교	3.83	0.70	
	기타	3.02	0.76	
목표유무	없다	2.63	1.02	152.942 (0.000)
	생각중이다	3.19	0.78	
	있다	3.72	0.79	
전 체		3.44	0.86	

자신이 관심 있는 진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 3.44(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3.48가 남자 3.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83가 가장 높게 기타 3.02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목표유무로는 있다 3.72가 가장 높게 생각중이다 3.19, 없다 2.63순으로 나타났다.

[표 8-2] 진로 준비성 : 진로결정 조언 유무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63	0.81	-4.402 (0.000)
	여자	3.79	0.81	
학교	중학교	3.67	0.81	9.614 (0.000)
	일반계고등학교	3.80	0.78	
	특성화고등학교	3.62	0.81	
	자율형고등학교	2.83	0.98	
	특수목적고등학교	4.03	0.73	
	기타	3.64	0.78	
목표유무	없다	3.38	0.92	9.781 (0.000)
	생각중이다	3.69	0.76	
	있다	3.76	0.83	
전 체		3.71	0.81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할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71(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79가 남자 3.63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4.03가 가장 높게 자율형고등학교 2.8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76가 가장 높았으며 생각중이다 3.69, 없다 3.38순으로 나타났다.



[표 8-3] 진로 준비성 : 내가 관심있는 직업의 하는 일을 알고 있는 유무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48	0.95	-2.678 (0.007)
	여자	3.59	0.90	
학교	중학교	3.57	0.92	7.145 (0.000)
	일반계고등학교	3.58	0.94	
	특성화고등학교	3.34	0.90	
	자율형고등학교	3.66	0.81	
	특수목적고등학교	3.76	0.80	
	기타	3.21	1.05	
목표유무	없다	2.88	0.95	104.918 (0.000)
	생각중이다	3.29	0.84	
	있다	3.79	0.89	
전 체		3.53	0.92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있는
나는 질문에 전체 평균 3.53(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나타났다. 성별
로 비교하면 여자 3.59가 남자 3.48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
등학교 3.76가 가장 높게 기타 3.2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
는 있다 3.7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각중이다 3.29와 없다 2.88이
뒤를 이었다.

[표 8-4] 진로 준비성 : 내가 관심있는 직업의 전망을 알고 있는 유무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41	0.85	-2.486 (0.013)
	여자	3.50	0.87	
학교	중학교	3.45	0.83	13.557 (0.000)
	일반계고등학교	3.54	0.85	
	특성화고등학교	3.29	0.88	
	자율형고등학교	3.50	0.83	
	특수목적고등학교	3.82	0.77	
	기타	2.91	1.01	
목표유무	없다	2.71	0.93	150.589 (0.000)
	생각중이다	3.20	0.78	
	있다	3.74	0.80	
전 체		3.46	0.85	

자신이 관심을 가진 직업의 전망에 대해 아는가는 물음에 전체 평균
3.46(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50가 남자
3.41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82가 가장 높게 기타
2.9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74가 가장 높았으며
생각중이다 3.20, 없다 2.71순으로 나타났다.



[표 8-5] 진로 준비성 : 내가 관심있는 직업의 특성을 알고 있는 유무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35	0.91	-2.146 (0.032)
	여자	3.44	0.88	
학교	중학교	3.40	0.88	9.177 (0.000)
	일반계고등학교	3.44	0.87	
	특성화고등학교	3.22	0.91	
	자율형고등학교	3.33	0.81	
	특수목적고등학교	3.72	0.85	
	기타	3.10	0.99	
목표유무	없다	2.69	0.99	124.656 (0.000)
	생각중이다	3.15	0.82	
	있다	3.66	0.84	
전 체		3.39	0.89	

자신이 관심을 가진 직업의 특성에 대해 알고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 3.39(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3.44가 남자 3.35보다 높았으며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72가 가장 높게 기타 3.1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각중이다 3.15, 없다 2.69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 8-6] 진로 준비성 :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추기위한 학력 및 자격증을 알고 있는 유무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25	0.98	-1.704 (0.089)
	여자	3.32	1.00	
학교	중학교	3.23	0.99	9.378 (0.000)
	일반계고등학교	3.33	1.00	
	특성화고등학교	3.27	0.95	
	자율형고등학교	3.16	0.75	
	특수목적고등학교	3.67	0.88	
	기타	2.64	1.03	
목표유무	없다	2.45	0.97	111.304 (0.000)
	생각중이다	3.05	0.89	
	있다	3.56	0.98	
전 체		3.28	0.99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증에 대해 알고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28(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32가 남자 3.25보다 높았으며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67가 가장 높게 기타 2.64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56가 가장 높았으며 생각중이다 3.05, 없다 2.45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분		진로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과 도움이 되는 요인은?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230 (24.6%)	97 (10.4%)	122 (13.0%)	183 (19.6%)	303 (32.4%)	26.737 (0.000)
	여자	228 (21.6%)	139 (13.2%)	189 (17.9%)	137 (13.0%)	364 (34.4%)	
학교	중학교	214 (22.2%)	118 (12.2%)	156 (16.1%)	138 (14.3%)	340 (35.2%)	77.047 (0.000)
	일반계 고등학교	118 (31.6%)	45 (12.1%)	53 (14.2%)	67 (18.0%)	90 (24.1%)	
	특성화 고등학교	74 (17.3%)	40 (9.4%)	50 (11.7%)	93 (21.8%)	170 (39.8%)	
	자율형 고등학교	2 (33.3%)	0 (0.0%)	2 (33.3%)	1 (16.7%)	1 (16.7%)	
	특수목적 고등학교	48 (26.8%)	24 (13.4%)	38 (21.2%)	19 (10.6%)	50 (27.9%)	
	기타	4 (11.4%)	7 (20.0%)	10 (28.6%)	1 (2.9%)	13 (37.1%)	
목표 유무	없다	22 (23.2%)	12 (12.6%)	13 (13.7%)	22 (23.2%)	26 (27.4%)	6.743 (0.565)
	생각중이 다	195 (22.0%)	101 (11.4%)	145 (16.3%)	141 (15.9%)	306 (34.5%)	
	있다	246 (23.9%)	130 (12.6%)	154 (14.9%)	160 (15.5%)	341 (33.1%)	
전 체		463 (23.0%)	243 (12.1%)	312 (15.5%)	323 (16.0%)	673 (33.4%)	

① 정보적 지지 ② 대화적 지지 ③ 정서적 지지 ④ 경제적 지지 ⑤ 경험적 지지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경험적지지 673명(33.4%)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고 정보적지지 463명(23.0%)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분류해도 양성 모두 전체와 동일하게 경험적지지-정보적지지를 1-2순위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유무에 따르면 목표가 있거나 생각중인 학생들을 제외한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경험적 지지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난 것은 동일하지만 정보적지지, 경제적지지 모두 22명(23.2%)으로 동일하게 2순위인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내 진로활동 경험 유무 및 만족

[표 10] 진로 및 꿈에 관심을 가진 시기

구분		진로나 꿈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년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별	남자	31 3.3%	142 15.1%	109 11.6%	154 16.4%	257 27.3%	155 16.5%	78 8.3%	14 1.5%	21.931 (0.003)
	여자	38 3.6%	170 16.0%	149 14.0%	222 20.9%	270 25.4%	142 13.4%	66 6.2%	4 0.4%	
학교	중학교	44 4.6%	244 25.3%	218 22.6%	267 27.6%	190 19.7%	2 0.2%	1 0.1%	0 0.0%	984.783 (0.000)
	일반계 고등학교	14 3.7%	12 3.2%	11 2.9%	39 10.3%	120 31.7%	138 36.4%	41 10.8%	4 1.1%	
	특성화 고등학교	3 0.7%	33 7.6%	13 3.0%	37 8.6%	119 27.5%	122 28.2%	91 21.1%	14 3.2%	
	자율형 고등학교	1 16.7%	1 16.7%	0 0.0%	0 0.0%	3 50.0%	1 16.7%	0 0.0%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8 4.5%	17 9.7%	10 5.7%	29 16.5%	86 48.9%	24 13.6%	2 1.1%	0 0.0%	
	기타	0 0.0%	5 13.5%	5 13.5%	1 2.7%	10 27.0%	6 16.2%	10 27.0%	0 0.0%	
목표 유무	없다	9 9.8%	12 13.0%	8 8.7%	19 20.7%	25 27.2%	10 10.9%	8 8.7%	1 1.1%	24.689 (0.038)
	생각중 이다	25 2.8%	125 14.1%	103 11.6%	170 19.1%	249 28.0%	137 15.4%	73 8.2%	7 0.8%	
	있다	39 3.7%	177 17.0%	149 14.3%	189 18.1%	262 25.1%	151 14.5%	65 6.2%	10 1.0%	
전 체		73 3.6%	314 15.5%	260 12.9%	378 18.7%	536 26.5%	298 14.7%	146 7.2%	18 0.9%	

① 초등학교 저학년(1,2,3학년) ② 초등학교 고학년(4,5,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로나 꿈에 대해 관심을 가졌거나 깊게 생각해본 때가 언제 인지 관심발생학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중학교 3학년 536명(26.5%)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중학교 2학년 378명(18.7%)이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여자는 전체와 1-2위가 같은 응답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 중학교 3학년 257명(27.3%)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 155명(16.5%)이 차 순위로 많은 응답을 나타내 차이가 있었다. 목표유무에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진로나 꿈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진로활동에 관심이 있는 이유

구분		진로체험활동에 관심 있는 이유는?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체험 관심유무	있다	492 (36.1%)	196 (14.4%)	23 (1.7%)	641 (47.1%)	9 (0.7%)	52.062 (0.000)
	없다	3 (30.0%)	2 (20.0%)	1 (10.0%)	2 (20.0%)	2 (20.0%)	
전 체		495 (36.1%)	198 (14.4%)	24 (1.8%)	643 (46.9%)	11 (0.8%)	

①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 체험이 가능하므로 ② 진로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③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④ 나의 장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되므로 ⑤ 또래친구들이 관심이 있어서

청소년진로체험에 관심 있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나의 장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되므로 643명(46.9%)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유로는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 체험이 가능하므로 495명(36.1%) - 진로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196명(14.4%) -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있으므로 24명(1.8%) - 또래친구들이 관심이 있어서 11명(0.8%)순으로 나타났다.

[표 11-2] 진로활동에 관심이 없는 이유

구분		진로체험활동에 관심 없는 이유는?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체험 관심유무	있다	15 (51.7%)	3 (10.3%)	3 (10.3%)	6 (20.7%)	2 (6.9%)	10.609 (0.031)
	없다	125 (26.9%)	120 (25.9%)	98 (21.1%)	102 (22.0%)	19 (4.1%)	
전 체		140 (28.4%)	123 (24.9%)	101 (20.5%)	108 (21.9%)	21 (4.3%)	

①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②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진로교육은 자습시간이므로 ③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④ 학교시험이 더 중요하므로 ⑤ 장래 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관심이 없는 이유를 물었을 때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140명(28.4%)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진로교육은 자습시간이므로 123명(24.9%) - 학교시험이 더 중요하므로 108명(21.9%) -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1명(20.5%) - 장래 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21명(4.3%)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진로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간

구분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간은?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504 (53.2%)	151 (15.9%)	24 (2.5%)	160 (16.9%)	108 (11.4%)	20.813 (0.000)
	여자	564 (53.3%)	233 (22.0%)	30 (2.8%)	121 (11.4%)	111 (10.5%)	
학교	중학교	551 (56.5%)	164 (16.8%)	28 (2.9%)	134 (13.7%)	98 (10.1%)	111.491 (0.000)
	일반계 고등학교	189 (49.7%)	91 (23.9%)	13 (3.4%)	38 (10.0%)	49 (12.9%)	
	특성화 고등학교	185 (43.0%)	89 (20.7%)	8 (1.9%)	93 (21.6%)	55 (12.8%)	
	자율형 고등학교	2 (33.3%)	3 (50.0%)	0 (0.0%)	0 (0.0%)	1 (16.7%)	
	특수목적 고등학교	133 (74.3%)	27 (15.1%)	3 (1.7%)	9 (5.0%)	7 (3.9%)	
	기타	7 (22.6%)	9 (29.0%)	1 (3.2%)	3 (9.7%)	11 (35.5%)	
목표 유무	없다	48 (50.5%)	20 (21.1%)	3 (3.2%)	18 (18.9%)	6 (6.3%)	16.019 (0.042)
	생각중이다	489 (54.7%)	172 (19.2%)	12 (1.3%)	126 (14.1%)	95 (10.6%)	
	있다	540 (52.0%)	195 (18.8%)	39 (3.8%)	142 (13.7%)	123 (11.8%)	
전 체		1077 (53.1%)	387 (19.1%)	54 (2.7%)	286 (14.1%)	224 (11.0%)	

① 진로와 직업 수업시간 ②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③ 토요스쿨 ④ 일반교과시간 ⑤ 방과후활동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간을 물었을 때 전체의 과반이 넘는 1077명(53.1%)이 진로와 직업 수업시간을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간으로 응답했다. 뒤를 이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387명(19.1%)과 일반교과시간 286명(14.1%)이 2-3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는 전체와 1-3위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 진로와 직업 수업시간 504명(53.2%)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지만 일반교과 160명(16.9%) -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151명(15.9%)순으로 전체와 2-3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목표가 없는/생각중인/있는 학생 모두 전체와 동일한 1-3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3] 진로에 대해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

구분		진로에 대해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은?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469 49.9%	197 21.0%	27 2.9%	147 15.6%	100 10.6%	10.111 (0.039)
	여자	509 48.4%	270 25.7%	35 3.3%	126 12.0%	111 10.6%	
학교	중학교	502 51.9%	209 21.6%	32 3.3%	136 14.1%	88 9.1%	53.655 (0.000)
	일반계 고등학교	180 48.1%	96 25.7%	9 2.4%	34 9.1%	55 14.7%	
	특성화 고등학교	178 41.4%	105 24.4%	16 3.7%	81 18.8%	50 11.6%	
	자율형 고등학교	2 33.3%	2 33.3%	0 0.0%	2 33.3%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105 59.0%	45 25.3%	4 2.2%	11 6.2%	13 7.3%	
	기타	10 33.3%	8 26.7%	2 6.7%	5 16.7%	5 16.7%	
목표 유무	없다	46 49.5%	18 19.4%	3 3.2%	22 23.7%	4 4.3%	18.053 (0.021)
	생각중이다	450 51.0%	207 23.4%	20 2.3%	118 13.4%	88 10.0%	
	있다	493 47.6%	244 23.6%	41 4.0%	136 13.1%	121 11.7%	
전 체		989 49.2%	469 23.3%	64 3.2%	276 13.7%	213 10.6%	

① 진로와 직업 수업시간 ②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③ 토요스쿨 ④ 일반교과시간 ⑤ 방과후활동

진로에 대해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전체 중 989명(49.2%)이 진로와 직업 수업시간을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469명(23.3%) 일반교과시간 276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양성 모두 전체와 1-3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목표가 없는/생각중인/있는 학생들 모두 전체와 1-3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4] 학교 내 실시하는 진로활동시간의 만족

구분		학교 내의 진로체험활동만으로 진로를 모색하는데 충분한가?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135 14.3%	262 27.8%	387 41.1%	134 14.2%	23 2.4%	34.835 (0.000)
	여자	197 18.4%	384 35.9%	371 34.7%	92 8.6%	25 2.3%	
학교	중학교	158 16.2%	291 29.8%	392 40.2%	114 11.7%	21 2.2%	123.787 (0.000)
	일반계 고등학교	85 22.4%	166 43.7%	104 27.4%	22 5.8%	3 0.8%	
	특성화 고등학교	69 16.1%	124 29.0%	175 40.9%	49 11.4%	11 2.6%	
	자율형 고등학교	2 33.3%	1 16.7%	3 50.0%	0 0.0%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20 11.3%	55 31.1%	65 36.7%	32 18.1%	5 2.8%	
	기타	0 0.0%	6 16.2%	16 43.2%	8 21.6%	7 18.9%	
목표 유무	없다	25 26.0%	26 27.1%	37 38.5%	5 5.2%	3 3.1%	28.247 (0.000)
	생각중이다	136 15.1%	314 35.0%	350 39.0%	86 9.6%	12 1.3%	
	있다	175 16.9%	310 29.9%	382 36.8%	137 13.2%	34 3.3%	
전 체		336 16.5%	650 32.0%	769 37.8%	228 11.2%	49 2.4%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활동만으로 진로를 모색하는 것에 충분한지에 대해 물었을 때 769명(37.8%)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부족하다 650명(32.0%), 매우 부족하다 336명(16.5%)은 응답이 각각 2-3위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는 부족하다 384명(35.9%)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족하다 371명(34.7%), 매우 부족하다 197명(18.4%)이 뒤를 이어 전체와 1-3순위가 같은 남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목표유무가 없다/생각중이다/있다는 학생들 모두 전체와 1-3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5] 학교 내 경험한 진로활동 프로그램

구분		학교 내에서 경험한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성별	남자	486 51.6%	77 8.2%	248 26.4%	194 20.6%	471 50.1%	226 24.0%	158 16.8%	217 23.1%	124 13.2%	74 7.9%	59 6.3%	116 12.3%	13 1.4%
	여자	620 57.9%	104 9.7%	431 40.3%	311 29.1%	681 63.6%	357 33.4%	230 21.5%	275 25.7%	228 21.3%	91 8.5%	82 7.7%	41 3.8%	17 1.6%
학교	중학교	503 51.6%	86 8.8%	300 30.8%	239 24.5%	541 55.5%	270 27.7%	154 15.8%	132 13.5%	140 14.4%	54 5.5%	77 7.9%	94 9.6%	11 1.1%
	일반계 고등학교	228 60.0%	21 5.5%	108 28.4%	105 27.6%	256 67.4%	121 31.8%	88 23.2%	103 27.1%	80 21.1%	21 5.5%	10 2.6%	17 4.5%	5 1.3%
	특성화 고등학교	213 49.9%	60 14.1%	185 43.3%	94 22.0%	171 40.0%	127 29.7%	78 18.3%	113 26.5%	56 13.1%	67 15.7%	37 8.7%	45 10.5%	9 2.1%
	자율형 고등학교	2 33.3%	0 0.0%	3 50.0%	1 16.7%	0 0.0%	2 33.3%	1 16.7%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143 79.9%	14 7.8%	62 34.6%	43 24.0%	157 87.7%	50 27.9%	45 25.1%	121 67.6%	68 38.0%	7 3.9%	16 8.9%	1 0.6%	0 0.0%
	기타	16 42.1%	1 2.6%	20 52.6%	19 50.0%	28 73.7%	12 31.6%	22 57.9%	22 57.9%	8 21.1%	15 39.5%	1 2.6%	0 0.0%	5 13.2%
목표 유무	없다	38 40.4%	6 6.4%	26 27.7%	18 19.1%	39 41.5%	25 26.6%	14 14.9%	9 9.6%	9 9.6%	5 5.3%	5 5.3%	16 17.0%	1 1.1%
	생각 중이다	487 54.8%	69 7.8%	299 33.6%	199 22.4%	505 56.8%	251 28.2%	163 18.3%	213 24.0%	150 16.9%	59 6.6%	50 5.6%	70 7.9%	11 1.2%
	있다	589 56.3%	109 10.4%	358 34.2%	289 27.6%	617 58.9%	312 29.8%	216 20.6%	274 26.2%	195 18.6%	102 9.7%	88 8.4%	72 6.9%	18 1.7%
전 체		1114	184	683	506	1161	588	393	496	354	166	143	158	30

① 진로와 직업 과목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② 진로캠프 ③ 현장학습이나 탐방을 통한 진로교육
④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⑤ 진로관련 검사 ⑥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
⑦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체험활동 ⑧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 ⑨ 진로관련
읽기 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⑩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⑪ 토요스쿨 ⑫ 없다 ⑬ 기타

학교 내에서 실시한 모든 청소년진로체험활동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진로관련검사(1161명)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진로와 직업 과목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1114명)이 2위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류해보면 남자는 진로와 직업 과목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486명(51.6%)이 1위, 진로관련검사 471(50.1%)이 2위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전체와 1-2순위가 같았다. 목표유무로는 목표가 없다/생각중이다/있다 모두 전체와 1-2순위가 같게 나타났다.

[표 15-1] 학교 내 진로활동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교내진로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이유는?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교내 진로 체험 프로 그램 만족도	매우 만족	32 (36.8%)	10 (11.5%)	19 (21.8%)	8 (9.2%)	7 (8.0%)	11 (12.6%)	45.751 (0.001)
	만족	109 (17.6%)	36 (5.8%)	167 (26.9%)	117 (18.9%)	49 (7.9%)	142 (22.9%)	
	보통	5 (23.8%)	4 (19.0%)	4 (19.0%)	3 (14.3%)	1 (4.8%)	4 (19.0%)	
	불만족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매우 불만족	0 (0.0%)	1 (25.0%)	1 (25.0%)	2 (50.0%)	0 (0.0%)	0 (0.0%)	
전 체		146 (19.9%)	52 (7.1%)	191 (26.0%)	131 (17.8%)	57 (7.8%)	157 (21.4%)	

①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②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개발 ③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④ 교육 기회와 직업정보의 탐색 ⑤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⑥ 진로계획과 준비

교내 진로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191명(26.0%)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진로계획과 준비 157명(21.4%)과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146명(19.9%)이 각각 2-3순위로 나타났다. 교내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들은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32명(36.8%) -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19명(21.8%) - 진로계획과 준비 11명(12.6%)이 1-3순위였고 만족하는 학생들의 경우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167명(26.9%) - 진로계획과 준비 142명(22.9%) - 교육 기회와 직업정보의 탐색 117명(18.9%)이 각각 1-3순위로 나타났다.



[표 15-2] 학교 내 진로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

구분		교내진로프로그램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교내 진로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만족	3 (60.0%)	1 (20.0%)	0 (0.0%)	1 (20.0%)	0 (0.0%)	0 (0.0%)	80.362 (0.000)
	만족	4 (33.3%)	2 (16.7%)	2 (16.7%)	0 (0.0%)	3 (25.0%)	1 (8.3%)	
	보통	55 (7.2%)	76 (10.0%)	295 (38.8%)	59 (7.8%)	153 (20.1%)	123 (16.2%)	
	불만족	18 (7.0%)	22 (8.6%)	135 (52.7%)	4 (1.6%)	31 (12.1%)	46 (18.0%)	
	매우 불만족	10 (8.1%)	16 (12.9%)	50 (40.3%)	5 (4.0%)	11 (8.9%)	32 (25.8%)	
전 체		90 (7.8%)	117 (10.1%)	482 (41.6%)	69 (6.0%)	198 (17.1%)	202 (17.4%)	

① 교과시간에 실시하는 진로교육은 자습시간이므로 ② 진로체험활동이 단순견학이나 일회성 행사 위주이므로 ③ 나의 구체적인 직업 및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④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므로 ⑤ 내가 원하는 진로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⑥ 나의 흥미나 재미를 이끌지 못하고 강제성이 있으므로

교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나의 구체적인 직업 및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482명(41.6%)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나의 흥미나 재미를 이끌지 못하고 강제성이 있으므로 202명(17.4%)과 내가 원하는 진로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198명(17.1%)이 각각 2-3순위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에 응답한 학생들과 매우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학생들 모두 전체의 1-3순위와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나의 구체적인 직업 및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295명(38.8%) - 내가 원하는 진로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153명(20.1%) - 나의 흥미나 재미를 이끌지 못하고 강제성이 있으므로 123명(16.2%)으로 1-3순위가 나타났다.



[표 16] 진로 관련 검사 경험 유무

구분		청소년진로관련 검사 경험 유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별	남자	265 (28.2%)	23 (2.4%)	340 (36.2%)	249 (26.5%)	150 (16.0%)	123 (13.1%)	191 (20.3%)
	여자	374 (35.1%)	44 (4.1%)	446 (41.8%)	381 (35.7%)	197 (18.5%)	177 (16.6%)	98 (9.2%)
학교	중학교	322 (33.2%)	17 (1.8%)	306 (31.5%)	286 (29.5%)	212 (21.8%)	116 (11.9%)	154 (15.9%)
	일반계 고등학교	110 (29.2%)	17 (4.5%)	238 (63.1%)	93 (24.7%)	61 (16.2%)	72 (19.1%)	29 (7.7%)
	특성화 고등학교	93 (21.7%)	31 (7.2%)	86 (20.0%)	180 (42.0%)	26 (6.1%)	26 (6.1%)	97 (22.6%)
	자율형 고등학교	1 (16.7%)	0 (0.0%)	0 (0.0%)	4 (66.7%)	0 (0.0%)	0 (0.0%)	1 (16.7%)
	특수목적 고등학교	87 (49.2%)	2 (1.1%)	149 (84.2%)	66 (37.3%)	48 (27.1%)	65 (36.7%)	3 (1.7%)
	기타	27 (71.1%)	0 (0.0%)	7 (18.4%)	1 (2.6%)	0 (0.0%)	21 (55.3%)	1 (2.6%)
목표 유무	없다	21 (22.1%)	3 (3.2%)	22 (23.2%)	27 (28.4%)	8 (8.4%)	14 (14.7%)	26 (27.4%)
	생각중이다	280 (31.4%)	27 (3.0%)	334 (37.4%)	270 (30.3%)	153 (17.2%)	116 (13.0%)	144 (16.1%)
	있다	343 (33.1%)	37 (3.6%)	438 (42.3%)	340 (32.9%)	189 (18.3%)	171 (16.5%)	122 (11.8%)
전 체		644	67	794	637	350	301	292

① MBTI ② 에니어그램 ③ 홀랜드 진로발달 ④ 학습능력검사 ⑤ 직업카드 ⑥ 다중지능검사 ⑦ 없다

청소년 진로 관련 검사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홀랜드 진로발달(794명)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뒤를 이어 MBTI(644명)와 학습능력검사(6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전체와 1-3순위가 동일했으며 여자는 학습능력검사 381명(35.7%), 374명(35.1%)이 각각 2-3순위로 나타났다. 목표유무에 따라서는 목표가 없는 경우 학습능력검사 27명(28.4%) - 없다 26명(27.4%) - 홀랜드 진로발달 22명(23.2%)로 나타났다고 목표에 대해 생각중인 학생과 목표가 있는 학생은 전체의 1-3순위와 동일한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진로활동 경험 유무 및 만족

[표 17-1] 학교 밖 청소년 진로활동에 참여한 기관

구분		청소년진로체험활동 관련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참여 경험	있다	191 (35.6%)	14 (2.6%)	248 (46.2%)	38 (7.1%)	70 (13.0%)	55 (10.2%)	154 (28.7%)	19 (3.5%)
	지금은 아니지만 참여할 계획이다	22 (8.9%)	15 (6.0%)	36 (14.5%)	18 (7.3%)	31 (12.5%)	25 (10.1%)	43 (17.3%)	111 (44.8%)
	없다	2 (15.4%)	0 (0.0%)	1 (7.7%)	0 (0.0%)	0 (0.0%)	1 (7.7%)	0 (0.0%)	9 (69.2%)
전 체		215	29	285	56	101	81	197	139

① 청소년수련관 ② 청소년문화의집 ③ 청소년수련원 ④ 청소년종합지원센터
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⑥ 사회복지관 ⑦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⑧ 없다

청소년진로체험활동 관련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두 응답하라는 질문에서 청소년수련원 285명, 청소년수련관 215명,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197명 순으로 1-3순위가 나타났다.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청소년수련원 248명(46.2%), 청소년수련관 191명(35.6%),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154명(28.7%)순으로 전체와 동일한 응답을 보였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참여할 계획인 학생들은 없다 111명(44.8%),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43명(17.3%), 청소년수련원 36명(14.5%)로 전체의 1-3순위와는 조금 다른 응답을 보였다.

[표 17-2] 학교 밖 청소년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

구분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싶은 이유								χ^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참여 경험	있다	76 (15.7%)	28 (5.8%)	46 (9.5%)	31 (6.4%)	202 (41.6%)	19 (3.9%)	45 (9.3%)	38 (7.8%)	67.959 (0.000)
	지금은 아니지만 참여할 계획이다	36 (11.7%)	5 (1.6%)	8 (2.6%)	14 (4.6%)	193 (62.9%)	12 (3.9%)	34 (11.1%)	5 (1.6%)	
	없다	1 (11.1%)	2 (22.2%)	2 (22.2%)	1 (11.1%)	1 (11.1%)	0 (0.0%)	1 (11.1%)	1 (11.1%)	
전 체		113 (14.1%)	35 (4.4%)	56 (7.0%)	46 (5.7%)	396 (49.4%)	31 (3.9%)	80 (10.0%)	44 (5.5%)	

① 참여하고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②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③ 친구들이 참여하고있어서
④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좋아서 ⑤ 진로찾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⑥ 전문지도자가 있어서 ⑦ 경력살기 ⑧ 기타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싶은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전체 중 396명(49.4%)이 진로찾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113명(14.1%)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지금은 아니지만 참여할 계획인 학생들 모두 전체의 1-2순위와 동일한 순위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3] 학교 밖 청소년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구분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싶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참여 경험	있다	144 (28.1%)	105 (20.5%)	112 (21.9%)	122 (23.8%)	129 (25.2%)	188 (36.7%)	141 (27.5%)	180 (35.2%)
	지금은 아니지만 참여할 계획이다	98 (30.2%)	73 (22.5%)	65 (20.1%)	91 (28.1%)	76 (23.5%)	102 (31.5%)	90 (27.8%)	130 (40.1%)
	없다	2 (22.2%)	1 (11.1%)	2 (22.2%)	1 (11.1%)	1 (11.1%)	1 (11.1%)	1 (11.1%)	3 (33.3%)
전 체		244	179	179	214	206	291	232	313

① 진로와 직업에 대한 특강 ②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의 진로교육 ③ 영상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직업군 체험 ④ 기업ceo,현직종사자 등 전문직업인 초청강연 ⑤ 기업체 현장견학 ⑥ 진로캠프 ⑦ 부산직업박람회,진로박람회 ⑧ 대학교 학과관련 견학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중에서 참여하고 있는 또는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모두 응답할 것을 요구했을 때 대학교 학과관련 견학 313명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진로캠프 291명, 진로와 직업에 대한 특강 244명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1순위가 진로캠프 188명(36.7%)이었고, 대학교 학과관련 견학 180명(35.2%), 진로와 직업에 대한 특강 144명(28.1%)이 그 뒤를 이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참여할 계획인 학생들은 전체 순위와 같이 대학교 학과관련 견학-진로캠프-진로와 직업에 대한 특강 순으로 응답했다.

[표 17-4] 학교 밖 청소년 진로활동에 참여 후 만족

구분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X^2 (p)
		①	②	③	④	⑤	
참여 경험	있다	52 (10.1%)	189 (36.8%)	248 (48.3%)	19 (3.7%)	5 (1.0%)	12.617 (0.126)
	지금은 아니지만 참여할 계획이다	4 (8.7%)	15 (32.6%)	23 (50.0%)	2 (4.3%)	2 (4.3%)	
	없다	0 (0.0%)	2 (22.2%)	5 (55.6%)	1 (11.1%)	1 (11.1%)	
전 체		56 (9.9%)	206 (36.3%)	276 (48.6%)	22 (3.9%)	8 (1.4%)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자신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물음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276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는 응답 206명(36.3%), 매우 만족한다 56명(9.9%)이 그 뒤를 이었다.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중 불만족 22명(3.9%), 매우 불만족 8명(1.4%)은 미비하게 나타났다.



[표 17-5] 학교 밖 청소년 진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구분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참여 경험	있다	6 (26.1%)	6 (26.1%)	2 (8.7%)	6 (26.1%)	3 (13.0%)	0 (0.0%)	34.781 (0.000)
	지금은 아니지만 참여할 계획이다	4 (19.0%)	2 (9.5%)	4 (19.0%)	5 (23.8%)	4 (19.0%)	2 (9.5%)	
	없다	277 (26.4%)	168 (16.0%)	20 (1.9%)	295 (28.1%)	231 (22.0%)	60 (5.7%)	
전 체		287 (26.2%)	176 (16.1%)	26 (2.4%)	306 (27.9%)	238 (21.7%)	62 (5.7%)	

- ①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②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③ 프로그램 참가비가 부담되어서 ④ 참여할 시간이 나지 않아서 ⑤ 진로체험활동 참여기회가 부족해서
⑥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전체응답 중 참여할 시간이 나지 않아서 306명(27.9%)이 가장 많았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287명(26.2%)이 2순위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진로체험활동 참여기회가 부족해서 238명(21.7%), 4순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76명(16.1%), 5순위로는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62명(5.7%)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참가비가 부담되어서는 26명(2.4%)으로 가장 적은 응답을 보였다.



진로 성숙도

[표 18] 성별, 학교, 진로목표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성별		학교						목표유무			전체
구분	문항	남	여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	자율형 고	특목고	기타	없다	생각중	있다	
자원 활용 정도	29	3.69*	3.78*	3.65*	3.87*	3.72*	3.66*	4.05*	3.35*	3.14*	3.55*	3.95*	3.74
	30	3.66	3.70	3.66*	3.71*	3.62*	3.00*	4.01*	3.38*	3.21*	3.51*	3.87*	3.68
	31	3.57*	3.79*	3.63*	3.79*	3.60*	4.00*	4.09*	3.51*	2.82*	3.45*	3.97*	3.68
	32	3.16*	3.27*	3.10*	3.38*	3.12*	3.00*	3.91*	2.84*	2.43*	2.98*	3.50*	3.22
정보와 계획	24	3.63*	3.76*	3.70*	3.79*	3.53*	2.83*	4.07*	3.33*	2.26*	3.25*	4.22*	3.70
	25	2.76	2.69	2.78*	2.64*	2.79*	2.83*	2.50*	2.35*	3.69*	3.25*	2.19*	2.73
	26	2.90	2.93	2.95	2.84	2.99	2.83	2.76	2.58	3.75*	3.48*	2.35*	2.92
	27	2.45*	2.13*	2.24*	2.25*	2.51*	3.00*	2.07*	1.71*	2.68*	2.44*	2.11*	2.28
	28	2.96	2.99	2.95*	2.97*	3.16*	3.16*	2.76*	2.53*	3.68*	3.40*	2.54*	2.97
일관성	18	3.30*	3.43*	3.36*	3.47*	3.20*	3.66*	3.67*	3.02*	2.02*	2.84*	3.94*	3.37
	19	3.12*	3.24*	3.19	3.14	3.22	3.33	3.22	3.13	2.81*	3.58*	2.89*	3.19
	20	2.76	2.68	2.71*	2.79*	2.55*	3.00*	3.05*	2.51*	1.85*	2.12*	3.33*	2.72
	21	2.83*	2.72*	2.79*	2.69*	2.82*	3.00*	2.61*	3.15*	3.25*	3.21*	2.35*	2.77
	22	2.62	2.56	2.64*	2.48*	2.70*	3.16*	2.30*	2.38*	3.48*	3.05*	2.11*	2.59
	23	3.00	2.91	2.91*	3.04*	2.86*	3.33*	3.29*	2.69*	1.80*	2.25*	3.67*	2.96
	23	3.00	2.91	2.91*	3.04*	2.86*	3.33*	3.29*	2.69*	1.80*	2.25*	3.67*	2.96
구체화	33	3.63*	4.00*	3.69*	4.03*	3.80*	2.83*	4.29*	3.58*	3.13*	3.63*	4.05*	3.82
	34	3.21	3.28	3.16*	3.34*	3.26*	3.33*	3.62*	2.89*	2.80*	3.07*	3.44*	3.25
	35	3.56*	3.80*	3.59*	3.82*	3.70*	3.50*	4.07*	3.25*	2.96*	3.50*	3.92*	3.69
	36	3.28*	3.75*	3.44*	3.82*	3.46*	4.00*	3.75*	3.05*	3.31*	3.46*	3.60*	3.53
현명성	37	2.38*	2.25*	2.31*	2.27*	2.40*	3.16*	2.31*	1.79*	2.38*	2.43*	2.21*	2.31
	38	2.50	2.52	2.54	2.55	2.45	2.50	2.47	2.15	2.78*	2.62*	2.39*	2.51
	39	2.26*	2.14*	2.16*	2.18*	2.28*	3.33*	2.17*	2.15*	2.52*	2.33*	2.05*	2.19
	40	3.73	3.81	3.76*	3.86*	3.63*	2.66*	4.03*	3.61*	3.28*	3.62*	3.95*	3.77
	41	3.93*	4.08*	3.97*	4.09*	3.90*	3.33*	4.28*	4.26*	3.45*	3.87*	4.12*	4.01

위의 표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성별, 학교, 진로목표유무를



주요변인으로 설정, T검정과 ANOVA를 사용하여 평균분석한 것으로 *표시된 것은 $p < 0.05$ 의 확률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성별, 학교, 진로목표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문항별로 주요변인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진로목표가 없는 학생보다는 목표가 있는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로선택에 대한 자원활용정도, 선호하는 진호에 대한 정보와 계획, 진로 선호의 일관성, 개인 특성 체계의 구체화, 진로 선호의 현명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32(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읽는다)의 경우, 성별에 따라 여학생 평균(3.27)이 남학생(3.16)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25(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의 경우, 진로목표가 없는 학생(3.69), 생각중이다(3.25), 진로목표가 있다(2.19)로 목표유무에 따라 정보와 계획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평균은 각각 2.76, 2.69로 성별을 변인으로 할 때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20(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 선택을 하는 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진로목표유무에 따라 없다(1.58), 생각중이다(2.12), 있다(3.33)로 진로목표가 명확할수록 진로에 대한 일관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문36(나는 나의 흥미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받기를 원한다)의 경우 성별, 학교, 목표유무 모두 유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목표가 없는 학생보다는 있는 학생이 진로성숙도가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문41(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한다)로 보아 남학생(3.93)보다는 여학생(4.08)이, 목표가 없는 학생(3.45)보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학생(4.12)이 보다 현명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9]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30	1.04	-2.826 (0.005)
	여자	3.43	1.04	
학교	중학교	3.36	1.05	6.865 (0.000)
	일반계고등학교	3.47	1.06	
	특성화고등학교	3.20	1.03	
	자율형고등학교	3.66	0.51	
	특수목적고등학교	3.67	0.91	
	기타	3.02	0.93	
목표 유무	없다	2.02	0.85	535.621 (0.000)
	생각중이다	2.84	0.85	
	있다	3.94	0.83	
전 체		3.37	1.04	

자신이 장래에 무슨 일을 할지 정해져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37(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3.43이 남자 3.30보다 높았으며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67이 가장 높게 기타 3.0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94가 가장 높았으며 생각중이다 2.84와 없다 2.02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고민의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12	1.05	-2.475 (0.013)
	여자	3.24	1.13	
학교	중학교	3.19	1.12	0.278 (0.925)
	일반계고등학교	3.14	1.09	
	특성화고등학교	3.22	1.02	
	자율형고등학교	3.33	1.03	
	특수목적고등학교	3.22	1.19	
	기타	3.13	1.11	
목표 유무	없다	2.81	1.07	112.151 (0.000)
	생각중이다	3.58	0.92	
	있다	2.89	1.13	
전 체		3.19	1.10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 3.19(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24가 남자 3.12보다 높았으며 학교별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3.33이 가장 높게 기타 3.1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생각중이다 3.58이 가장 높았으며 있다 2.89, 없다 2.81이 뒤를 이었다.



[표 21] 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고민의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76	1,14	1.674 (0.094)
	여자	2,68	1,22	
학교	중학교	2,71	1,18	5.071 (0.000)
	일반계고등학교	2,79	1,25	
	특성화고등학교	2,55	1,07	
	자율형고등학교	3,00	1,26	
	특수목적고등학교	3,05	1,22	
	기타	2,51	1,14	
목표 유무	없다	1,85	0,93	383.073 (0.000)
	생각중이다	2,12	0,84	
	있다	3,33	1,14	
전 체		2,72	1,18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 선택에 고민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2.72(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2.76이 여자 2.6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05가 가장 높게 기타 2.5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33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생각중이다 2.12, 없다 1.85가 이었다.

[표 22] 진로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의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83	1,07	2.101 (0.036)
	여자	2,72	1,12	
학교	중학교	2,79	1,10	2.373 (0.037)
	일반계고등학교	2,69	1,13	
	특성화고등학교	2,82	1,03	
	자율형고등학교	3,00	0,89	
	특수목적고등학교	2,61	1,10	
	기타	3,15	1,08	
목표 유무	없다	3,25	1,12	188.113 (0.000)
	생각중이다	3,21	0,96	
	있다	2,35	1,03	
전 체		2,77	1,09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은 자주 생각해보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2.77(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2.83가 여자 2.72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기타 3.15가 가장 높게 특수목적고등학교 2.6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없다 3.2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각중이다 3.21, 있다 2.35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62	1.08	1.301 (0.193)
	여자	2.56	1.20	
학교	중학교	2.64	1.14	4.651 (0.000)
	일반계고등학교	2.48	1.19	
	특성화고등학교	2.70	1.12	
	자율형고등학교	3.16	0.40	
	특수목적고등학교	2.30	1.09	
	기타	2.38	0.96	
목표 유무	없다	3.48	1.17	239.375 (0.000)
	생각중이다	3.05	1.00	
	있다	2.11	1.03	
전 체		2.59	1.14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모르겠는지에 대해 전체 평균 2.59(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2.62가 여자 2.5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자율형고등학교 3.16이 가장 높게 특수목적고등학교 2.3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없다 3.48이 가장 높았으며 생각중이다 3.05와 있다 2.11가 뒤를 이었다.

[표 24]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실한 결정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00	1.13	1.679 (0.093)
	여자	2.91	1.25	
학교	중학교	2.91	1.21	4.470 (0.000)
	일반계고등학교	3.04	1.23	
	특성화고등학교	2.86	1.13	
	자율형고등학교	3.33	1.36	
	특수목적고등학교	3.29	1.13	
	기타	2.69	1.12	
목표 유무	없다	1.80	0.91	619.754 (0.000)
	생각중이다	2.25	0.89	
	있다	3.67	0.98	
전 체		2.96	1.19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2.96(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3.00이 여자 2.91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자율형고등학교 3.33이 가장 높게 기타 2.69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를 살펴보면 있다 3.67이 가장 높았고 생각중이다 2.25, 없다 1.80이 뒤를 이었다.



[표 25] 나중에 바뀔지 모르나 하고 싶은 직업의 결정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63	1.04	-2.926 (0.003)
	여자	3.76	1.06	
학교	중학교	3.70	1.04	9.055 (0.000)
	일반계고등학교	3.79	1.02	
	특성화고등학교	3.53	1.08	
	자율형고등학교	2.83	1.32	
	특수목적고등학교	4.07	0.88	
	기타	3.33	1.19	
목표유무	없다	2.26	0.97	427.060 (0.000)
	생각중이다	3.25	0.95	
	있다	4.22	0.81	
전 체		3.70	1.05	

나중에 변할지 모르지만 일단 하고 싶은 직업을 결정해 놓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70(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3.76이 남자 3.63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4.07이 가장 높게, 자율형고등학교 2.8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 유무로는 있다 4.22가 가장 높았으며 생각중이다 3.25, 없다 2.26이 뒤를 이었다.

[표 26] 무엇을 해야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76	1.06	1.301 (0.193)
	여자	2.69	1.17	
학교	중학교	2.78	1.11	3.460 (0.004)
	일반계고등학교	2.64	1.17	
	특성화고등학교	2.79	1.05	
	자율형고등학교	2.83	0.75	
	특수목적고등학교	2.50	1.22	
	기타	2.35	0.95	
목표 유무	없다	3.69	0.95	341.237 (0.000)
	생각중이다	3.25	0.91	
	있다	2.19	1.02	
전 체		2.73	1.12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전체 평균 2.73(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2.76이 여자 2.6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자율형고등학교 2.83이 가장 높게 기타 2.3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없다 3.69가 가장 높았으며 생각중이다 3.25, 있다 2.19가 뒤를 이었다.



[표 27] 진로를 선택해야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90	1.07	-0.620 (0.535)
	여자	2.93	1.22	
학교	중학교	2.95	1.16	2.167 (0.055)
	일반계고등학교	2.84	1.21	
	특성화고등학교	2.99	1.07	
	자율형고등학교	2.83	0.98	
	특수목적고등학교	2.76	1.22	
	기타	2.58	0.90	
목표유무	없다	3.75	1.05	340.852 (0.000)
	생각중이다	3.48	0.90	
	있다	2.35	1.07	
전 체		2.92	1.15	

자신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할지 결정하기 힘든지에 대한 물음에 전체 평균 2.92(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2.93이 남자 2.9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특성화고등학교 2.99가 가장 높게 기타 2.58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없다 3.7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각중이다 3.48, 있다 2.35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적성하고 맞진 않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길 원하는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45	1.12	6.603 (0.000)
	여자	2.13	1.04	
학교	중학교	2.24	1.06	8.230 (0.000)
	일반계고등학교	2.25	1.11	
	특성화고등학교	2.51	1.13	
	자율형고등학교	3.00	0.89	
	특수목적고등학교	2.07	1.07	
	기타	1.71	0.82	
목표유무	없다	2.68	1.08	29.218 (0.000)
	생각중이다	2.44	1.05	
	있다	2.11	1.09	
전 체		2.28	1.09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전체 평균 2.28(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2.45가 여자 2.13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3.00이 가장 높게 기타 1.7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없다 2.6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각중이다 2.44, 있다 2.11이 뒤를 이었다.



[표 29] 내가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할까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96	1.14	-0.684 (0.494)
	여자	2.99	1.22	
학교	중학교	2.95	1.18	4.573 (0.000)
	일반계고등학교	2.97	1.25	
	특성화고등학교	3.16	1.12	
	자율형고등학교	3.16	0.98	
	특수목적고등학교	2.76	1.18	
	기타	2.53	1.09	
목표유무	없다	3.68	1.13	167.979 (0.000)
	생각중이다	3.40	0.97	
	있다	2.54	1.19	
전 체		2.97	1.18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할까봐 불안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2.97(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2.99가 남자 2.96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3.16이 공동으로 가장 높게 기타 2.5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없다 3.6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각중이다 3.40, 있다 2.54가 뒤를 이었다.

[표 30] 선택한 직업을 잘 해낼 자신감의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69	0.95	-2.154 (0.031)
	여자	3.78	0.96	
학교	중학교	3.65	0.97	8.178 (0.000)
	일반계고등학교	3.87	0.92	
	특성화고등학교	3.72	0.94	
	자율형고등학교	3.66	1.21	
	특수목적고등학교	4.05	0.83	
	기타	3.35	1.03	
목표유무	없다	3.14	1.02	66.152 (0.000)
	생각중이다	3.55	0.92	
	있다	3.95	0.92	
전 체		3.74	0.95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74(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78이 남자 3.6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4.05가 가장 높게 기타 3.3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9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각중이다 3.55, 없다 3.14가 뒤를 이었다.



[표 31] 노력만하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66	0.93	-0.849 (0.396)
	여자	3.70	0.94	
학교	중학교	3.66	0.94	6.248 (0.000)
	일반계고등학교	3.71	0.89	
	특성화고등학교	3.62	0.95	
	자율형고등학교	3.00	0.89	
	특수목적고등학교	4.01	0.91	
	기타	3.38	0.81	
목표유무	없다	3.21	0.97	51.530 (0.000)
	생각중이다	3.51	0.90	
	있다	3.87	0.92	
전 체		3.68	0.94	

노력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68(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70이 남자 3.66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4.01로 가장 높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3.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87이 가장 높았고 생각중이다 3.51, 없다 3.21이 뒤를 이었다.

[표 32] 미래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하는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57	0.98	-5.146 (0.000)
	여자	3.79	0.98	
학교	중학교	3.63	1.00	8.658 (0.000)
	일반계고등학교	3.79	0.93	
	특성화고등학교	3.60	1.00	
	자율형고등학교	4.00	0.89	
	특수목적고등학교	4.09	0.82	
	기타	3.51	0.91	
목표유무	없다	2.82	1.06	117.365 (0.000)
	생각중이다	3.45	0.93	
	있다	3.97	0.93	
전 체		3.68	0.98	

학교를 다니는 현재에도 미래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68(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79가 남자 3.57보다 높았으며,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4.09가 가장 높게 기타 3.5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97이 가장 높았고 생각중이다 3.45, 없다 2.82가 뒤를 이었다.



[표 33]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의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16	1.12	-2.139 (0.033)
	여자	3.27	1.16	
학교	중학교	3.10	1.14	18.802 (0.000)
	일반계고등학교	3.38	1.17	
	특성화고등학교	3.12	1.06	
	자율형고등학교	3.00	1.09	
	특수목적고등학교	3.91	0.99	
	기타	2.84	1.11	
목표유무	없다	2.43	0.94	80.813 (0.000)
	생각중이다	2.98	1.07	
	있다	3.50	1.13	
전 체		3.22	1.14	

신문을 읽을 때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22(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27이 남자 3.1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91이 가장 높게 기타 2.84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50이 가장 높았고 생각중이다 2.98, 없다 2.43이 뒤를 이었다.

[표 3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은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63	0.99	-8.349 (0.000)
	여자	4.00	1.00	
학교	중학교	3.69	1.06	16.527 (0.000)
	일반계고등학교	4.03	0.97	
	특성화고등학교	3.80	0.97	
	자율형고등학교	2.83	1.32	
	특수목적고등학교	4.29	0.73	
	기타	3.58	0.78	
목표유무	없다	3.13	1.05	67.580 (0.000)
	생각중이다	3.63	0.98	
	있다	4.05	0.97	
전 체		3.82	1.01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82(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4.00이 남자 3.6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4.29가 가장 높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2.8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목표가 있다 4.05가 가장 높았으며 생각중이다 3.63, 없다 3.13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21	1.04	-1.387 (0.165)
	여자	3.28	1.08	
학교	중학교	3.16	1.07	7.374 (0.000)
	일반계고등학교	3.34	1.04	
	특성화고등학교	3.26	1.05	
	자율형고등학교	3.33	1.03	
	특수목적고등학교	3.62	0.97	
	기타	2.89	0.99	
목표유무	없다	2.80	1.01	39.641 (0.000)
	생각중이다	3.07	0.97	
	있다	3.44	1.10	
전 체		3.25	1.06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처럼 되고 싶어 자신도 그 사람처럼 행동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25(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3.28로 남자 3.2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62가 가장 높게, 기타 2.89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목표유무로는 목표가 있다 3.44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생각중이다 3.07, 없다 2.80이었다.

[표 36] 미래에 대해 꿈꾸며 희망하는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56	0.95	-5.735 (0.000)
	여자	3.80	0.93	
학교	중학교	3.59	0.97	11.235 (0.000)
	일반계고등학교	3.82	0.90	
	특성화고등학교	3.70	0.96	
	자율형고등학교	3.50	0.83	
	특수목적고등학교	4.07	0.76	
	기타	3.25	0.81	
목표유무	없다	2.96	1.05	80.603 (0.000)
	생각중이다	3.50	0.91	
	있다	3.92	0.91	
전 체		3.69	0.95	

자신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69(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80이 남자 3.56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4.07이 가장 높게, 기타 3.2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 살펴보면 있다 3.92가 가장 높게 생각중이다 3.50, 없다 2.96이 뒤를 이었다.



[표 37] 나의 흥미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은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28	1.04	-9.853 (0.000)
	여자	3.75	1.09	
학교	중학교	3.44	1.13	10.294 (0.000)
	일반계고등학교	3.82	1.01	
	특성화고등학교	3.46	1.02	
	자율형고등학교	4.00	0.89	
	특수목적고등학교	3.75	1.11	
	기타	3.05	0.68	
목표유무	없다	3.31	1.12	5.861 (0.003)
	생각중이다	3.46	1.06	
	있다	3.60	1.12	
전 체		3.53	1.09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받기를 원하는 지에 대해 물음에 전체 평균 3.53(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3.75로 남자 3.28보다 높았고 학교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4.00이 가장 높게, 기타 3.0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유무로는 있다 3.60이 가장 높았고 생각중이다 3.46, 없다 3.31이 뒤를 이었다.

[표 38]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38	1.02	3.082 (0.002)
	여자	2.25	0.99	
학교	중학교	2.31	1.00	3.866 (0.002)
	일반계고등학교	2.27	1.02	
	특성화고등학교	2.40	1.00	
	자율형고등학교	3.16	0.98	
	특수목적고등학교	2.31	0.97	
	기타	1.79	0.89	
목표유무	없다	2.38	0.95	11.546 (0.000)
	생각중이다	2.43	0.91	
	있다	2.21	1.07	
전 체		2.31	1.01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평균 2.31(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2.38로 여자 2.2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3.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1.79가 가장 낮았다. 목표유무로는 생각중이다 2.43이 가장 높았고, 없다 2.38, 있다 2.21이 뒤를 이었다.



[표 39]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칠 때 결정의 어려움의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50	1.08	-.321 (0.748)
	여자	2.52	1.07	
학교	중학교	2.54	1.09	1.513 (0.182)
	일반계고등학교	2.55	1.13	
	특성화고등학교	2.45	1.03	
	자율형고등학교	2.50	0.54	
	특수목적고등학교	2.47	1.02	
	기타	2.15	0.98	
목표유무	없다	2.78	1.05	15.026 (0.000)
	생각중이다	2.62	1.00	
	있다	2.39	1.12	
전 체		2.51	1.07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 어려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2.51(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2.52)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자(2.50)는 전체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일반계고등학교 2.55가 가장 높았고 기타 2.15가 가장 낮았다. 목표유무로는 목표가 있을수록 부모님이 반대하는 직업결정에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26	1.00	2.702 (0.007)
	여자	2.14	0.97	
학교	중학교	2.16	0.96	2.484 (0.030)
	일반계고등학교	2.18	1.00	
	특성화고등학교	2.28	1.04	
	자율형고등학교	3.33	0.81	
	특수목적고등학교	2.17	0.91	
	기타	2.15	0.90	
목표유무	없다	2.52	0.97	25.533 (0.000)
	생각중이다	2.33	0.90	
	있다	2.05	1.03	
전 체		2.19	0.98	

타인의 지지가 있어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전체 평균 2.19(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2.26)가 여자(2.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3.33이 가장 높았고 기타 2.15가 가장 낮았다. 목표유무로는 목표가 없는 학생이 2.52로 가장 높았고 생각중이다 2.33, 있다 2.05가 뒤를 이었다.



[표 41]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하는 확신의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73	0.97	-1.847 (0.065)
	여자	3.81	0.96	
학교	중학교	3.76	1.00	6.887 (0.000)
	일반계고등학교	3.86	0.92	
	특성화고등학교	3.63	0.93	
	자율형고등학교	2.66	1.03	
	특수목적고등학교	4.03	0.87	
	기타	3.61	1.16	
목표유무	없다	3.28	1.07	42.313 (0.000)
	생각중이다	3.62	0.91	
	있다	3.95	0.97	
전 체		3.77	0.97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평균 3.77(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으며 여자(3.81)가 남자(3.73)보다 높게 나왔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4.03으로 가장 높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2.66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목표유무로 살펴보면 목표가 있는 학생이 3.95로 가장 높았고, 생각중이다 3.62, 없다 3.28이 뒤를 이었다.

[표 42]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의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93	0.94	-3.515 (0.000)
	여자	4.08	0.90	
학교	중학교	3.97	0.96	6.305 (0.000)
	일반계고등학교	4.09	0.88	
	특성화고등학교	3.90	0.92	
	자율형고등학교	3.33	0.82	
	특수목적고등학교	4.28	0.75	
	기타	4.26	0.97	
목표유무	없다	3.45	1.06	47.202 (0.000)
	생각중이다	3.87	0.91	
	있다	4.12	0.88	
전 체		4.01	0.92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평균 4.01(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4.08)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4.28로 가장 높았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3.33으로 가장 낮았다. 목표유무로는 목표가 없다(3.45), 생각중이다(3.87), 있다(4.12)로 나타났다.



[표 43] 희망하는 직업군과 직업

구분		성별		학교					
		남자	여자	중학교	일반계 고	특성화 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기타
희망 직업	경영컨설턴트	53 6.3%	41 4.1%	30 3.3%	24 6.6%	13 3.6%	0 0.0%	26 15.7%	0 0.0%
	자산관리사	17 2.0%	7 0.7%	9 1.0%	7 1.9%	2 0.5%	0 0.0%	6 3.6%	0 0.0%
	세무사	24 2.9%	16 1.6%	12 1.3%	18 4.9%	7 1.9%	0 0.0%	3 1.8%	0 0.0%
	회계사	59 7.0%	41 4.1%	29 3.2%	32 8.7%	20 5.5%	0 0.0%	17 10.2%	0 0.0%
	보험관리사	9 1.1%	2 0.2%	6 0.7%	2 0.5%	2 0.5%	0 0.0%	1 0.6%	0 0.0%
	외환딜러	15 1.8%	7 0.7%	9 1.0%	4 1.1%	3 0.8%	0 0.0%	7 4.2%	0 0.0%
	사업가	90 10.7%	61 6.1%	55 6.1%	31 8.5%	45 12.3%	0 0.0%	18 10.8%	1 2.8%
	곤충학자	14 1.7%	1 0.1%	10 1.1%	2 0.5%	2 0.5%	0 0.0%	0 0.0%	1 2.8%
	생명공학자	66 7.9%	30 3.0%	44 4.9%	22 6.0%	7 1.9%	0 0.0%	22 13.3%	1 2.8%
	천체물리학자	27 3.2%	11 1.1%	22 2.5%	5 1.4%	3 0.8%	0 0.0%	7 4.2%	0 0.0%
	기상연구원	7 0.8%	5 0.5%	6 0.7%	3 0.8%	1 0.3%	0 0.0%	2 1.2%	0 0.0%
	지질학자	5 0.6%	0 0.0%	3 0.3%	1 0.3%	0 0.0%	0 0.0%	0 0.0%	0 0.0%
	역사학자	24 2.9%	19 1.9%	22 2.5%	11 3.0%	6 1.6%	0 0.0%	4 2.4%	0 0.0%
	농부	17 2.0%	5 0.5%	6 0.7%	3 0.8%	5 1.4%	0 0.0%	2 1.2%	6 16.7%
	의사	81 9.7%	71 7.1%	100 11.1%	21 5.7%	13 3.6%	0 0.0%	16 9.6%	3 8.3%
	한 의사	20 2.4%	10 1.0%	14 1.6%	6 1.6%	3 0.8%	0 0.0%	5 3.0%	1 2.8%
	간호사	7 0.8%	82 8.2%	50 5.6%	28 7.7%	10 2.7%	1 16.7%	1 0.6%	0 0.0%
	약사	15 1.8%	44 4.4%	24 2.7%	23 6.3%	2 0.5%	0 0.0%	9 5.4%	0 0.0%
	수 의사	20 2.4%	35 3.5%	30 3.3%	10 2.7%	9 2.5%	0 0.0%	4 2.4%	1 2.8%
	임상병리사	2 0.2%	11 1.1%	6 0.7%	6 1.6%	0 0.0%	0 0.0%	1 0.6%	1 2.8%
	치과기공사	10 1.2%	8 0.8%	9 1.0%	6 1.6%	2 0.5%	0 0.0%	1 0.6%	0 0.0%
	건축사	77 9.2%	26 2.6%	44 4.9%	24 6.6%	27 7.4%	1 16.7%	6 3.6%	1 2.8%



구분		성별		학교					
		남자	여자	중학교	일반계 고	특성화 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기타
	인테리어 디자이너	16 1.9%	48 4.8%	36 4.0%	15 4.1%	10 2.7%	0 0.0%	2 1.2%	1 2.8%
	토목공학 기술자	17 2.0%	0 0.0%	4 0.4%	8 2.2%	5 1.4%	0 0.0%	0 0.0%	0 0.0%
	조경기술자	7 0.8%	2 0.2%	3 0.3%	3 0.8%	1 0.3%	0 0.0%	1 0.6%	0 0.0%
	항해사	25 3.0%	1 0.1%	8 0.9%	13 3.6%	4 1.1%	0 0.0%	1 0.6%	0 0.0%
	우주 비행사	11 1.3%	2 0.2%	8 0.9%	0 0.0%	2 0.5%	0 0.0%	2 1.2%	0 0.0%
	항공기조종사	38 4.5%	10 1.0%	26 2.9%	10 2.7%	7 1.9%	0 0.0%	3 1.8%	1 2.8%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14 1.7%	0 0.0%	7 0.8%	3 0.8%	4 1.1%	0 0.0%	0 0.0%	0 0.0%
	공무원	122 14.5%	130 13.0%	111 12.4%	72 19.7%	49 13.4%	2 33.3%	15 9.0%	2 5.6%
	변리사	11 1.3%	12 1.2%	9 1.0%	5 1.4%	1 0.3%	0 0.0%	9 5.4%	0 0.0%
	판사 및 검사	55 6.6%	52 5.2%	67 7.5%	21 5.7%	7 1.9%	0 0.0%	13 7.8%	0 0.0%
	변호사	56 6.7%	48 4.8%	72 8.0%	20 5.5%	6 1.6%	0 0.0%	6 3.6%	0 0.0%
	경찰관	80 9.5%	53 5.3%	63 7.0%	25 6.8%	33 9.0%	0 0.0%	11 6.6%	1 2.8%
	소방관	25 3.0%	4 0.4%	5 0.6%	11 3.0%	10 2.7%	0 0.0%	1 0.6%	1 2.8%
	군인	63 7.5%	31 3.1%	36 4.0%	22 6.0%	28 7.7%	1 16.7%	3 1.8%	4 11.1%
	외교관	24 2.9%	51 5.1%	28 3.1%	21 5.7%	4 1.1%	0 0.0%	22 13.3%	0 0.0%
	국회의원	15 1.8%	10 1.0%	8 0.9%	3 0.8%	7 1.9%	0 0.0%	7 4.2%	0 0.0%
	사회복지사	25 3.0%	69 6.9%	28 3.1%	28 7.7%	27 7.4%	0 0.0%	4 2.4%	7 19.4%
	상담전문가	21 2.5%	91 9.1%	51 5.7%	26 7.1%	26 7.1%	0 0.0%	5 3.0%	5 13.9%
	생활체육 지도사	44 5.2%	12 1.2%	20 2.2%	17 4.6%	18 4.9%	1 16.7%	0 0.0%	1 2.8%
	교사	93 11.1%	243 24.2%	189 21.1%	53 14.5%	60 16.4%	2 33.3%	28 16.9%	4 11.1%
대학교수	42 5.0%	36 3.6%	26 2.9%	11 3.0%	2 0.5%	0 0.0%	41 24.7%	0 0.0%	
성직자	5 0.6%	2 0.2%	4 0.4%	1 0.3%	2 0.5%	0 0.0%	0 0.0%	0 0.0%	
애니메이터	16 1.9%	18 1.8%	18 2.0%	9 2.5%	7 1.9%	0 0.0%	0 0.0%	0 0.0%	

구분		성별		학교					
		남자	여자	중학교	일반계 고	특성화 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기타
	웹마스터	7 0.8%	1 0.1%	2 0.2%	2 0.5%	3 0.8%	0 0.0%	1 0.6%	0 0.0%
	웹디자이너	8 1.0%	18 1.8%	14 1.6%	5 1.4%	6 1.6%	0 0.0%	1 0.6%	0 0.0%
	컴퓨터 프로그래머	76 9.1%	8 0.8%	30 3.3%	13 3.6%	27 7.4%	0 0.0%	11 6.6%	2 5.6%
	게임 개발자	74 8.8%	9 0.9%	38 4.2%	13 3.6%	28 7.7%	0 0.0%	3 1.8%	0 0.0%
	프로그래머	46 5.5%	0 0.0%	34 3.8%	2 0.5%	8 2.2%	0 0.0%	0 0.0%	0 0.0%
	컴퓨터보안 전문가	44 5.2%	7 0.7%	8 0.9%	6 1.6%	26 7.1%	1 16.7%	9 5.4%	1 2.8%
	전자상거래 전문가	7 0.8%	0 0.0%	3 0.3%	1 0.3%	3 0.8%	0 0.0%	0 0.0%	0 0.0%
	기자	15 1.8%	10 1.0%	9 1.0%	5 1.4%	1 0.3%	0 0.0%	9 5.4%	1 2.8%
	아나운서	5 0.6%	28 2.8%	18 2.0%	4 1.1%	5 1.4%	0 0.0%	6 3.6%	0 0.0%
	리포터	2 0.2%	2 0.2%	3 0.3%	0 0.0%	0 0.0%	0 0.0%	1 0.6%	0 0.0%
	카피라이터	3 0.4%	18 1.8%	4 0.4%	7 1.9%	2 0.5%	0 0.0%	7 4.2%	1 2.8%
	방송연출가	9 1.1%	30 3.0%	19 2.1%	4 1.1%	4 1.1%	0 0.0%	11 6.6%	0 0.0%
	방송작가	8 1.0%	38 3.8%	17 1.9%	16 4.4%	8 2.2%	0 0.0%	5 3.0%	0 0.0%
	통역사	9 1.1%	23 2.3%	12 1.3%	5 1.4%	9 2.5%	0 0.0%	6 3.6%	0 0.0%
	번역가	9 1.1%	11 1.1%	4 0.4%	4 1.1%	6 1.6%	1 16.7%	2 1.2%	3 8.3%
	사서	6 0.7%	12 1.2%	6 0.7%	8 2.2%	3 0.8%	0 0.0%	0 0.0%	1 2.8%
	작가	13 1.5%	40 4.0%	32 3.6%	9 2.5%	3 0.8%	0 0.0%	8 4.8%	1 2.8%
	출판편집자	4 0.5%	6 0.6%	4 0.4%	5 1.4%	1 0.3%	0 0.0%	0 0.0%	0 0.0%
	평론가	3 0.4%	4 0.4%	2 0.2%	1 0.3%	1 0.3%	0 0.0%	2 1.2%	1 2.8%
	공예가	1 0.1%	26 2.6%	16 1.8%	2 0.5%	5 1.4%	0 0.0%	0 0.0%	4 11.1%
	마술사	13 1.5%	2 0.2%	11 1.2%	1 0.3%	2 0.5%	0 0.0%	0 0.0%	1 2.8%
	만화가	20 2.4%	26 2.6%	23 2.6%	9 2.5%	11 3.0%	0 0.0%	2 1.2%	1 2.8%
	연예인	44 5.2%	110 11.0%	96 10.7%	15 4.1%	34 9.3%	0 0.0%	5 3.0%	2 5.6%



구분		성별		학교					
		남자	여자	중학교	일반계 고	특성화 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기타
	모델	26 3.1%	24 2.4%	28 3.1%	4 1.1%	15 4.1%	0 0.0%	2 1.2%	2 5.6%
	사진작가	8 1.0%	37 3.7%	21 2.3%	11 3.0%	8 2.2%	0 0.0%	3 1.8%	3 8.3%
	성우	7 0.8%	15 1.5%	10 1.1%	6 1.6%	6 1.6%	0 0.0%	0 0.0%	0 0.0%
	영화감독	13 1.5%	16 1.6%	11 1.2%	6 1.6%	3 0.8%	1 16.7%	6 3.6%	2 5.6%
	음반기획자	9 1.1%	15 1.5%	13 1.4%	1 0.3%	8 2.2%	0 0.0%	2 1.2%	0 0.0%
	작곡가	17 2.0%	42 4.2%	34 3.8%	10 2.7%	8 2.2%	0 0.0%	3 1.8%	2 5.6%
	큐레이터	1 0.1%	6 0.6%	3 0.3%	1 0.3%	2 0.5%	0 0.0%	1 0.6%	0 0.0%
	운동선수	83 9.9%	7 0.7%	45 5.0%	14 3.8%	25 6.8%	0 0.0%	4 2.4%	1 2.8%
	요리사	67 8.0%	86 8.6%	92 10.3%	18 4.9%	36 9.8%	2 33.3%	1 0.6%	4 11.1%
	영양사	0 0.0%	3 0.3%	3 0.3%	0 0.0%	0 0.0%	0 0.0%	0 0.0%	0 0.0%
	제과제빵사	28 3.3%	90 9.0%	69 7.7%	11 3.0%	34 9.3%	1 16.7%	2 1.2%	0 0.0%
	소믈리에	6 0.7%	9 0.9%	7 0.8%	1 0.3%	5 1.4%	0 0.0%	1 0.6%	1 2.8%
	쇼콜라띠에	4 0.5%	26 2.6%	13 1.4%	3 0.8%	11 3.0%	1 16.7%	2 1.2%	0 0.0%
	바리스타	17 2.0%	53 5.3%	34 3.8%	6 1.6%	26 7.1%	1 16.7%	0 0.0%	3 8.3%
	푸드스타일 리스트	6 0.7%	28 2.8%	23 2.6%	5 1.4%	5 1.4%	0 0.0%	0 0.0%	1 2.8%
	패션디자이너	24 2.9%	88 8.8%	74 8.2%	10 2.7%	22 6.0%	1 16.7%	4 2.4%	2 5.6%
	스타일리스트	13 1.5%	62 6.2%	43 4.8%	12 3.3%	15 4.1%	0 0.0%	1 0.6%	3 8.3%
	피부관리사	2 0.2%	21 2.1%	9 1.0%	5 1.4%	8 2.2%	0 0.0%	1 0.6%	0 0.0%
	메이크업 아티스트	1 0.1%	65 6.5%	49 5.5%	5 1.4%	11 3.0%	0 0.0%	0 0.0%	0 0.0%
	특수분장사	0 0.0%	8 0.8%	3 0.3%	1 0.3%	4 1.1%	0 0.0%	0 0.0%	0 0.0%
	미용사	6 0.7%	32 3.2%	25 2.8%	4 1.1%	7 1.9%	0 0.0%	1 0.6%	1 2.8%
	비서	9 1.1%	28 2.8%	17 1.9%	12 3.3%	7 1.9%	0 0.0%	1 0.6%	0 0.0%
	베이비시터	1 0.1%	16 1.6%	12 1.3%	1 0.3%	3 0.8%	0 0.0%	1 0.6%	0 0.0%



구분		성별		학교					
		남자	여자	중학교	일반계 고	특성화 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기타
	호텔리어	19 2.3%	61 6.1%	29 3.2%	25 6.8%	22 6.0%	0 0.0%	5 3.0%	0 0.0%
	승무원	9 1.1%	57 5.7%	33 3.7%	20 5.5%	11 3.0%	0 0.0%	2 1.2%	0 0.0%
	웨딩플래너	2 0.2%	22 2.2%	7 0.8%	6 1.6%	11 3.0%	0 0.0%	0 0.0%	0 0.0%
	경호원	26 3.1%	13 1.3%	17 1.9%	8 2.2%	11 3.0%	1 16.7%	1 0.6%	1 2.8%
	쇼핑호스트	1 0.1%	7 0.7%	7 0.8%	0 0.0%	0 0.0%	0 0.0%	1 0.6%	0 0.0%
	여행가이드	14 1.7%	24 2.4%	15 1.7%	6 1.6%	13 3.6%	0 0.0%	3 1.8%	1 2.8%
	기타	66 7.9%	65 6.5%	50 5.6%	23 6.3%	25 6.8%	0 0.0%	21 12.7%	10 27.8%
전체		839	1,003	897	366	366	6	166	36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묻는 질문에서는 교사 337명(18.2%) - 공무원 252명(13.6%) - 의사/연예인 154명(8.3%)로 1-3순위를 차지했다. 이를 성별, 학교 구분으로 나누어 다중응답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공무원 122명(14.5%) - 교사 93명(11.1%) - 사업가 90명(10.7%), 여자는 교사 243명(24.2%) - 공무원 130명(13.0%) - 연예인 110명(11.0%)순으로 희망직업이 나타났다. 학교로 구분하면 중학교는 교사 189명(21.1%) - 공무원 111명(12.4%) - 의사 100명(11.1%),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무원 72명(19.7%) - 교사 53명(14.5%) - 회계사 32명(8.7%),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60명(16.4%) - 공무원 49명(13.4%) - 사업가 45명(12.3%),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공무원-교사-요리사 각 2명(33.3%), 특수목적고등학교 대학교수 41명(24.7%) - 교사 28명(16.9%) - 경영컨설턴트 26명(15.7%), 기타는 기타 10명(27.8%) - 사회복지사 7명(19.4%) - 농부 6명(16.7%)순으로 각각 1-3위를 나타냈다.



[표 44] 선호하는 직장

구분		선호하는 직장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성별	남자	174 19.1%	72 7.9%	255 28.0%	32 3.5%	30 3.3%	141 15.5%	55 6.0%	29 3.2%	51 5.6%	73 8.0%	112.192 (0.000)
	여자	189 18.3%	45 4.4%	186 18.0%	14 1.4%	50 4.8%	335 32.4%	33 3.2%	48 4.6%	53 5.1%	81 7.8%	
학교	중학교	167 17.7%	23 2.4%	216 22.9%	11 1.2%	29 3.1%	272 28.8%	41 4.3%	34 3.6%	57 6.0%	94 10.0%	290.875 (0.000)
	일반계 고등학교	94 25.7%	28 7.7%	72 19.7%	10 2.7%	25 6.8%	80 21.9%	13 3.6%	11 3.0%	16 4.4%	17 4.6%	
	특성화 고등학교	42 10.1%	58 14.0%	113 27.2%	17 4.1%	12 2.9%	78 18.8%	32 7.7%	19 4.6%	24 5.8%	20 4.8%	
	자율형 고등학교	2 33.3%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1 16.7%	1 16.7%	1 16.7%	
	특수목적 고등학교	57 33.5%	7 4.1%	36 21.2%	7 4.1%	13 7.6%	29 17.1%	2 1.2%	9 5.3%	6 3.5%	4 2.4%	
	기타	2 5.3%	1 2.6%	3 7.9%	1 2.6%	2 5.3%	11 28.9%	0 0.0%	1 2.6%	0 0.0%	17 44.7%	
전 체		364 18.8%	117 6.0%	441 22.7%	46 2.4%	81 4.2%	470 24.2%	88 4.5%	75 3.9%	104 5.4%	153 7.9%	

① 국가기관 ② 공기업 ③ 대기업 ④ 벤처기업 ⑤ 외국계기업 ⑥ 전문직 ⑦ 중소기업
⑧ 해외취업 ⑨ 자영업 ⑩ 기타

학생들이 미래의 직장으로 선호하는 곳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직 470명(24.2%), 대기업 441명(22.7%)이 각각 1-2순위를 차지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1-2순위가 전체 순위와 동일한 것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대기업 255명(28.0%)이 1순위, 국가기관이 174(19.1%) 2순위로 여학생은 물론 전체 순위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도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호하는 직장에 대한 1-2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45-1]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

구분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성별	남자	213 29.3%	173 23.8%	90 12.4%	36 5.0%	445 61.3%	219 30.2%	185 25.5%	228 31.4%	116 16.0%	164 22.6%	65 9.0%
	여자	221 25.2%	179 20.4%	74 8.4%	49 5.6%	628 71.6%	318 36.3%	145 16.5%	268 30.6%	141 16.1%	251 28.6%	64 7.3%
학교	중학교	155 20.6%	185 24.5%	85 11.3%	45 6.0%	546 72.4%	297 39.4%	87 11.5%	138 18.3%	119 15.8%	215 28.5%	54 7.2%
	일반계 고등학교	104 32.9%	41 13.0%	19 6.0%	11 3.5%	242 76.6%	99 31.3%	63 19.9%	119 37.7%	60 19.0%	97 30.7%	15 4.7%
	특성화 고등학교	92 28.6%	94 29.2%	49 15.2%	17 5.3%	153 47.5%	88 27.3%	135 41.9%	105 32.6%	47 14.6%	62 19.3%	47 14.6%
	자율형 고등학교	3 75.0%	4 100.0%	1 25.0%	0 0.0%	0 0.0%	0 0.0%	2 50.0%	1 25.0%	0 0.0%	0 0.0%	1 25.0%
	특수목적 고등학교	69 41.1%	24 14.3%	5 3.0%	12 7.1%	112 66.7%	42 25.0%	39 23.2%	110 65.5%	27 16.1%	34 20.2%	7 4.2%
	기타	7 20.0%	3 8.6%	5 14.3%	0 0.0%	21 60.0%	13 37.1%	4 11.4%	19 54.3%	2 5.7%	6 17.1%	5 14.3%
전 체		430	351	164	85	1074	539	330	492	255	414	129

① 원하는 대학 학과(전공) 관련 탐방 ② 진로캠프 ③ 산업체 진로직업체험 ④ 한국
고용정보원 잡스쿨 ⑤ 진로관련검사(MBTI, 홀랜드 등) ⑥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
⑦ 진로 박람회 ⑧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⑨ 직업전망, 신생 및 이색직업 소개
⑩ 진로관련 읽기 자료를 통한 진로탐색 교육 ⑪ 일일 인턴체험

학생들에게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던지 질문했을 때, 1순위는 진로관련검사, 2순위는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3순위는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2순위) -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3순위)으로 응답해 여학생과 2-3순위가 반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 따른 분류에서 순위는 중학교(진로관련검사-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진로관련 읽기 자료를 통한 진로탐색 교육), 일반계고등학교(진로관련검사-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원하는 대학관련탐방), 특성화고등학교(진로관련검사-진로박람회-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 특수목적고등학교(진로관련검사-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원하는 대학관련탐방) 등 학교마다 다른 응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2]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참여 하고 싶은 활동

구분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성별	남자	419 50.8%	302 36.6%	197 23.9%	83 10.1%	122 14.8%	112 13.6%	229 27.8%	197 23.9%	157 19.0%	88 10.7%	457 55.4%
	여자	615 61.5%	386 38.6%	166 16.6%	67 6.7%	128 12.8%	66 6.6%	219 21.9%	272 27.2%	175 17.5%	70 7.0%	720 72.0%
학교	중학교	509 58.0%	342 39.0%	153 17.4%	80 9.1%	122 13.9%	95 10.8%	218 24.8%	220 25.1%	149 17.0%	76 8.7%	553 63.0%
	일반계 고등학교	210 59.7%	133 37.8%	58 16.5%	33 9.4%	50 14.2%	31 8.8%	80 22.7%	94 26.7%	63 17.9%	32 9.1%	240 68.2%
	특성화 고등학교	196 51.7%	144 38.0%	101 26.6%	22 5.8%	46 12.1%	38 10.0%	102 26.9%	84 22.2%	88 23.2%	34 9.0%	237 62.5%
	자율형 고등학교	2 40.0%	2 40.0%	1 20.0%	2 40.0%	2 40.0%	3 60.0%	1 20.0%	0 0.0%	0 0.0%	0 0.0%	2 40.0%
	특수목적 고등학교	109 63.4%	59 34.3%	44 25.6%	10 5.8%	13 7.6%	6 3.5%	41 23.8%	57 33.1%	24 14.0%	12 7.0%	124 72.1%
	기타	6 17.6%	7 20.6%	5 14.7%	1 2.9%	15 44.1%	5 14.7%	4 11.8%	13 38.2%	9 26.5%	3 8.8%	20 58.8%
전 체		1032	687	362	148	248	178	446	468	333	157	1176

① 원하는 대학 학과(전공) 관련 탐방 ② 진로캠프 ③ 산업체 진로직업체험 ④ 한국
고용정보원 잡스쿨 ⑤ 진로관련검사(MBTI, 홀랜드 등) ⑥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
⑦ 진로 박람회 ⑧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⑨ 직업전망, 신생 및 이색직업 소개
⑩ 진로관련 읽기 자료를 통한 진로탐색 교육 ⑪ 일일 인턴체험

학생들에게 향후 자신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일일인턴체험 1176명(1순위), 원하는 대학 학과(전공) 관련 탐방 1032명(2순위), 진로캠프 687명(3순위)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순위는 양성 모두 전체 1-3순위와 동일했고 학교별로는 기타(일일인턴체험-진로관련검사-진로관련읽기자료를 통한 진로탐색 교육)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또한 동일한 순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가장 하고싶은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직업체험과 대학 전공 관련 탐방, 진로캠프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청소년활동 중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사항

구분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중 가장 유익하고 필요하다 생각하는 활동				X^2 (p)
		①	②	③	④	
성별	남자	264 28,3%	192 20,6%	151 16,2%	327 35,0%	16,528 (0,001)
	여자	263 24,9%	165 15,6%	179 16,9%	451 42,6%	
학교	중학교	233 24,2%	164 17,0%	161 16,7%	405 42,1%	41,635 (0,000)
	일반계 고등학교	104 27,6%	86 22,8%	56 14,9%	131 34,7%	
	특성화 고등학교	120 28,2%	66 15,5%	80 18,8%	159 37,4%	
	자율형 고등학교	0 0,0%	1 20,0%	2 40,0%	2 40,0%	
	특수목적 고등학교	46 26,0%	32 18,1%	27 15,3%	72 40,7%	
	기타	23 59,0%	4 10,3%	1 2,6%	11 28,2%	
목표 유무	없다	27 29,0%	12 12,9%	21 22,6%	33 35,5%	8,068 (0,233)
	생각중이다	248 28,0%	161 18,2%	131 14,8%	345 39,0%	
	있다	253 24,8%	186 18,2%	178 17,4%	404 39,6%	
전 체		528 26,4%	359 18,0%	330 16,5%	782 39,1%	

① 자기이해활동(자기이해 및 심성계발, 정체성확립 등) ② 진로정보 탐색
활동(학업정색, 직업정보탐색 등) ③ 진로계획활동(취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설계, 상담활동 등)
④ 진로체험활동(학업 및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체험활동 등)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진로체험활동 782명(39,1%) - 자기이해활동 528명(26,4%) - 진로정보탐색 359명(18,0%) - 진로계획활동 330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양성 모두 전체 순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에 대해 생각중인 학생들은 진로정보탐색 161명(18,2%) - 진로계획활동 131명(14,8%)이 각각 3-4순위로 목표가 있거나 없는 학생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청소년활동 중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

구분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는 활동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240 26.1%	133 14.5%	198 21.6%	114 12.4%	233 25.4%	19.369 (0.001)
	여자	325 31.6%	126 12.2%	179 17.4%	94 9.1%	306 29.7%	
학교	중학교	281 29.9%	122 13.0%	196 20.9%	92 9.8%	249 26.5%	47.680 (0.000)
	일반계 고등학교	102 27.7%	47 12.8%	54 14.7%	42 11.4%	123 33.4%	
	특성화 고등학교	105 25.2%	74 17.7%	87 20.9%	50 12.0%	101 24.2%	
	자율형 고등학교	1 16.7%	0 0.0%	2 33.3%	2 33.3%	1 16.7%	
	특수목적 고등학교	65 36.9%	15 8.5%	24 13.6%	13 7.4%	59 33.5%	
	기타	9 27.3%	2 6.1%	10 30.3%	6 18.2%	6 18.2%	
목표 유무	없다	22 23.2%	9 9.5%	26 27.4%	6 6.3%	32 33.7%	9.554 (0.298)
	생각중이다	250 29.0%	112 13.0%	168 19.5%	92 10.7%	241 27.9%	
	있다	293 29.4%	140 14.1%	184 18.5%	110 11.1%	268 26.9%	
전 체		565 28.9%	261 13.4%	378 19.4%	208 10.7%	541 27.7%	

①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②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대한 정부의 시상 및
공모의 참여 ③ 참가비용을 국가에서 마련 ④ 참여활동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
⑤ 학교 내 과정에서 물적, 시간적 지원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학생들은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565명(28.9%), 학교 내 과정에서 물적, 시간적 지원 541명(27.7%), 참가비용을 국가에서 마련 378명(19.4%) 순으로 답변했다. 성별로 보았을 때, 양성 모두 전체 순위와 동일한 반응을 나타냈다. 목표유무에 따라서는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학교내 과정에서 물적, 시간적 지원 32명(33.7%) - 참가비용을 국가에서 마련 26명(27.4%) -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22명(23.2%) 순으로 응답하여 목표가 있거나 생각중인 학생의 응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업에 대한 열정도

구분		학업에 대한 열정도 및 학업성취도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40 4.3%	167 18.0%	419 45.1%	248 26.7%	56 6.0%	29.363 (0.000)
	여자	18 1.7%	158 15.0%	510 48.5%	334 31.7%	32 3.0%	
학교	중학교	32 3.3%	155 16.1%	453 47.0%	287 29.8%	36 3.7%	72.627 (0.000)
	일반계 고등학교	7 1.9%	74 19.8%	171 45.7%	107 28.6%	15 4.0%	
	특성화 고등학교	16 3.8%	78 18.5%	212 50.2%	99 23.5%	17 4.0%	
	자율형 고등학교	0 0.0%	1 16.7%	4 66.7%	0 0.0%	1 16.7%	
	특수목적 고등학교	0 0.0%	11 6.2%	66 37.1%	83 46.6%	18 10.1%	
	기타	1 2.9%	3 8.8%	20 58.8%	9 26.5%	1 2.9%	
목표 유무	없다	10 10.9%	17 18.5%	52 56.5%	12 13.0%	1 1.1%	78.611 (0.000)
	생각중이다	26 3.0%	179 20.3%	422 48.0%	231 26.2%	22 2.5%	
	있다	22 2.2%	129 12.7%	457 44.9%	344 33.8%	65 6.4%	
전 체		58 2.9%	325 16.3%	931 46.8%	587 29.5%	88 4.4%	

① 학업에 전혀 관심없고 공부를 아주 못한다. ② 학업에 대해 관심이 없고 공부를 못한다
 ③ 잘모르겠다 ④ 학업에 대한 관심이 있도 공부도 잘 하는 편이다. ⑤ 학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공부도 매우 잘한다.

학업에 대한 학생의 학업열정도를 물었을 때,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931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에 대한 관심도 있고 공부도 잘 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87명(29.5%)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 학교에서도 1-2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가 있는지에 따라서는 목표가 없는 학생은 “잘모르겠다”와 “학업에 대해 관심이 없고 공부를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1-2순위인 반면, 목표가 있거나 생각중인 학생은 “잘모르겠다” - “학업에 대한 관심도 있고 공부도 잘 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1-2순위로 나타났다.



교 사

설문조사에 응한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교에 종사하는 교사로 총 80명이며 남교사가 30명(37.5%), 여교사가 50명(62.5%)으로 학교소재로는 서부교육지부가 26명(32.5%), 남부교육지부가 18명(22.5%), 북부교육지부가 12명(15%), 동래교육지부가 12명(15%), 해운대교육지부가 10명(12.5%)이며 학교구분으로 중학교 33명(41.3%), 일반계고등학교가 15명(18.8%), 특성화고등학교가 17명(21.3%), 특수목적고등학교가 8명(10.0%), 대안학교가 7명(8.8%)로 구분되었다. 또한 직위로 교감 1명(1.3%), 부장교사 22명(27.5%), 교사 57명(71.3%)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직경력으로 5년미만 10명(12.5%), 5년이상 10년미만이 12명(15.0%), 10년이상 15년미만이 12명(15.0%), 15년이상인 46명(57.5%)로 구성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구분

■ 교사 성별

성별		빈도(명)	퍼센트(%)
유 호	남 자	30	37.5
	여 자	50	62.5
	합 계	80	100.0

■ 교사 근무학교 소재

지역 (학교 소재)		빈도(명)	퍼센트(%)
유 호	서 부 교 육 지 부	26	32.5
	남 부 교 육 지 부	18	22.5
	북 부 교 육 지 부	12	15.0
	동 래 교 육 지 부	12	15.0
	해 운 대 교 육 지 부	10	12.5
	합 계	78	97.5
결	측	2	2.5
합	계	80	100.0



■ 교사 학교구분

학교 구분		빈도(명)	퍼센트(%)
유	중 학 교	33	41,3
	일 반 계 고 등 학 교	15	18,8
	특 성 화 고 등 학 교	17	21,3
	특수목적고등학교	8	10,0
	대 안 학 교	7	8,8
합		80	100,0

■ 교사 직위구분

직위		빈도(명)	퍼센트(%)
유	교 감	1	1,3
	부 장 교 사	22	27,5
	교 사	57	71,3
	합	80	100,0

■ 직위구분

교직 경력		빈도(명)	퍼센트(%)
유	5 년 미 만	10	12,5
	5년이상10년미만	12	15,0
	10년이상15년미만	12	15,0
	1 5 년 이 상	46	57,5
합		80	100,0



[표 2]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

구분		진로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				X^2 (p)
		①	②	③	④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2 3.3%	5 8.3%	43 71.7%	10 16.7%	4.323 (0.229)
	없다	0 0.0%	5 25.0%	12 60.0%	3 15.0%	
지역	서부 교육지부	0 0.0%	5 19.2%	13 50.0%	8 30.8%	14.767 (0.254)
	남부 교육지부	1 5.6%	3 16.7%	13 72.2%	1 5.6%	
	북부 교육지부	1 8.3%	1 8.3%	8 66.7%	2 16.7%	
	동래 교육지부	0 0.0%	0 0.0%	10 83.3%	2 16.7%	
	해운대 교육지부	0 0.0%	1 10.0%	9 90.0%	0 0.0%	
학교	중학교	0 0.0%	1 3.0%	24 72.7%	8 24.2%	21.930 (0.038)
	일반계 고등학교	2 13.3%	3 20.0%	9 60.0%	1 6.7%	
	특성화 고등학교	0 0.0%	1 5.9%	13 76.5%	3 17.6%	
	특수목적 고등학교	0 0.0%	3 37.5%	4 50.0%	1 12.5%	
	대안학교	0 0.0%	2 28.6%	5 71.4%	0 0.0%	
전 체		2 2.5%	10 12.5%	55 68.8%	13 16.2%	

① 매우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만족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55명 (68.8%)로 1순위를 차지했으며 매우만족 13명(16.2%)이 2순위를 차지했다. 학교별로 구분했을 시에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결과값이 카이제곱검정(동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0.038로 유의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불만족인 이유

구분		진로교육 강화한 교육과정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진로교육 강화한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	매우불만족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1,714 (0.634)
	불만족	0 0.0%	1 10.0%	0 0.0%	5 50.0%	1 10.0%	3 30.0%	
전 체		0 0.0%	1 8.3%	0 0.0%	7 58.3%	1 8.3%	3 25.0%	

① 지도인력의 부족 ② 학생들의 참여 및 호응도 저조 ③ 관련된 예산의 부족
④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 ⑤ 업무의 과중으로 효율성 저조 ⑥ 진로교육의 전문성 및 정보 부족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가 7명(58.3%)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교육의 전문성 및 정보의 부족때문이라는 응답이 3명(25.0%)으로 2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진로교육 강화한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에서 불만족에 응답한 비율보다 불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표 2-2]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만족인 이유

구분		진로교육 강화한 교육과정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교육 강화한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	만족	2 3.6%	30 54.5%	0 0.0%	7 12.7%	16 29.1%	2,098 (0.552)
	매우만족	1 8.3%	7 58.3%	0 0.0%	0 0.0%	4 33.3%	
전 체		3 4.5%	37 55.2%	0 0.0%	7 10.4%	20 29.9%	

① 진로진학지도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② 학생들이 진로에 생각할 기회가 생기므로
③ 협동심, 배려심을 통해 공동체 의식함양 ④ 공부하는 목적의식 부여
⑤ 직업에 이해, 체험 가능해 진학지도에 도움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학생들이 장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37명(55.2%)로 1순위를 차지했고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 체험이 가능하여 향후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명(29.9%)로 2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진로교육이 강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응답은 매우만족보다 만족의 비율이 훨씬 컸다.



[표 3]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진로교육시간

구분		귀 학교에 가장 많이 편성되어있는 진로교육시간은?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25 43.1%	29 50.0%	4 6.9%	0 0.0%	0 0.0%	19.838 (0.001)
	없다	16 80.0%	0 0.0%	2 10.0%	1 5.0%	1 5.0%	
전 체		41 52.6%	29 37.2%	6 7.7%	1 1.3%	1 1.3%	

①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진로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 ② 선택과목 중 진로와 직업 과목
③ 진로상담시간 ④ 타교과 통합진로교육 ⑤ 기타

학교에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진로교육시간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는 응답이 41명(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택과목 중 진로와 직업 과목으로 29명(37.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진로와 직업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가를 구분했을 시 편성되어있는 비율이 편성되어있지 않은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 3개년동안 학교에서 편성된 진로와 직업과목 수업시수

구분		3개년동안 학교에서 편성된 진로과직업과목 수업시수				X^2 (p)
		①	②	③	④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13 22.4%	14 24.1%	17 29.3%	14 24.1%	15.324 (0.002)
	없다	12 70.6%	2 11.8%	0 0.0%	3 17.6%	
전 체		25 33.3%	16 21.3%	17 22.7%	17 22.7%	

① 17시간미만 ② 17시간이상34시간미만 ③ 34시간이상51시간미만 ④ 51시간이상

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시수는 3개년동안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문한 결과 17시간 미만 25명(33.3%)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34시간 이상~51시간 미만 17명(22.7%)과 51시간 이상 17명(22.7%)의 뒤 이어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진로와 직업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가를 구분했을 시 편성되어있는 비율이 편성되어있지 않은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

구분		귀 학교의 진로체험활동 중 가장 만족도 높은 활동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진로와 직업 교육 과정 편성 유무	있다	20 33.9%	15 25.4%	19 32.2%	2 3.4%	31 52.5%	7 11.9%	9 15.3%	13 22.0%	8 13.6%	5 8.5%	10 16.9%	15 25.4%	16 27.1%
	없다	7 38.9%	1 5.6%	7 38.9%	0 0.0%	7 38.9%	1 5.6%	2 11.1%	9 50.0%	1 5.6%	0 0.0%	4 22.2%	7 38.9%	7 38.9%
지역	서부	10 38.5%	5 19.2%	8 30.8%	0 0.0%	9 34.6%	4 15.4%	4 15.4%	12 46.2%	4 15.4%	0 0.0%	5 19.2%	9 34.6%	3 11.5%
	남부	6 33.3%	4 22.2%	7 38.9%	1 5.6%	10 55.6%	0 0.0%	2 11.1%	5 27.8%	3 16.7%	1 5.6%	5 27.8%	3 16.7%	7 38.9%
	북부	4 33.3%	3 25.0%	3 25.0%	1 8.3%	7 58.3%	0 0.0%	1 8.3%	4 33.3%	1 8.3%	2 16.7%	3 25.0%	3 25.0%	2 16.7%
	동래	5 45.5%	1 9.1%	3 27.3%	0 0.0%	6 54.5%	3 27.3%	2 18.2%	0 0.0%	0 0.0%	2 18.2%	0 0.0%	5 45.5%	5 45.5%
	해운대	2 22.2%	2 22.2%	5 55.6%	0 0.0%	5 55.6%	1 11.1%	2 22.2%	1 11.1%	1 11.1%	0 0.0%	0 0.0%	2 22.2%	6 66.7%
학교	중학교	5 15.6%	7 21.9%	11 34.4%	2 6.2%	20 62.5%	5 15.6%	6 18.8%	5 15.6%	6 18.8%	2 6.2%	3 9.4%	12 37.5%	10 31.2%
	일반계 고	9 60.0%	1 6.7%	3 20.0%	0 0.0%	10 66.7%	1 6.7%	2 13.3%	8 53.3%	1 6.7%	0 0.0%	3 20.0%	4 26.7%	3 20.0%
	특성화 고	6 37.5%	6 37.5%	10 62.5%	0 0.0%	2 12.5%	1 6.2%	3 18.8%	4 25.0%	2 12.5%	2 12.5%	2 12.5%	3 18.8%	7 43.8%
	특수 목적고	5 62.5%	2 25.0%	1 12.5%	0 0.0%	4 50.0%	0 0.0%	0 0.0%	3 37.5%	0 0.0%	0 0.0%	3 37.5%	2 25.0%	0 0.0%
	대안 학교	2 33.3%	0 0.0%	1 16.7%	0 0.0%	2 33.3%	1 16.7%	0 0.0%	2 33.3%	0 0.0%	1 16.7%	3 50.0%	1 16.7%	3 50.0%
전 체		27	16	26	2	38	8	11	22	9	5	14	22	23

- ① 원하는 대학학과 관련 탐방 ② 진로캠프 ③ 산업체 진로직업체험 ④ 한국고용정보원 잡스쿨
 ⑤ 진로관련검사 ⑥ 인터넷 또는 동영상상 통한 진로교육 ⑦ 진로박람회
 ⑧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 ⑨ 직업전망, 신생 및 이색작업소개
 ⑩ 진로 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탐색교육 ⑪ 일일인턴체험
 ⑫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⑬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체험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을 설문한 결과 진로관련검사(MBTI, 홀랜드 등)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원하는 대학 학과(전공)관련 탐방을 2순위, 산업체 진로직업체험을 3순위로 선택했다.



[표 6] 진로활동 중 향후 계획했으면 하는 활동

구분		귀 학교의 진로체험활동 중 가장 만족도 높은 활동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진로와 직업 교육 과정 편성 유무	있다	22 37.3%	25 42.4%	29 49.2%	12 20.3%	4 6.8%	2 3.4%	18 30.5%	18 30.5%	10 16.9%	3 5.1%	22 37.3%	3 5.1%	6 10.2%
	없다	3 16.7%	12 66.7%	6 33.3%	2 11.1%	2 11.1%	0 0.0%	3 16.7%	10 55.6%	3 16.7%	1 5.6%	7 38.9%	1 5.6%	2 11.1%
지역	서부	8 32.0%	11 44.0%	8 32.0%	6 24.0%	1 4.0%	0 0.0%	6 24.0%	10 40.0%	5 20.0%	2 8.0%	10 40.0%	1 4.0%	2 8.0%
	남부	6 33.3%	8 44.4%	11 61.1%	3 16.7%	2 11.1%	1 5.6%	8 44.4%	3 16.7%	3 16.7%	0 0.0%	5 27.8%	1 5.6%	3 16.7%
	북부	3 25.0%	5 41.7%	5 41.7%	1 8.3%	1 8.3%	0 0.0%	5 41.7%	6 50.0%	0 0.0%	0 0.0%	6 50.0%	2 16.7%	2 16.7%
	동래	5 41.7%	6 50.0%	7 58.3%	1 8.3%	2 16.7%	1 8.3%	1 8.3%	3 25.0%	2 16.7%	1 8.3%	7 58.3%	0 0.0%	0 0.0%
	해운대	2 22.2%	7 77.8%	3 33.3%	3 33.3%	0 0.0%	0 0.0%	1 11.1%	6 66.7%	2 22.2%	1 11.1%	1 11.1%	0 0.0%	1 11.1%
학교	중학교	11 34.4%	16 50.0%	17 53.1%	9 28.1%	0 0.0%	2 6.2%	10 31.2%	11 34.4%	4 12.5%	1 3.1%	12 37.5%	1 3.1%	2 6.2%
	일반계 고	6 40.0%	7 46.7%	4 26.7%	1 6.7%	3 20.0%	0 0.0%	4 26.7%	7 46.7%	4 26.7%	2 13.3%	5 33.3%	1 6.7%	1 6.7%
	특성화 고	2 12.5%	10 62.5%	6 37.5%	3 18.8%	1 6.2%	0 0.0%	5 31.2%	7 43.8%	1 6.2%	1 6.2%	6 37.5%	1 6.2%	4 25.0%
	특수 목적고	4 50.0%	3 37.5%	4 50.0%	1 12.5%	0 0.0%	0 0.0%	1 12.5%	1 12.5%	3 37.5%	0 0.0%	4 50.0%	0 0.0%	0 0.0%
	대안 학교	2 33.3%	1 16.7%	4 66.7%	0 0.0%	2 33.3%	0 0.0%	1 16.7%	2 33.3%	1 16.7%	0 0.0%	2 33.3%	1 16.7%	1 16.7%
전 체		25	37	35	14	6	2	21	28	13	4	29	4	8

- ① 원하는 대학학과 관련 탐방 ② 진로캠프 ③ 산업체 진로직업체험 ④ 한국고용정보원 잡스쿨
⑤ 진로관련검사 ⑥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 ⑦ 진로박람회
⑧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 ⑨ 직업전망, 신생 및 이색작업소개
⑩ 진로 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탐색교육 ⑪ 일일인턴체험
⑫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⑬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체험활동 중 향후 계획했으면 하는 활동을 설문한 결과 진로캠프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산업체 진로직업체험을 2순위,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를 3순위로 선택하고 뒤이어 일일인턴체험을 원한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진로활동의 필요성

구분		1-전혀 필요치 않다, 5-매우 필요하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52	0.60	0.784 (0.436)
	여자	4.40	0.50	
지역	서부교육지부	4.80	0.41	3.891 (0.006)
	남부교육지부	4.33	0.49	
	북부교육지부	4.17	0.83	
	동래교육지부	4.55	0.52	
	해운대교육지부	4.30	0.48	
학교	중학교	4.58	0.50	1.784 (0.141)
	일반계고등학교	4.27	0.80	
	특성화고등학교	4.56	0.51	
	특수목적고등학교	4.71	0.49	
	대안학교	4.14	0.38	
전 체		4.49	0.58	

진로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평균 4.49(5에 가까울수록 필요하다)로 진로활동은 매우 필요하다고 드러났으며 성별로 구분시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역별로 구분시 그 결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동래교육지부가 상대적으로 진로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학교별로 구분시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진로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8] 진로활동이 필요한 이유

구분		진로교육 필요한 이유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1 1.7%	4 6.8%	12 20.3%	38 64.4%	4 6.8%	3.580 (0.466)
	없다	0 0.0%	0 0.0%	2 10.0%	17 85.0%	1 5.0%	
지역	서부교육지부	1 3.8%	1 3.8%	3 11.5%	20 76.9%	1 3.8%	8.637 (0.928)
	남부교육지부	0 0.0%	1 5.6%	2 11.1%	13 72.2%	2 11.1%	
	북부교육지부	0 0.0%	1 9.1%	2 18.2%	8 72.7%	0 0.0%	
	동래교육지부	0 0.0%	1 8.3%	4 33.3%	6 50.0%	1 8.3%	
	해운대교육지부	0 0.0%	0 0.0%	2 20.0%	7 70.0%	1 10.0%	
학교	중학교	1 3.0%	3 9.1%	2 6.1%	26 78.8%	1 3.0%	24.161 (0.086)
	일반계고등학교	0 0.0%	0 0.0%	5 35.7%	9 64.3%	0 0.0%	
	특성화고등학교	0 0.0%	1 5.9%	3 17.6%	11 64.7%	2 11.8%	
	특수목적고등학교	0 0.0%	0 0.0%	4 50.0%	4 50.0%	0 0.0%	
	대안학교	0 0.0%	0 0.0%	0 0.0%	5 71.4%	2 28.6%	
전 체		1 1.3%	4 5.1%	14 17.7%	55 69.6%	5 6.3%	

① 실업문제 예방 ② 직업 다양화 및 유망직종 변화 ③ 창의적인 진로 요구 증가
④ 주도적으로 계획 ⑤ 학업의 궁극적 이유

진로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미래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진로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5명(6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 분류 중 서부교육지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교별 구분에서는 중학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직업세계의 트렌드와 변화로 창의적인 진로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14명(17.7%)로 뒤를 이었다.

[표 9-1]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에 관한 사항

구분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48 82.8%	53 91.4%	43 74.1%	49 84.5%	46 79.3%	49 84.5%
	없다	1 5.6%	18 100.0%	14 77.8%	14 77.8%	14 77.8%	10 55.6%
전 체		49	71	57	63	60	59

- ① 한학년 또는 한학기의 집중이수를 통해 진로와 직업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②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를 토대로 지도하고 있다
 ③ 체험학습과 산업체와 연계하여 진로탐색범위를 폭넓게 구체화하고 있다
 ④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⑤ 지역사회의 성공한 직업인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신문스크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한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에 관한 사항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를 토대로 지도하고 있다는 응답이 71명으로 전체응답 중 가장 많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응답이 2순위, 지역사회의 성공한 직업인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신문 스크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3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진로와 직업교육과정이 편성되어있다는 응답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비율보다 현저히 많았다.



[표 9-2]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 지역별 구분

구분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지역	서부교육지부	12 46.2%	21 80.8%	21 80.8%	19 73.1%	21 80.8%	20 76.9%
	남부교육지부	15 83.3%	18 100.0%	11 61.1%	15 83.3%	10 55.6%	13 72.2%
	북부교육지부	10 83.3%	12 100.0%	8 66.7%	11 91.7%	12 100.0%	8 66.7%
	동래교육지부	9 81.8%	11 100.0%	9 81.8%	10 90.9%	9 81.8%	10 90.9%
	해운대교육지부	2 25.0%	8 100.0%	7 87.5%	7 87.5%	7 87.5%	7 87.5%
전 체		49	71	57	63	60	59

- ① 한학년 또는 한학기의 집중이수를 통해 진로와 직업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②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를 토대로 지도하고 있다
 ③ 체험학습과 산업체와 연계하여 진로탐색범위를 폭넓게 구체화하고 있다
 ④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⑤ 지역사회의 성공한 직업인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신문스크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한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에 관한 사항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를 토대로 지도하고 있다는 응답이 71명으로 전체응답 중 가장 많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응답이 2순위, 지역사회의 성공한 직업인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신문 스크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3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역별로 구분시 서부교육지부를 제외한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교육지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 9-3]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 학교별 구분

구분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학교	중학교	26 86.7%	28 93.3%	21 70.0%	24 80.0%	23 76.7%	26 86.7%
	일반계고등학교	9 60.0%	15 100.0%	10 66.7%	13 86.7%	14 93.3%	12 80.0%
	특성화고등학교	10 58.8%	16 94.1%	16 94.1%	14 82.4%	14 82.4%	14 82.4%
	특수목적고등학교	3 37.5%	6 75.0%	5 62.5%	8 100.0%	7 87.5%	7 87.5%
	대안학교	1 16.7%	6 100.0%	5 83.3%	4 66.7%	2 33.3%	0 0.0%
전 체		49	71	57	63	60	59

- ① 한학년 또는 한학기의 집중이수를 통해 진로와 직업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②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를 토대로 지도하고 있다
 ③ 체험학습과 산업체와 연계하여 진로탐색범위를 폭넓게 구체화하고 있다
 ④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⑤ 지역사회의 성공한 직업인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신문스크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한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지도내용에 관한 사항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를 토대로 지도하고 있다는 응답이 71명으로 전체응답 중 가장 많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응답이 2순위, 지역사회의 성공한 직업인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신문 스크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3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학교별로 구분시 일반계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 10] 진로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 있는 활동

구분		청소년진로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 있는 활동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15 25.0%	0 0.0%	3 5.0%	40 66.7%	2 3.3%	4.031 (0.402)
	없다	5 25.0%	1 5.0%	2 10.0%	11 55.0%	1 5.0%	
지역	서부 교육지부	9 34.6%	0 0.0%	2 7.7%	13 50.0%	2 7.7%	16.445 (0.422)
	남부 교육지부	3 16.7%	0 0.0%	2 11.1%	13 72.2%	0 0.0%	
	북부 교육지부	1 8.3%	1 8.3%	0 0.0%	9 75.0%	1 8.3%	
	동래 교육지부	3 25.0%	0 0.0%	0 0.0%	9 75.0%	0 0.0%	
	해운대 교육지부	4 40.0%	0 0.0%	1 10.0%	5 50.0%	0 0.0%	
학교	중학교	9 27.3%	0 0.0%	3 9.1%	20 60.6%	1 3.0%	11.833 (0.755)
	일반계 고등학교	2 13.3%	1 6.7%	1 6.7%	10 66.7%	1 6.7%	
	특성화 고등학교	3 17.6%	0 0.0%	0 0.0%	13 76.5%	1 5.9%	
	특수목적 고등학교	3 37.5%	0 0.0%	0 0.0%	5 62.5%	0 0.0%	
	대안학교	3 42.9%	0 0.0%	1 14.3%	3 42.9%	0 0.0%	
전 체		20 25.0%	1 1.2%	5 6.2%	51 63.8%	3 3.8%	

① 자기이해 ② 진로정보검색 ③ 진로계획 ④ 진로체험 ⑤ 진로포트폴리오

청소년 진로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있는 활동 영역을 알아보는 질문에 전체 51명(63.8%)으로 진로체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어 20명(25.0%)으로 자기이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가장 의미 있는 진로관련 심리검사

구분		진로 관련 심리검사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41 68.3%	8 13.3%	0 0.0%	5 8.3%	6 10.0%	11.722 (0.020)
	없다	8 42.1%	4 21.1%	3 15.8%	2 10.5%	2 10.5%	
지역	서부 교육지부	14 53.8%	4 15.4%	1 3.8%	3 11.5%	4 15.4%	9.546 (0.889)
	남부 교육지부	13 72.2%	1 5.6%	1 5.6%	2 11.1%	1 5.6%	
	북부 교육지부	6 50.0%	2 16.7%	1 8.3%	2 16.7%	1 8.3%	
	동래 교육지부	9 75.0%	2 16.7%	0 0.0%	0 0.0%	1 8.3%	
	해운대 교육지부	6 60.0%	3 30.0%	0 0.0%	0 0.0%	1 10.0%	
학교	중학교	21 63.6%	7 21.2%	0 0.0%	2 6.1%	3 9.1%	30.439 (0.016)
	일반계 고등학교	12 80.0%	0 0.0%	1 6.7%	1 6.7%	1 6.7%	
	특성화 고등학교	8 47.1%	5 29.4%	0 0.0%	1 5.9%	3 17.6%	
	특수목적 고등학교	5 62.5%	0 0.0%	0 0.0%	2 25.0%	1 12.5%	
	대안학교	3 50.0%	0 0.0%	2 33.3%	1 16.7%	0 0.0%	
전 체		49 62.0%	12 15.2%	3 3.8%	7 8.9%	8 10.1%	

① 성격검사 ② 흥미검사 ③ 성격검사 ④ 가치관검사 ⑤ 진로발달검사

진로 관련 심리검사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를 조사했을 때 49명(62.0%)의 결과로 성격검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흥미검사 12명(15.2%)이 2순위로 드러났다. 진로와 직업교육과정의 편성 유무와 학교별 구분을 따져보았을 때 카이제곱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이 두가지의 구분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진로 및 장래직업에 관한 상담의 비율

구분		진로 및 장래직업에 관한 상담의 비율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9 15.0%	14 23.3%	17 28.3%	12 20.0%	8 13.3%	4,136 (0,388)
	없다	3 15.0%	1 5.0%	6 30.0%	5 25.0%	5 25.0%	
지역	서부 교육지부	3 11.5%	6 23.1%	4 15.4%	3 11.5%	10 38.5%	26,607 (0,046)
	남부 교육지부	2 11.1%	4 22.2%	8 44.4%	3 16.7%	1 5.6%	
	북부 교육지부	3 25.0%	3 25.0%	0 0.0%	5 41.7%	1 8.3%	
	동래 교육지부	2 16.7%	1 8.3%	5 41.7%	3 25.0%	1 8.3%	
	해운대 교육지부	2 20.0%	1 10.0%	4 40.0%	3 30.0%	0 0.0%	
학교	중학교	6 18.2%	9 27.3%	8 24.2%	6 18.2%	4 12.1%	22,363 (0,132)
	일반계 고등학교	4 26.7%	1 6.7%	3 20.0%	6 40.0%	1 6.7%	
	특성화 고등학교	2 11.8%	4 23.5%	3 17.6%	4 23.5%	4 23.5%	
	특수목적 고등학교	0 0.0%	1 12.5%	4 50.0%	1 12.5%	2 25.0%	
	대안학교	0 0.0%	0 0.0%	5 71.4%	0 0.0%	2 28.6%	
전 체		12 15.0%	15 18.8%	23 28.8%	17 21.2%	13 16.2%	

① 10%미만 ② 10~20%미만 ③ 20~30%미만 ④ 30~40%미만 ⑤ 40%이상

학생이 진로 및 장래 직업에 관한 상담을 요청해오는 학생 비율은 전 교생 대비 연간 어느정도인지를 조사하였을 때 전체 23명(28.8%)로 20~30%미만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가장 많았다. 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카이제곱검정값(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지역별 구분은 0.046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구분시 20~30%를 제외한 비율이 전체 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3]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진로선택의 기준

구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진로선택 기준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1 1.7%	55 93.2%	2 3.4%	0 0.0%	0 0.0%	1 1.7%	1.984 (0.576)
	없다	1 5.0%	18 90.0%	0 0.0%	0 0.0%	0 0.0%	1 5.0%	
지역	서부 교육지부	2 7.7%	22 84.6%	0 0.0%	0 0.0%	0 0.0%	2 7.7%	11.634 (0.476)
	남부 교육지부	0 0.0%	16 94.1%	1 5.9%	0 0.0%	0 0.0%	0 0.0%	
	북부 교육지부	0 0.0%	12 100.0%	0 0.0%	0 0.0%	0 0.0%	0 0.0%	
	동래 교육지부	0 0.0%	11 91.7%	1 8.3%	0 0.0%	0 0.0%	0 0.0%	
	해운대 교육지부	0 0.0%	10 100.0%	0 0.0%	0 0.0%	0 0.0%	0 0.0%	
학교	중학교	1 3.0%	32 97.0%	0 0.0%	0 0.0%	0 0.0%	0 0.0%	18.559 (0.100)
	일반계 고등학교	0 0.0%	15 100.0%	0 0.0%	0 0.0%	0 0.0%	0 0.0%	
	특성화 고등학교	1 6.2%	13 81.2%	2 12.5%	0 0.0%	0 0.0%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0 0.0%	7 87.5%	0 0.0%	0 0.0%	0 0.0%	1 12.5%	
	대안학교	0 0.0%	6 85.7%	0 0.0%	0 0.0%	0 0.0%	1 14.3%	
전 체		2 2.5%	73 92.4%	2 2.5%	0 0.0%	0 0.0%	2 2.5%	

① 학생성적 ② 적성과 흥미 ③ 학생의 환경과 현실 ④ 부모님의 권유 및 지지
⑤ 교사의 권유 및 지지 ⑥ 기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선택하는 질문에 적성과 흥미가 73명(92.4%)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드러냈으며 학생의 지식의 정도(성적)와 학생이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이 각 2명(2.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14] 가장 조언해주고 싶은 직업 선택의 가치

구분		미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조언해주고 싶은 직업선택가치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30 50.8%	1 1.7%	9 15.3%	9 15.3%	10 16.9%	0 0.0%	0 0.0%	0 0.0%	2.823 (0.588)
	없다	10 50.0%	0 0.0%	2 10.0%	6 30.0%	2 10.0%	0 0.0%	0 0.0%	0 0.0%	
지역	서부 교육지부	10 38.5%	1 3.8%	4 15.4%	5 19.2%	6 23.1%	0 0.0%	0 0.0%	0 0.0%	12.901 (0.680)
	남부 교육지부	10 58.8%	0 0.0%	4 23.5%	1 5.9%	2 11.8%	0 0.0%	0 0.0%	0 0.0%	
	북부 교육지부	7 58.3%	0 0.0%	0 0.0%	4 33.3%	1 8.3%	0 0.0%	0 0.0%	0 0.0%	
	동래 교육지부	7 58.3%	0 0.0%	2 16.7%	2 16.7%	1 8.3%	0 0.0%	0 0.0%	0 0.0%	
	해운대 교육지부	6 60.0%	0 0.0%	0 0.0%	2 20.0%	2 20.0%	0 0.0%	0 0.0%	0 0.0%	
학교	중학교	23 71.9%	1 3.1%	3 9.4%	2 6.2%	3 9.4%	0 0.0%	0 0.0%	0 0.0%	30.620 (0.015)
	일반계 고등학교	7 46.7%	0 0.0%	1 6.7%	4 26.7%	3 20.0%	0 0.0%	0 0.0%	0 0.0%	
	특성화 고등학교	6 35.3%	0 0.0%	2 11.8%	3 17.6%	6 35.3%	0 0.0%	0 0.0%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1 12.5%	0 0.0%	4 50.0%	3 37.5%	0 0.0%	0 0.0%	0 0.0%	0 0.0%	
	대안학교	3 42.9%	0 0.0%	1 14.3%	3 42.9%	0 0.0%	0 0.0%	0 0.0%	0 0.0%	
전 체		40 50.6%	1 1.3%	11 13.9%	15 19.0%	12 15.2%	0 0.0%	0 0.0%	0 0.0%	

① 적성과 흥미 ② 안정성 ③ 발전성과 장래성 ④ 보람과 자아성취
⑤ 지속가능성 및 자기발전가능성 ⑥ 명예와 명성 ⑦ 수입 ⑧ 사회기여도

학생의 미래 희망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조언해주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적성과 흥미 40명(50.6%)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보람과 자아성취 15명(19.0%)이 2순위 지속가능성 및 자기발전가능성 12명(15.2%), 발전성과 장래성 11명(13.9%)으로 다음을 이었다. 카이제곱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학교별 분류는 0.015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학생 진로결정에 가장 큰 도움 요인

구분		청소년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귀하가 줄 수 있는 요인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16 27.1%	9 15.3%	14 23.7%	0 0.0%	20 33.9%	10.745 (0.013)
	없다	5 25.0%	10 50.0%	2 10.0%	0 0.0%	3 15.0%	
지역	서부 교육지부	5 19.2%	6 23.1%	7 26.9%	0 0.0%	8 30.8%	15.803 (0.200)
	남부 교육지부	4 23.5%	3 17.6%	3 17.6%	0 0.0%	7 41.2%	
	북부 교육지부	2 16.7%	3 25.0%	4 33.3%	0 0.0%	3 25.0%	
	동래 교육지부	7 58.3%	2 16.7%	0 0.0%	0 0.0%	3 25.0%	
	해운대 교육지부	3 30.0%	5 50.0%	1 10.0%	0 0.0%	1 10.0%	
학교	중학교	10 30.3%	5 15.2%	8 24.2%	0 0.0%	10 30.3%	15.032 (0.240)
	일반계 고등학교	6 40.0%	5 33.3%	3 20.0%	0 0.0%	1 6.7%	
	특성화 고등학교	4 25.0%	3 18.8%	1 6.2%	0 0.0%	8 50.0%	
	특수목적 고등학교	0 0.0%	4 50.0%	2 25.0%	0 0.0%	2 25.0%	
	대안학교	1 14.3%	2 28.6%	2 28.6%	0 0.0%	2 28.6%	
전 체		21 26.6%	19 24.1%	16 20.3%	0 0.0%	23 29.1%	

① 정보적지지 ② 대화적지지 ③ 정서적지지 ④ 경제적지지 ⑤ 경험적지지

청소년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요인인지 질문했을 때 23명(29.1%)으로 경험적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21명(26.6%)으로 정보적지지가 2순위로 드러났다. 진로와 직업교육과정 편성의 유무와 지역별, 학교별로 구분시 경제적지지에는 0%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카이제곱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진로와 직업교육과정 편성의 유무는 0.013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진로결정에 있어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구분		진로 및 진학 결정에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0 0.0%	3 5.3%	7 12.3%	22 38.6%	0 0.0%	25 43.9%	2.490 (0.477)
	없다	0 0.0%	3 15.8%	3 15.8%	6 31.6%	0 0.0%	7 36.8%	
지역	서부 교육지부	0 0.0%	3 12.5%	5 20.8%	8 33.3%	0 0.0%	8 33.3%	11.482 (0.488)
	남부 교육지부	0 0.0%	1 5.6%	2 11.1%	9 50.0%	0 0.0%	6 33.3%	
	북부 교육지부	0 0.0%	0 0.0%	3 25.0%	2 16.7%	0 0.0%	7 58.3%	
	동래 교육지부	0 0.0%	1 10.0%	0 0.0%	4 40.0%	0 0.0%	5 50.0%	
	해운대 교육지부	0 0.0%	1 10.0%	0 0.0%	3 30.0%	0 0.0%	6 60.0%	
학교	중학교	0 0.0%	3 9.4%	4 12.5%	11 34.4%	0 0.0%	14 43.8%	11.227 (0.510)
	일반계 고등학교	0 0.0%	0 0.0%	3 23.1%	4 30.8%	0 0.0%	6 46.2%	
	특성화 고등학교	0 0.0%	2 11.8%	2 11.8%	5 29.4%	0 0.0%	8 47.1%	
	특수목적 고등학교	0 0.0%	0 0.0%	1 12.5%	3 37.5%	0 0.0%	4 50.0%	
	대안학교	0 0.0%	1 16.7%	0 0.0%	5 83.3%	0 0.0%	0 0.0%	
전 체		0 0.0%	6 7.9%	10 13.2%	28 36.8%	0 0.0%	32 42.1%	

① 조부모 ② 어머니 ③ 아버지 ④ 교사(본인) ⑤ 또래친구 ⑥ 선배 또는 멘토

학생이 진로 및 진학을 결정함에 있어 누구의 조언이 가장 좋다고 생각 하는지에 응답하는 질문에 32명(42.1%)이 선배 또는 멘토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순위는 28명(36.8%)으로 교사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응답에 있어 조부모와 또래친구는 0%로 순위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진로지도를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구분		진로 지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1 1.7%	11 18.6%	8 13.6%	20 33.9%	8 13.6%	11 18.6%	1.900 (0.863)
	없다	1 5.0%	2 10.0%	4 20.0%	7 35.0%	2 10.0%	4 20.0%	
지역	서부 교육지부	1 3.8%	2 7.7%	3 11.5%	9 34.6%	5 19.2%	6 23.1%	10.670 (0.954)
	남부 교육지부	1 5.9%	4 23.5%	2 11.8%	6 35.3%	1 5.9%	3 17.6%	
	북부 교육지부	0 0.0%	2 16.7%	2 16.7%	4 33.3%	2 16.7%	2 16.7%	
	동래 교육지부	0 0.0%	4 33.3%	3 25.0%	3 25.0%	1 8.3%	1 8.3%	
	해운대 교육지부	0 0.0%	1 10.0%	2 20.0%	3 30.0%	1 10.0%	3 30.0%	
학교	중학교	1 3.0%	7 21.2%	6 18.2%	11 33.3%	3 9.1%	5 15.2%	32.710 (0.036)
	일반계 고등학교	0 0.0%	4 26.7%	2 13.3%	3 20.0%	5 33.3%	1 6.7%	
	특성화 고등학교	0 0.0%	0 0.0%	2 12.5%	7 43.8%	0 0.0%	7 43.8%	
	특수목적 고등학교	0 0.0%	0 0.0%	0 0.0%	5 62.5%	1 12.5%	2 25.0%	
	대안학교	1 14.3%	2 28.6%	2 28.6%	1 14.3%	1 14.3%	0 0.0%	
전 체		2 2.5%	13 16.5%	12 15.2%	27 34.2%	10 12.7%	15 19.0%	

① 진로교육기초이론 ② 미래의 직업세계 이해 ③ 진로심리검사의 이해와 활용

④ 진로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⑤ 고입 또는 대입환경의 변화와 진학지도

⑥ 진로직업체험 현장연수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 지는 것은 무엇인지 조사하였을 때 27명(34.2%)이 진로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진로직업체험 현장연수(진로체험센터 및 진로체험홍보관 방문) 15명(19.0%), 미래의 직업세계 이해 13명(16.5%), 진로심리검사의 이해와 활용이 12명(15.2%), 고입 또는 대입 환경의 변화와 대입지도 10명(12.7%)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카이제곱 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학교별 구분시 0.0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8-1] 학생의 변화정도 - 자신의 흥미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갈 것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20	0.55	-0.934 (0.353)
	여자	4.35	0.81	
지역	서부교육지부	4.35	0.56	0.679 (0.608)
	남부교육지부	4.11	0.58	
	북부교육지부	4.17	0.72	
	동래교육지부	4.25	0.45	
	해운대교육지부	4.40	0.52	
학교	중학교	4.30	0.53	2.255 (0.071)
	일반계고등학교	4.07	0.26	
	특성화고등학교	4.35	0.70	
	특수목적고등학교	4.50	0.76	
	대안학교	3.71	0.95	
전 체		4.24	0.62	

진로활동을 받은 학생은 본인의 흥미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알아 갈 것이라는 문항에서 전체평균 4.24(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흥미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알아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성별로 구분시에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지역별 구분에서는 해운대교육지부, 학교별 구분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평균이 가장 높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2] 학생의 변화정도 -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 형성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13	0.54	-0.118 (0.907)
	여자	4.15	0.59	
지역	서부교육지부	4.23	0.65	0.359 (0.837)
	남부교육지부	4.11	0.58	
	북부교육지부	4.17	0.58	
	동래교육지부	4.17	0.39	
	해운대교육지부	4.00	0.00	
학교	중학교	4.21	0.48	1.392 (0.245)
	일반계고등학교	3.93	0.26	
	특성화고등학교	4.24	0.66	
	특수목적고등학교	4.25	0.71	
	대안학교	3.86	0.69	
전 체		4.14	0.55	

진로를 받은 학생은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문항에서 전체평균 4.14(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별, 지역별, 학교별로 구분시에 구분된 항목간에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아 대체적으로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18-3] 학생의 변화정도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02	0.62	0.641 (0.524)
	여자	3.90	0.91	
지역	서부교육지부	4.15	0.67	1.033 (0.396)
	남부교육지부	4.06	0.64	
	북부교육지부	3.75	0.62	
	동래교육지부	4.00	0.74	
	해운대교육지부	3.80	0.63	
학교	중학교	3.97	0.59	3.358 (0.014)
	일반계고등학교	3.87	0.64	
	특성화고등학교	4.24	0.66	
	특수목적고등학교	4.38	0.74	
	대안학교	3.29	0.95	
전 체		3.99	0.70	

진로활동을 받은 학생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이 개발될 것이라는 질문에 전체평균 3.99(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이 개발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구분시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카이제곱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학교별 구분시 0.0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4] 학생의 변화정도 - 교육의 기회와 진학정보의 탐색 및 준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10	0.54	0.321 (0.749)
	여자	4.05	0.76	
지역	서부교육지부	4.31	0.62	1.832 (0.132)
	남부교육지부	3.94	0.54	
	북부교육지부	3.83	0.72	
	동래교육지부	4.08	0.51	
	해운대교육지부	4.10	0.32	
학교	중학교	4.12	0.48	1.272 (0.288)
	일반계고등학교	4.00	0.85	
	특성화고등학교	4.12	0.49	
	특수목적고등학교	4.38	0.52	
	대안학교	3.71	0.76	
전 체		4.09	0.60	

진로활동을 받은 학생은 교육의 기회와 진학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준비할 것이라는 질문에 전체평균 4.09(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교육의 기회와 진학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 지역별, 학교별로 구분시에 구분된 항목간에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아 대체적으로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18-5] 학생의 변화정도 - 원하는 진로에 필요한 학력 및 자격증의 준비 능력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12	0.74	0.090 (0.928)
	여자	4.10	0.64	
지역	서부교육지부	4.23	0.76	0.341 (0.849)
	남부교육지부	4.06	0.64	
	북부교육지부	4.00	0.74	
	동래교육지부	4.00	0.85	
	해운대교육지부	4.10	0.57	
학교	중학교	4.18	0.64	0.208 (0.933)
	일반계고등학교	4.00	0.76	
	특성화고등학교	4.12	0.78	
	특수목적고등학교	4.13	0.99	
	대안학교	4.00	0.58	
전 체		4.11	0.71	

진로활동을 받은 학생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증에 관해 준비할 것이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4.11(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증에 관해 준비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구분시 서부교육지부에서 평균보다 높았으며 학교별 구분에서는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8-6] 학생의 변화정도 - 진로의사결정능력 및 책임감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12	0.74	0.090 (0.928)
	여자	4.10	0.64	
지역	서부교육지부	4.23	0.76	0.341 (0.849)
	남부교육지부	4.06	0.64	
	북부교육지부	4.00	0.74	
	동래교육지부	4.00	0.85	
	해운대교육지부	4.10	0.57	
학교	중학교	4.18	0.64	.208 (0.933)
	일반계고등학교	4.00	0.76	
	특성화고등학교	4.12	0.78	
	특수목적고등학교	4.13	0.99	
	대안학교	4.00	0.58	
전 체		4.11	0.71	

진로활동을 받은 학생은 진로의사결정능력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것이라는 질문에 전체평균 4.11(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진로의사결정능력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구분시 서부교육지부에서 평균보다 높았으며 학교별 구분에서는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8-7] 학생의 변화정도 - 자기 정체성 및 자존감 고취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20	0.61	-0.302 (0.763)
	여자	4.25	0.55	
지역	서부교육지부	4.35	0.63	1.160 (0.336)
	남부교육지부	4.17	0.51	
	북부교육지부	3.91	0.70	
	동래교육지부	4.17	0.58	
	해운대교육지부	4.30	0.48	
학교	중학교	4.27	0.52	1.221 (0.309)
	일반계고등학교	3.93	0.59	
	특성화고등학교	4.31	0.70	
	특수목적고등학교	4.38	0.52	
	대안학교	4.14	0.69	
전 체		4.22	0.59	

진로활동을 받은 학생은 자기정체성 및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질문에 4.22(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자기정체성 및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구분시 서부교육지부와 해운대교육지부에서 평균보다 높았으며 학교별 구분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8-8] 학생의 변화정도 -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38	0.52	1.605 (0.113)
	여자	4.15	0.67	
지역	서부교육지부	4.46	0.51	1.013 (0.406)
	남부교육지부	4.39	0.78	
	북부교육지부	4.17	0.58	
	동래교육지부	4.17	0.39	
	해운대교육지부	4.20	0.42	
학교	중학교	4.36	0.55	1.362 (0.255)
	일반계고등학교	4.33	0.49	
	특성화고등학교	4.41	0.51	
	특수목적고등학교	4.38	0.52	
	대안학교	3.86	0.90	
전 체		4.33	0.57	

진로활동을 받은 학생은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는 질문에 전체평균 4.33(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별로 구분시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지역별로 구분시 서부교육지부와 남부교육지부에서 평균보다 높았으며 학교별 구분에서는 대안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9] 진로활동을 연계하거나 학생에게 권장하고 싶은 기관

구분		진로활동이 전면 실시된다면 연계하거나 학생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싶은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19 31.7%	41 68.3%	40 66.7%	48 80.0%	16 26.7%	14 23.3%
	없다	3 16.7%	12 66.7%	12 66.7%	15 83.3%	6 33.3%	6 33.3%
지역	서부 교육지부	7 26.9%	13 50.0%	13 50.0%	23 88.5%	11 42.3%	9 34.6%
	남부 교육지부	5 27.8%	16 88.9%	13 72.2%	13 72.2%	2 11.1%	5 27.8%
	북부 교육지부	2 16.7%	10 83.3%	7 58.3%	11 91.7%	3 25.0%	3 25.0%
	동래 교육지부	4 33.3%	7 58.3%	11 91.7%	8 66.7%	5 41.7%	1 8.3%
	해운대 교육지부	3 33.3%	7 77.8%	8 88.9%	7 77.8%	0 0.0%	2 22.2%
학교	중학교	8 24.2%	23 69.7%	26 78.8%	26 78.8%	7 21.2%	9 27.3%
	일반계 고등학교	3 20.0%	12 80.0%	11 73.3%	13 86.7%	2 13.3%	4 26.7%
	특성화 고등학교	7 43.8%	11 68.8%	8 50.0%	13 81.2%	5 31.2%	4 25.0%
	특수목적 고등학교	3 37.5%	3 37.5%	4 50.0%	7 87.5%	5 62.5%	0 0.0%
	대안학교	1 16.7%	4 66.7%	3 50.0%	4 66.7%	3 50.0%	3 50.0%
전 체		22	53	52	63	22	20

- ① 청소년관련기관 ②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③ 부산광역시진로진학지원센터
④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진로체험센터 ⑤ 공공기관
⑥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진로활동이 전면 실시된다면 연계하거나 학생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싶은 기관을 질문했을 때 전체 63명으로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진로체험센터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2순위로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53명, 3순위로 부산광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52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20] 진로활동의 활성화 방안

구분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유무	있다	24 40.7%	23 39.0%	9 15.3%	2 3.4%	1 1.7%	1,329 (0.856)
	없다	8 40.0%	8 40.0%	3 15.0%	0 0.0%	1 5.0%	
지역	서부 교육지부	9 34.6%	11 42.3%	4 15.4%	1 3.8%	1 3.8%	5,591 (0.992)
	남부 교육지부	7 41.2%	5 29.4%	3 17.6%	1 5.9%	1 5.9%	
	북부 교육지부	5 41.7%	5 41.7%	2 16.7%	0 0.0%	0 0.0%	
	동래 교육지부	5 41.7%	5 41.7%	2 16.7%	0 0.0%	0 0.0%	
	해운대 교육지부	6 60.0%	3 30.0%	1 10.0%	0 0.0%	0 0.0%	
학교	중학교	16 48.5%	12 36.4%	5 15.2%	0 0.0%	0 0.0%	32,579 (0.008)
	일반계 고등학교	8 53.3%	6 40.0%	1 6.7%	0 0.0%	0 0.0%	
	특성화 고등학교	8 50.0%	3 18.8%	4 25.0%	1 6.2%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0 0.0%	7 87.5%	0 0.0%	0 0.0%	1 12.5%	
	대안학교	0 0.0%	3 42.9%	2 28.6%	1 14.3%	1 14.3%	
전 체		32 40.5%	31 39.2%	12 15.2%	2 2.5%	2 2.5%	

①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② 학교내 과정에서 물적, 시간적지원

③ 국가에서 참가비용 지원 ④ 진로찾기포트폴리오의 의무화

⑤ 우수하게 참여한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시상 및 공모의 참여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조사했을 때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32명(40.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학교 내 과정에서 물적, 시간적 지원 31명(39.2%)로 꼽았다. 각 구분과 응답에 대한 카이제곱검정(검정성)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성별, 지역별, 학교별로 구분했을 때 학교별 구분이 0.0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학 부 모



설문조사에 응한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총 44명이며 아버지가 24명(54.5%), 어머니가 19명(43.2%)으로 가정경제수준으로는 100만원미만이 2명(4.5%),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이 12명(27.3%),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이 8명(18.2%),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이 10명(22.7%),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이 7명(15.9%), 500만원이상이 3명(6.8%)으로 학부모님이 다니는 직장별로는 국가기관 2명(4.5%), 공기업 1명(2.3%), 대기업 2명(4.5%), 전문직 7명(15.9%), 중소기업 13명(29.5%), 자영업 9명(20.5%), 기타 6명(13.6%)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2명(4.5%), 일반계고등학교 3명(6.8%), 특성화고등학교 34명(77.3%), 자율형고등학교 2명(4.5%), 특수목적고등학교 2명(4.5%)로 구성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구분

■ 학부모 성별

성별		빈도(명)	퍼센트(%)
유 호	남 자 (아버지)	24	54.5
	여 자 (어머니)	19	43.2
	합 계	43	97.7
결 측		1	2.3
합 계		44	100.0

■ 가정경제수준별 구분

가정경제수준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유 호	1 0 0 만 원 미 만	2	4.5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2	27.3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8	18.2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10	22.7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7	15.9
	5 0 0 만 원 이 상	3	6.8
	합 계	42	95.5
결 측		2	4.5
합 계		44	100.0



■ 학부모의 직장종사별 구분

학부모의 직장종사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유 효	국 가 기 관	2	4.5
	공 기 업	1	2.3
	대 기 업	2	4.5
	전 문 직	7	15.9
	중 소 기 업	13	29.5
	자 영 업	9	20.5
	기 타	6	13.6
	합 계	40	90.9
결	측	4	9.1
합	계	44	100.0

■ 학교유형별 구분

학교유형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유 효	중 학 교	2	4.5
	일 반 계 고 등 학 교	3	6.8
	특 성 화 고 등 학 교	34	77.3
	자 율 형 고 등 학 교	2	4.5
	특 수 목 적 고 등 학 교	2	4.5
	합 계	43	97.7
결	측	1	2.3
합	계	44	100.0



[표 2] 자녀에게 참여 시키고 싶은 활동

구분		자녀에게 참여시키고 싶은 활동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별	남자	3 (12.5%)	9 (37.5%)	1 (4.2%)	0 (0.0%)	1 (4.2%)	9 (37.5%)	1 (4.2%)	7.365 (0.288)
	여자	3 (15.8%)	2 (10.5%)	2 (10.5%)	1 (5.3%)	3 (15.8%)	8 (42.1%)	0 (0.0%)	
직장별	국가기관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63.232 (0.003)
	공기업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대기업	0 (0.0%)	1 (50.0%)	0 (0.0%)	0 (0.0%)	1 (50.0%)	0 (0.0%)	0 (0.0%)	
	전문직	3 (42.9%)	1 (14.3%)	1 (14.3%)	0 (0.0%)	0 (0.0%)	2 (28.6%)	0 (0.0%)	
	중소기업	1 (7.7%)	3 (23.1%)	0 (0.0%)	0 (0.0%)	1 (7.7%)	8 (61.5%)	0 (0.0%)	
	자영업	0 (0.0%)	3 (33.3%)	1 (11.1%)	0 (0.0%)	1 (11.1%)	3 (33.3%)	1 (11.1%)	
	기타	1 (16.7%)	2 (33.3%)	1 (16.7%)	0 (0.0%)	1 (16.7%)	1 (16.7%)	0 (0.0%)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26.023 (0.674)
	100만원대	1 (8.3%)	5 (41.7%)	0 (0.0%)	0 (0.0%)	2 (16.7%)	4 (33.3%)	0 (0.0%)	
	200만원대	0 (0.0%)	1 (12.5%)	1 (12.5%)	0 (0.0%)	1 (12.5%)	5 (62.5%)	0 (0.0%)	
	300만원대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5 (50.0%)	0 (0.0%)	
	400만원대	2 (28.6%)	2 (28.6%)	0 (0.0%)	0 (0.0%)	0 (0.0%)	2 (28.6%)	1 (14.3%)	
	500만원 이상	0 (0.0%)	1 (33.3%)	1 (33.3%)	0 (0.0%)	0 (0.0%)	1 (33.3%)	0 (0.0%)	
전 체		5 (11.9%)	11 (26.2%)	3 (7.1%)	1 (2.4%)	4 (9.5%)	17 (40.5%)	1 (2.4%)	

① 선행학습관련 학원수강 및 강의 ② 스포츠관련 ③ 문화예술관련 ④ 봉사활동 ⑤ 진로관련
⑥ 인성 및 도덕성함양 ⑦ 기타

자녀에게 참여시키고 싶은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대해 응답한 결과 성별, 직장별, 경제수준별로 동일한 응답을 드러냈다. 하지만 각 구분과 응답에 대한 카이제곱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학부모의 직종에 따라서 자녀에게 시키고 싶은 활동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참여시키고 싶은 활동은 선행학



습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강의, 스포츠 관련활동, 문화예술관련활동, 봉사활동, 진로관련활동, 인성 및 도덕성 함양활동, 기타 등이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인성 및 도덕성함양이 17명(39.5%), 스포츠관련활동이 11명(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별로 보았을 때도 15명(37.5%), 10명(25.0%)으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나타냈다. 학부모의 경제수준별 소득을 살펴보면 인성 및 도덕성 함양이 17명(40.5%), 스포츠관련활동이 11명(26.2%)으로 많은 응답수를 차지했다.

[표 3] 자녀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한 평가

구분		1-매우 불만족, 4-매우 만족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91	0.60	-0.464 (0.645)
	여자	3.30	0.60	
직장별	국가기관	3.50	0.70	0.846 (0.545)
	공기업	3.00	0.00	
	대기업	2.00	0.00	
	전문직	3.00	0.58	
	중소기업	2.92	0.49	
	자영업	3.11	0.78	
	기타	3.00	0.00	
경제수준별	100만원아래	3.00	0.00	1.013 (0.425)
	100만원대	3.00	0.60	
	200만원대	2.63	0.52	
	300만원대	2.89	0.78	
	400만원대	3.33	0.52	
	500만원이상	3.00	0.00	
전 체		2.95	0.60	

자녀들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평균 3.00(4에 가까울수록 만족한다)으로 대체로 만족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3.30)가 아버지(2.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별 평균(3.00)과 경제수준별 평균(2.95)은 0.05차이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이유

구분		진로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1 (16.7%)	2 (33.3%)	0 (0.0%)	2 (33.3%)	1 (16.7%)	4.444 (0.349)
	여자	0 (0.0%)	1 (25.0%)	2 (50.0%)	1 (25.0%)	0 (0.0%)	
직장별	국가기관	0 (0.0%)	0 (0.0%)	0 (0.0%)	0 (0.0%)	0 (0.0%)	11.333 (0.501)
	공기업	0 (0.0%)	0 (0.0%)	0 (0.0%)	0 (0.0%)	0 (0.0%)	
	대기업	0 (0.0%)	0 (0.0%)	0 (0.0%)	1 (100.0%)	0 (0.0%)	
	전문직	1 (33.3%)	1 (33.3%)	1 (33.3%)	0 (0.0%)	0 (0.0%)	
	중소기업	0 (0.0%)	1 (50.0%)	0 (0.0%)	1 (50.0%)	0 (0.0%)	
	자영업	0 (0.0%)	0 (0.0%)	1 (50.0%)	0 (0.0%)	1 (5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경제 수준별	100만원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1.111 (0.519)
	100만원대	0 (0.0%)	1 (50.0%)	0 (0.0%)	1 (50.0%)	0 (0.0%)	
	200만원대	0 (0.0%)	1 (33.3%)	1 (33.3%)	0 (0.0%)	1 (33.3%)	
	300만원대	1 (33.3%)	1 (33.3%)	0 (0.0%)	1 (33.3%)	0 (0.0%)	
	400만원대	0 (0.0%)	0 (0.0%)	1 (100.0%)	0 (0.0%)	0 (0.0%)	
	500만원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전 체		1 (10.0%)	3 (30.0%)	2 (20.0%)	3 (30.0%)	1 (10.0%)	

① 진로인력부족 ② 학생들의 참여 및 호응도 저조 ③ 운영예산부족
④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 ⑤ 업무과중으로 효율성 저조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가 30.0%, 학생들의 참여 및 호응도 저조라고 대답한 응답이 30.0%로 가장 컸으며 2순위로 운영예산부족이 20%로 뒤를 이었다. 경제 수준별로 구분했을 시 응답결과가 동일하며 직장별로 구분했을 시 학생들의 참여 및 호응도 저조와 운영예산의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가 20%씩 동일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5]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이유

구분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이유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5 (26.3%)	9 (47.4%)	1 (5.3%)	0 (0.0%)	4 (21.1%)	4.727 (0.317)
	여자	3 (17.6%)	4 (23.5%)	3 (17.6%)	1 (5.9%)	6 (35.3%)	
직장별	국가기관	1 (50.0%)	1 (50.0%)	0 (0.0%)	0 (0.0%)	0 (0.0%)	20.417 (0.673)
	공기업	0 (0.0%)	0 (0.0%)	1 (100.0%)	0 (0.0%)	0 (0.0%)	
	대기업	0 (0.0%)	1 (100.0%)	0 (0.0%)	0 (0.0%)	0 (0.0%)	
	전문직	1 (16.7%)	2 (33.3%)	1 (16.7%)	0 (0.0%)	2 (33.3%)	
	중소기업	3 (27.3%)	5 (45.5%)	1 (9.1%)	0 (0.0%)	2 (18.2%)	
	자영업	1 (12.5%)	2 (25.0%)	1 (12.5%)	0 (0.0%)	4 (50.0%)	
	기타	2 (33.3%)	2 (33.3%)	0 (0.0%)	1 (16.7%)	1 (16.7%)	
경제수준별	100만원미만	1 (50.0%)	1 (50.0%)	0 (0.0%)	0 (0.0%)	0 (0.0%)	16.374 (0.693)
	100만원대	4 (40.0%)	2 (20.0%)	1 (10.0%)	1 (10.0%)	2 (20.0%)	
	200만원대	0 (0.0%)	3 (50.0%)	0 (0.0%)	0 (0.0%)	3 (50.0%)	
	300만원대	0 (0.0%)	4 (57.1%)	2 (28.6%)	0 (0.0%)	1 (14.3%)	
	400만원대	1 (14.3%)	2 (28.6%)	1 (14.3%)	0 (0.0%)	3 (42.9%)	
	500만원이상	1 (33.3%)	1 (33.3%)	0 (0.0%)	0 (0.0%)	1 (33.3%)	
전 체		7 (20.0%)	13 (37.1%)	4 (11.4%)	1 (2.9%)	10 (28.6%)	

- ① 자녀의 진로고민을 털어줄 수 있어서 ② 자녀가 장래 지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부여
 ③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함양
 ④ 진로지도를 통해 공부를 하는 목적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⑤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 체험이 가능해 향후 진학에 많은 도움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자녀가 장래 지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줄 수 있어서가 36.1%로 1위를, 자녀가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와 체험이 가능해 진학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응답이 27.8%로 2위를 차지했다. 경제수준별로 분석시 응답이 이와 동일하며 직장별로 구분시 자녀의 진로고민을 털어줄 수 있다는 응답이 22.9%로 2위를 차지했던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와 체험이 가능해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응답(25.7%)과 비슷한 결과를 차지했다.



[표 6] 자녀의 진로선택 및 진학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58	0.93	0.208 (0.836)
	여자	3.52	0.84	
직장별	국가기관	4.00	0.00	1.905 (0.109)
	공기업	3.00	0.00	
	대기업	4.00	0.00	
	전문직	4.00	0.81	
	중소기업	3.84	0.55	
	자영업	3.00	1.22	
	기타	3.00	0.89	
경제 수준별	100만원아래	3.00	0.00	1.632 (0.176)
	100만원대	3.42	0.67	
	200만원대	3.38	1.30	
	300만원대	3.30	0.82	
	400만원대	4.14	0.69	
	500만원이상	4.33	0.58	
전 체		3.55	0.89	

자녀의 진로 선택 및 진학 결정에서 본인의 생각과 기대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전체평균 3.55(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그러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3.58)이 어머니(3.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별로는 국가기관과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로는 4.33의 평균을 가진 500만원이상이 1순위, 4.14의 평균을 나타낸 400만원대가 2순위를 차지했다.



[표 7] 자녀와의 대화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구분		자녀와의 대화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별	남자	3 (12.5%)	2 (8.3%)	8 (33.3%)	2 (8.3%)	8 (33.3%)	1 (4.2%)	0 (0.0%)	2,336 (0.886)
	여자	2 (10.5%)	1 (5.3%)	6 (31.6%)	2 (10.5%)	7 (36.8%)	0 (0.0%)	1 (5.3%)	
직장별	국가기관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0 (0.0%)	32,990 (0.613)
	공기업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대기업	0 (0.0%)	0 (0.0%)	2 (100%)	0 (0.0%)	0 (0.0%)	0 (0.0%)	0 (0.0%)	
	전문직	0 (0.0%)	1 (14.3%)	2 (28.6%)	0 (0.0%)	3 (42.9%)	1 (14.3%)	0 (0.0%)	
	중소기업	2 (15.4%)	1 (7.7%)	4 (30.8%)	1 (7.7%)	5 (38.5%)	0 (0.0%)	0 (0.0%)	
	자영업	2 (22.2%)	0 (0.0%)	3 (33.3%)	1 (11.1%)	2 (22.2%)	0 (0.0%)	1 (11.1%)	
	기타	0 (0.0%)	0 (0.0%)	2 (33.3%)	0 (0.0%)	4 (66.7%)	0 (0.0%)	0 (0.0%)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0 (0.0%)	0 (0.0%)	0 (0.0%)	0 (0.0%)	2 (100%)	0 (0.0%)	0 (0.0%)	32,305 (0.353)
	100만원대	1 (8.3%)	0 (0.0%)	5 (41.7%)	2 (16.7%)	4 (33.3%)	0 (0.0%)	0 (0.0%)	
	200만원대	2 (25.0%)	0 (0.0%)	3 (37.5%)	0 (0.0%)	3 (37.5%)	0 (0.0%)	0 (0.0%)	
	300만원대	1 (10.0%)	1 (10.0%)	2 (20.0%)	0 (0.0%)	5 (50.0%)	0 (0.0%)	1 (10.0%)	
	400만원대	1 (14.3%)	1 (14.3%)	3 (42.9%)	1 (14.3%)	1 (14.3%)	0 (0.0%)	0 (0.0%)	
	500만원 이상	0 (0.0%)	0 (0.0%)	1 (33.3%)	1 (33.3%)	0 (0.0%)	1 (33.3%)	0 (0.0%)	
전 체		5 (11.9%)	2 (4.8%)	14 (33.3%)	4 (9.5%)	15 (35.7%)	1 (2.4%)	1 (2.4%)	

① 교우관계 ② 공부 ③ 진로 및 진학 ④ 취미 ⑤ 학교내 생활
⑥ 사회 및 시사 ⑦ 연애

자녀와의 대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였을 때 학교내 생활이라고 응답한 것이 15명(34.9%), 진로 및 진학이라고 응답한 것이 14명(32.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별로 구분하였을 때도 각 14명(35.0%)로 동일하며 경제수준별로 구분시엔 학교 내 생활이 15명(35.7%), 진로 및 진학이 14명(33.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표 8] 자녀가 참여한 진로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

구분		자녀에게 참여시키고 싶은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성별	남자	7 (31.8%)	5 (22.7%)	6 (27.3%)	1 (4.5%)	3 (13.6%)	0 (0.0%)	7 (31.8%)	2 (9.1%)	8 (36.4%)	4 (18.2%)	2 (9.1%)	10 (45.5%)	10 (45.5%)
	여자	1 (5.9%)	7 (41.2%)	8 (47.1%)	2 (11.8%)	7 (41.2%)	3 (17.6%)	7 (41.2%)	3 (17.6%)	1 (5.9%)	1 (5.9%)	3 (17.6%)	5 (29.4%)	2 (11.8%)
직장별	국가기관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2 (100%)	1 (50.0%)	1 (50.0%)
	공기업	0 (0.0%)	1 (100%)	0 (0.0%)	0 (0.0%)	0 (0.0%)	1 (1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대기업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1 (50.0%)	1 (50.0%)
	전문직	1 (14.3%)	4 (57.1%)	4 (57.1%)	1 (14.3%)	1 (14.3%)	1 (14.3%)	2 (28.6%)	3 (42.9%)	1 (14.3%)	1 (14.3%)	0 (0.0%)	2 (28.6%)	0 (0.0%)
	중소기업	3 (27.3%)	2 (18.2%)	4 (36.4%)	1 (9.1%)	3 (27.3%)	0 (0.0%)	4 (36.4%)	0 (0.0%)	3 (27.3%)	4 (36.4%)	2 (18.2%)	3 (27.3%)	4 (36.4%)
	자영업	1 (11.1%)	1 (11.1%)	3 (33.3%)	1 (11.1%)	3 (33.3%)	1 (11.1%)	3 (33.3%)	1 (11.1%)	2 (22.2%)	0 (0.0%)	1 (11.1%)	5 (55.5%)	4 (44.4%)
	기타	1 (20.0%)	1 (20.0%)	2 (40.0%)	0 (0.0%)	2 (40.0%)	0 (0.0%)	2 (40.0%)	0 (0.0%)	2 (40.0%)	0 (0.0%)	0 (0.0%)	3 (60.0%)	2 (40.0%)
	경제수준별													
경제수준별	100만원 아래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2 (100%)	0 (0.0%)	1 (50.0%)	0 (0.0%)	0 (0.0%)	1 (50.0%)	1 (50.0%)
	100만원대	3 (33.3%)	3 (33.3%)	2 (22.2%)	0 (0.0%)	3 (33.3%)	0 (0.0%)	1 (11.1%)	0 (0.0%)	2 (22.2%)	1 (11.1%)	1 (11.1%)	5 (55.6%)	4 (44.4%)
	200만원대	1 (14.3%)	1 (14.3%)	2 (28.6%)	1 (14.3%)	2 (28.6%)	0 (0.0%)	4 (57.1%)	1 (14.3%)	2 (28.6%)	2 (28.6%)	0 (0.0%)	2 (28.6%)	3 (42.9%)
	300만원대	2 (20.0%)	4 (40.0%)	5 (50.0%)	2 (20.0%)	3 (30.0%)	1 (10.0%)	4 (40.0%)	1 (10.0%)	2 (20.0%)	1 (10.0%)	1 (10.0%)	2 (20.0%)	2 (20.0%)
	400만원대	2 (28.6%)	2 (28.6%)	3 (42.9%)	0 (0.0%)	2 (28.6%)	0 (0.0%)	2 (28.6%)	2 (28.6%)	1 (14.3%)	1 (14.3%)	1 (14.3%)	4 (57.1%)	1 (14.3%)
	500만원 이상	0 (0.0%)	2 (66.7%)	1 (33.3%)	0 (0.0%)	0 (0.0%)	2 (66.7%)	0 (0.0%)	1 (33.3%)	1 (33.3%)	0 (0.0%)	1 (33.3%)	1 (33.3%)	0 (0.0%)
전 체		8	12	14	3	10	3	13	5	9	5	4	15	11

① 원하는 대학학과 관련탐방 ② 진로캠프 ③ 산업체진로직업체험 ④ 한국고용정보원잡스쿨
⑤ 진로관련검사 ⑥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 ⑦ 진로박람회 ⑧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 ⑨ 직업전망, 신생 및 이색작업 소개 ⑩ 진로관련읽기자료를 통한 진로탐색교육
⑪ 일일인턴체험 ⑫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진로교육 ⑬ 창의적체험활동증진 진로활동

현재 자녀가 하고 있는 활동 중 만족도가 높은 활동을 우선순위로
골랐을 때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진로교육이 가장 많았고 산업체진로직
업체험과 진로박람회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직장별로 구분
했을 때와 경제수준별로 구분했을 때 전체 응답수는 달라지지만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이며 뒤이어 진로캠프와 창의적체험활동증진 진로활동이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자녀가 참여한 진로활동 중 가장 참여 시키고 싶은 활동

구분		가장 참여를 원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성별	남자	11 (50.5%)	10 (45.5%)	7 (31.8%)	4 (18.2%)	2 (9.1%)	2 (9.1%)	2 (9.1%)	3 (13.6%)	6 (27.3%)	2 (9.1%)	7 (31.8%)	6 (27.3%)	4 (18.2%)
	여자	6 (33.3%)	4 (22.2%)	7 (38.9%)	2 (11.1%)	4 (22.2%)	2 (11.1%)	6 (33.3%)	3 (16.7%)	3 (16.7%)	0 (0.0%)	10 (55.6%)	2 (11.1%)	5 (27.8%)
직장별	국가기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0 (0.0%)	1 (50.0%)	0 (0.0%)	1 (50.0%)	0 (0.0%)	2 (100.0%)
	공기업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대기업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전문직	3 (42.9%)	3 (42.9%)	3 (42.9%)	1 (14.3%)	0 (0.0%)	1 (14.3%)	1 (14.3%)	1 (14.3%)	1 (14.3%)	1 (14.3%)	4 (57.1%)	0 (0.0%)	2 (28.6%)
	중소기업	6 (50.0%)	4 (33.3%)	5 (41.7%)	0 (0.0%)	3 (25.0%)	1 (8.3%)	2 (16.7%)	2 (16.7%)	5 (41.7%)	0 (0.0%)	2 (16.7%)	5 (41.7%)	1 (8.3%)
	자영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체	15	12	12	5	5	4	7	5	9	2	13	7	7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1 (50.0%)	1 (5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100만원대	5 (55.6%)	1 (11.1%)	3 (33.3%)	0 (0.0%)	2 (22.2%)	2 (22.2%)	1 (11.1%)	3 (33.3%)	1 (11.1%)	1 (11.1%)	3 (33.3%)	4 (44.4%)	1 (11.1%)
	200만원대	1 (12.5%)	5 (62.5%)	4 (50.0%)	1 (12.5%)	2 (25.0%)	0 (0.0%)	0 (0.0%)	0 (0.0%)	2 (25.0%)	0 (0.0%)	0 (0.0%)	3 (37.5%)	2 (25.0%)
	300만원대	4 (40.0%)	5 (50.0%)	2 (20.0%)	3 (30.0%)	1 (10.0%)	1 (10.0%)	3 (30.0%)	3 (30.0%)	2 (20.0%)	1 (10.0%)	4 (40.0%)	0 (0.0%)	1 (10.0%)
	400만원대	5 (71.4%)	2 (28.6%)	1 (14.3%)	1 (14.3%)	1 (14.3%)	1 (14.3%)	2 (28.6%)	0 (0.0%)	2 (28.6%)	0 (0.0%)	3 (42.9%)	0 (0.0%)	3 (42.9%)
	500만원 이상	1 (33.3%)	0 (0.0%)	3 (100.0%)	0 (0.0%)	0 (0.0%)	0 (0.0%)	1 (33.3%)	0 (0.0%)	1 (33.3%)	0 (0.0%)	1 (33.3%)	1 (33.3%)	1 (33.3%)

- ① 원하는 대학학과 관련탐방 ② 진로캠프 ③ 산업체진로직업체험 ④ 한국고용정보원잡스쿨
 ⑤ 진로관련검사 ⑥ 인터넷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 ⑦ 진로박람회 ⑧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 ⑨ 직업전망, 신생 및 이색작업 소개 ⑩ 진로관련읽기자료를 통한 진로탐색교육
 ⑪ 일일인턴체험 ⑫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진로교육 ⑬ 창의적체험활동중진 진로활동

현재 자녀가 하고 있는 활동 중 자녀가 가장 많이 했으면 하는 활동을 우선순위로 골랐을 때 원하는 대학학과 관련탐방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일일인턴체험, 진로캠프 및 산업체진로직업체험이 다음으로 많은 응답률을 드러냈다. 직장별로 구분했을 때와 경제수준별로 구분했을 때 전체 응답수는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로는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이 나타났다.



[표 10] 진로활동의 필요성

구분		1-전혀 필요없다, 5-매우 필요하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18	0.65	-0.212 (0.933)
	여자	4.22	0.81	
직장별	국가기관	3.50	2.12	1.295 (0.288)
	공기업	4.00	0.00	
	대기업	5.00	0.00	
	전문직	3.86	0.90	
	중소기업	4.23	0.44	
	자영업	4.11	0.60	
	기타	4.67	0.52	
경제 수준별	100만원아래	5.00	0.00	1.171 (0.343)
	100만원대	4.33	0.49	
	200만원대	4.25	0.46	
	300만원대	4.22	0.97	
	400만원대	4.16	0.41	
	500만원이상	3.67	0.58	
전 체		4.25	0.63	

진로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평균 4.20(5에 가까울수록 필요하다)로 필요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4.22)가 아버지(4.18)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별로는 대기업 5.00, 중소기업 4.23, 자영업 4.11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은 4.18로 필요한 편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별로는 100만원아래가 5.00, 100만원대가 4.33, 200만원대가 4.25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은 4.25로 필요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11] 진로활동이 필요한 이유

구분		진로활동이 필요한 이유					X^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3 (12,5%)	9 (37,5%)	1 (4,2%)	0 (0,0%)	1 (4,2%)	7.365 (0.288)
	여자	3 (15,8%)	2 (10,5%)	2 (10,5%)	1 (5,3%)	3 (15,8%)	
직장별	국가기관	1 (50,0%)	0 (0,0%)	0 (0,0%)	0 (0,0%)	0 (0,0%)	63,232 (0,003)
	공기업	0 (0,0%)	0 (0,0%)	0 (0,0%)	1 (100%)	0 (0,0%)	
	대기업	0 (0,0%)	1 (50,0%)	0 (0,0%)	0 (0,0%)	1 (50,0%)	
	전문직	3 (42,9%)	1 (14,3%)	1 (14,3%)	0 (0,0%)	0 (0,0%)	
	중소기업	1 (7,7%)	3 (23,1%)	0 (0,0%)	0 (0,0%)	1 (7,7%)	
	자영업	0 (0,0%)	3 (33,3%)	1 (11,1%)	0 (0,0%)	1 (11,1%)	
	기타	1 (16,7%)	2 (33,3%)	1 (16,7%)	0 (0,0%)	1 (16,7%)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1 (50,0%)	1 (50,0%)	0 (0,0%)	0 (0,0%)	0 (0,0%)	26,023 (0,674)
	100만원대	1 (8,3%)	5 (41,7%)	0 (0,0%)	0 (0,0%)	2 (16,7%)	
	200만원대	0 (0,0%)	1 (12,5%)	1 (12,5%)	0 (0,0%)	1 (12,5%)	
	300만원대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400만원대	2 (28,6%)	2 (28,6%)	0 (0,0%)	0 (0,0%)	0 (0,0%)	
	500만원 이상	0 (0,0%)	1 (33,3%)	1 (33,3%)	0 (0,0%)	0 (0,0%)	
전 체		5 (11,9%)	11 (26,2%)	3 (7,1%)	1 (2,4%)	4 (9,5%)	

① 실업문제예방 ② 직업세계 다양화 및 변화 ③ 창의적인 진로요구 ④ 창의적,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진로학습 필요 ⑤ 학업의 궁극적 이유

진로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질문했을 때 직업세계의 다양화 및 유망직종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11명(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심해짐에 따라 그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6명(14.0%), 자녀의 학업의 궁극적 이유는 진로 및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4명(9.3%)의 비율로 나타났다. 학부오의 직업과 경제수준별로 구분했을 때 전체 응답수는 달라지지만 순위는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2] 진로지도 경험 부분

구분		자녀의 진로지도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자	8 (40.0%)	4 (20.0%)	19 (95.0%)	18 (90.0%)	16 (80.0%)	14 (70.0%)
	여자	6 (40.0%)	9 (60.0%)	12 (80.0%)	13 (86.7%)	9 (60.0%)	12 (80.0%)
자녀학교별	중학교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일반계 고등학교	2 (100%)	0 (0.0%)	2 (100%)	2 (100%)	2 (100%)	1 (50.0%)
	특성화 고등학교	11 (36.7%)	12 (40.0%)	26 (86.7%)	28 (93.3%)	22 (73.3%)	23 (76.7%)
	자율형 고등학교	1 (100%)	1 (100%)	1 (100%)	0 (0.0%)	1 (100%)	1 (100%)
	특수목적 고등학교	0 (0.0%)	0 (0.0%)	1 (100%)	1 (100%)	0 (0.0%)	0 (0.0%)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1 (50.0%)	1 (50.0%)	1 (50.0%)	2 (100%)	1 (50.0%)	1 (50.0%)
	100만원대	3 (27.3%)	4 (36.4%)	11 (100%)	10 (90.9%)	10 (90.9%)	10 (90.9%)
	200만원대	3 (42.9%)	3 (42.9%)	6 (85.7%)	6 (85.7%)	3 (42.9%)	5 (71.4%)
	300만원대	5 (50.0%)	3 (30.0%)	9 (90.0%)	8 (80.0%)	8 (80.0%)	8 (80.0%)
	400만원대	2 (66.7%)	0 (0.0%)	3 (100%)	3 (100%)	2 (66.7%)	1 (33.3%)
	500만원 이상	0 (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전 체		14	12	31	30	25	26

- ① 자녀진로에 대한 진지한 대화로 아이의 희망진로직업 알고있다 ② 진로관련 적성검사유무
③ 진학희망대학 방문, 프로그램참여 유무 ④ 진로 포트폴리오 지도관리
⑤ 지역사회 성공한 직업인에 대한 정보제공
⑥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 활용으로 진로지도

자녀에게 진로지도를 한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자녀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에 함께 간적이 있거나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다. 뒤이어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로지도를 하고 있다는 응답과 지역사회의 성공한 직업인에 대한 신문 스크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학교별 구분과 학부모의 경제수준별 구분과 동일한 응답을 나타낸다.



[표 13] 진로활동 관련검사 빈도

구분		응답		케이스퍼센트
		N	퍼센트	
관련검사	적성검사	16	50.0%	69.6%
	흥미검사	7	21.9%	30.4%
	성격검사	4	12.5%	17.4%
	가치관검사	3	9.4%	13.0%
	진로발달검사	2	6.2%	8.7%
	합 계	32	100.0%	139.1%

진로에 관련된 적성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가장 많은 검사를 받아본 것은 적성검사로 50.0%의 응답률을 보이며 흥미검사와 성격검사가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4]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

구분		진로교육에 참여하는(참여하고 싶은) 이유					X^2 (p)
		①	②	③	④	⑤	
진로교육 참석유무	있다	5 (83.3%)	0 (0.0%)	0 (0.0%)	1 (16.7%)	0 (0.0%)	4.370 (0.358)
	없지만 하고싶다	6 (40.0%)	1 (6.7%)	5 (33.3%)	2 (13.3%)	1 (6.7%)	
전 체		11 (52.4%)	1 (4.8%)	5 (23.8%)	3 (14.3%)	1 (4.8%)	

- ① 인식재고 프로그램 필요 ② 교사의 권유 ③ 자녀가 준비할 수 있어서
④ 진학정보를 얻고 싶어서 ⑤ 자녀 친구들의 학부모가 참여해서

자녀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에 관한 학부모의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진로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질문 했을 때는 자녀의 현명한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인식을 재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가장 많았다. 바쁜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진학 및 진로에 본인이 준비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과 고입 진로정보, 학습전형 선발이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표 15] 자녀의 진로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활동 영역

구분		자녀의 진로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활동 영역					χ^2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자	8 (33.3%)	1 (4.2%)	5 (20.8%)	9 (37.5%)	1 (4.2%)	1,660 (0.798)
	여자	6 (31.6%)	0 (0.0%)	5 (26.3%)	6 (31.6%)	2 (10.5%)	
직장별	국가기관	2 (100%)	0 (0.0%)	0 (0.0%)	0 (0.0%)	0 (0.0%)	31,429 (0.142)
	공기업	0 (0.0%)	0 (0.0%)	0 (0.0%)	0 (0.0%)	1 (100%)	
	대기업	1 (50.0%)	0 (0.0%)	0 (0.0%)	1 (50.0%)	0 (0.0%)	
	전문직	1 (14.3%)	0 (0.0%)	2 (28.6%)	2 (28.6%)	2 (28.6%)	
	중소기업	5 (38.5%)	0 (0.0%)	3 (23.1%)	5 (38.5%)	0 (0.0%)	
	자영업	2 (22.2%)	0 (0.0%)	3 (33.3%)	4 (44.4%)	0 (0.0%)	
	기타	2 (33.3%)	1 (16.7%)	1 (16.7%)	2 (33.3%)	0 (0.0%)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0 (0.0%)	0 (0.0%)	1 (50.0%)	1 (50.0%)	0 (0.0%)	18,136 (0.578)
	100만원대	6 (50.0%)	1 (8.3%)	2 (16.7%)	3 (25.0%)	0 (0.0%)	
	200만원대	1 (12.5%)	0 (0.0%)	2 (25.0%)	5 (62.5%)	0 (0.0%)	
	300만원대	2 (20.0%)	0 (0.0%)	3 (30.0%)	3 (30.0%)	2 (20.0%)	
	400만원대	3 (42.9%)	0 (0.0%)	1 (14.3%)	3 (42.9%)	0 (0.0%)	
	500만원 이상	1 (33.3%)	0 (0.0%)	1 (33.3%)	0 (0.0%)	1 (33.3%)	
전 체		13 (31.0%)	1 (2.4%)	10 (23.8%)	15 (35.7%)	3 (7.1%)	

① 자기이해 ② 진로정보검색 ③ 진로계획 ④ 진로체험 ⑤ 진로포트폴리오

자녀의 진로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활동 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 질문에 진로체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이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진로계획이라고 주장한 것은 23.8%로 3순위를 차지했다.



[표 16] 자녀의 진로선택 기준

구분		진로 선택 기준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별	남자	0 (0.0%)	20 (83.3%)	2 (8.3%)	1 (4.2%)	0 (0.0%)	0 (0.0%)	1 (4.2%)	3.525 (0.620)
	여자	0 (0.0%)	14 (73.7%)	2 (10.5%)	1 (5.3%)	1 (5.3%)	1 (5.3%)	0 (0.0%)	
직장별	국가기관	0 (0.0%)	2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39.071 (0.124)
	공기업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대기업	0 (0.0%)	2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문직	0 (0.0%)	3 (42.9%)	2 (28.6%)	1 (14.3%)	1 (14.3%)	0 (0.0%)	0 (0.0%)	
	중소기업	0 (0.0%)	12 (92.3%)	1 (7.7%)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	0 (0.0%)	6 (66.7%)	1 (11.1%)	0 (0.0%)	0 (0.0%)	1 (11.1%)	1 (11.1%)	
	기타	0 (0.0%)	6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0 (0.0%)	2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33.478 (0.120)
	100만원대	0 (0.0%)	12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0만원대	0 (0.0%)	7 (87.5%)	1 (12.5%)	0 (0.0%)	0 (0.0%)	0 (0.0%)	0 (0.0%)	
	300만원대	0 (0.0%)	6 (60.0%)	2 (20.0%)	1 (10.0%)	0 (0.0%)	1 (10.0%)	0 (0.0%)	
	400만원대	0 (0.0%)	5 (71.4%)	1 (14.3%)	0 (0.0%)	0 (0.0%)	0 (0.0%)	1 (14.3%)	
	500만원 이상	0 (0.0%)	1 (33.3%)	0 (0.0%)	1 (33.3%)	1 (33.3%)	0 (0.0%)	0 (0.0%)	
전 체		0 (0.0%)	33 (78.6%)	4 (9.5%)	2 (4.8%)	1 (2.4%)	1 (2.4%)	1 (2.4%)	

① 학생의 지식정도(성적) ② 적성과 흥미 ③ 학생이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

④ 부모님의 권유 및 지지 ⑤ 교사의 권유 및 지지 ⑥ 사회기여정도 ⑦ 기타

자녀가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6%의 값으로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2순위로 학생이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5%를 차지했으며 3순위로는 부모님의 권유 및 지지 4.8%를 차지했다.



[표 17] 자녀의 미래 희망 직업을 선택할 때 조언하고 싶은 가치

구분		희망직업선택 시 조언해주고 싶은 가치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별	남자	9 37.5%	4 16.7%	5 20.8%	3 12.5%	0 0.0%	0 0.0%	3 12.5%	0 0.0%	4.023 (0.674)
	여자	7 36.8%	1 5.3%	3 15.8%	3 15.8%	1 5.3%	1 5.3%	3 15.8%	0 0.0%	
직장별	국가기관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63.073 (0.003)
	공기업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대기업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문직	2 28.6%	1 14.3%	1 14.3%	2 28.6%	0 0.0%	0 0.0%	1 14.3%	0 0.0%	
	중소기업	5 38.5%	0 0.0%	5 38.5%	0 0.0%	0 0.0%	0 0.0%	3 23.1%	0 0.0%	
	자영업	3 33.3%	2 22.2%	1 11.1%	1 11.1%	0 0.0%	1 11.1%	1 11.1%	0 0.0%	
	기타	4 66.7%	0 0.0%	1 16.7%	1 16.7%	0 0.0%	0 0.0%	0 0.0%	0 0.0%	
	경제 수준별	1 5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24.443 (0.752)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5 41.7%	1 8.3%	4 33.3%	1 8.3%	0 0.0%	0 0.0%	1 8.3%	0 0.0%	
	100만원대	2 25.0%	2 25.0%	1 12.5%	1 12.5%	0 0.0%	0 0.0%	2 25.0%	0 0.0%	
	200만원대	2 20.0%	0 0.0%	2 20.0%	3 30.0%	1 10.0%	1 10.0%	1 10.0%	0 0.0%	
	300만원대	3 42.9%	2 28.6%	0 0.0%	0 0.0%	0 0.0%	0 0.0%	2 28.6%	0 0.0%	
	400만원대	2 66.7%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500만원 이상	15 35.7%	5 11.9%	8 19.0%	6 14.3%	1 2.4%	1 2.4%	6 14.3%	0 0.0%	
전 체		15 35.7%	5 11.9%	8 19.0%	6 14.3%	1 2.4%	1 2.4%	6 14.3%	0 0.0%	

① 적성과 흥미 ② 안정성 ③ 발전성과 장래성 ④ 보람과 자아실현 ⑤ 명예와 명성 ⑥ 수입
⑦ 지속가능성 및 자기발전 가능성 ⑧ 사회기여정도

자녀가 미래 희망 직업을 선택할 때 조언해주고 싶은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적성과 흥미라고 선택한 비율이 3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발전성과 장래성이 19.0%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보람과 자아실현, 지속가능성 및 자기발전 가능성이 14.3%로 그 뒤를 차지했다. 직장별로 구분했을 때 카이제곱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0.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표 18] 자녀의 진로 및 진학을 결정할 때 영향을 받는 사람

구분		진로 및 진학에 영향을 받는 인물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자	0 (0.0%)	1 (4.2%)	8 (33.3%)	10 (41.7%)	3 (12.5%)	2 (8.3%)	9.153 (0.057)
	여자	0 (0.0%)	5 (26.3%)	1 (5.3%)	6 (31.6%)	5 (26.3%)	2 (10.5%)	
직장별	국가기관	0 (0.0%)	0 (0.0%)	0 (0.0%)	2 (100%)	0 (0.0%)	0 (0.0%)	23.958 (0.464)
	공기업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대기업	0 (0.0%)	0 (0.0%)	1 (50.0%)	1 (50.0%)	0 (0.0%)	0 (0.0%)	
	전문직	0 (0.0%)	0 (0.0%)	1 (14.3%)	4 (57.1%)	1 (14.3%)	1 (14.3%)	
	중소기업	0 (0.0%)	1 (7.7%)	5 (38.5%)	5 (38.5%)	1 (7.7%)	1 (7.7%)	
	자영업	0 (0.0%)	1 (11.1%)	2 (22.2%)	2 (22.2%)	4 (44.4%)	0 (0.0%)	
	기타	0 (0.0%)	2 (33.3%)	0 (0.0%)	1 (16.7%)	1 (16.7%)	2 (33.3%)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0 (0.0%)	1 (50.0%)	0 (0.0%)	0 (0.0%)	1 (50.0%)	0 (0.0%)	32.836 (0.035)
	100만원대	0 (0.0%)	3 (25.0%)	6 (50.0%)	1 (8.3%)	0 (0.0%)	2 (16.7%)	
	200만원대	0 (0.0%)	2 (25.0%)	1 (12.5%)	1 (12.5%)	3 (37.5%)	1 (12.5%)	
	300만원대	0 (0.0%)	0 (0.0%)	0 (0.0%)	8 (80.0%)	2 (20.0%)	0 (0.0%)	
	400만원대	0 (0.0%)	0 (0.0%)	1 (14.3%)	3 (42.9%)	2 (28.6%)	1 (14.3%)	
	500만원 이상	0 (0.0%)	0 (0.0%)	1 (33.3%)	2 (66.7%)	0 (0.0%)	0 (0.0%)	
전 체		0 (0.0%)	6 (14.3%)	9 (21.4%)	15 (35.7%)	8 (19.0%)	4 (9.5%)	

① 조부모 ② 어머니 ③ 아버지 ④ 교사 ⑤ 또래친구 ⑥ 선배 또는 멘토

자녀가 진로 및 진학을 결정함에 있어 누구의 조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냐고 질문했을 때 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3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순위로 21.4%의 비중을 나타낸 아버지가 차지했다. 또한 또래친구가 19.0%로 3순위를 차지했다. 각 구분과 응답에 대한 카이제곱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경제수준별로 구분했을 때 0.035의 값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자녀의 진로지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구분		진로지도에 가장 필요한 것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자	1 (4.2%)	9 (37.5%)	4 (16.7%)	3 (12.5%)	2 (8.3%)	5 (20.8%)	5.722 (0.334)
	여자	2 (10.5%)	3 (15.8%)	1 (5.3%)	2 (10.5%)	3 (15.8%)	8 (42.1%)	
직장별	국가기관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29.337 (0.500)
	공기업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대기업	0 (0.0%)	2 (100%)	0 (0.0%)	0 (0.0%)	0 (0.0%)	0 (0.0%)	
	전문직	0 (0.0%)	2 (28.6%)	1 (14.3%)	1 (14.3%)	2 (28.6%)	1 (14.3%)	
	중소기업	1 (7.7%)	6 (46.2%)	0 (0.0%)	3 (23.1%)	1 (7.7%)	2 (15.4%)	
	자영업	1 (11.1%)	0 (0.0%)	3 (33.3%)	0 (0.0%)	1 (11.1%)	4 (44.4%)	
	기타	0 (0.0%)	1 (16.7%)	1 (16.7%)	1 (16.7%)	1 (16.7%)	2 (33.3%)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34.568 (0.096)
	100만원대	1 (8.3%)	8 (66.7%)	1 (8.3%)	0 (0.0%)	1 (8.3%)	1 (8.3%)	
	200만원대	1 (12.5%)	0 (0.0%)	2 (25.0%)	2 (25.0%)	1 (12.5%)	2 (25.0%)	
	300만원대	0 (0.0%)	0 (0.0%)	2 (20.0%)	2 (20.0%)	1 (10.0%)	5 (50.0%)	
	400만원대	0 (0.0%)	2 (28.6%)	0 (0.0%)	0 (0.0%)	1 (14.3%)	4 (57.1%)	
	500만원 이상	1 (33.3%)	1 (33.3%)	0 (0.0%)	0 (0.0%)	1 (33.3%)	0 (0.0%)	
전 체		3 (7.1%)	12 (28.6%)	5 (11.9%)	5 (11.9%)	5 (11.9%)	12 (28.6%)	

① 진로교육기초이론 ② 미래 직업세계 이해 ③ 진로심리검사의 이해활용
④ 진로정보 수집활용 ⑤ 고입 또는 대입환경의 변화와 대학진학지도 ⑥ 현장연수

자녀의 진로지도에 가장 중요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 이냐고 질문했을 때 미래의 직업세계 이해와 진로직업체험 현장연수(직 로체험센터 및 진로체험홍보관 방문)가 각 28.6%의 비율을 차지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교육기초이론, 진로심리검사의 이 해와 활용, 진로정보의 수집 및 활용, 고입 또는 대입 환경의 변화와 대 학 진학지도를 보았을 때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20-1] 본인의 흥미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가는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62	0.97	1.876 (0.178)
	여자	3.89	0.81	
학교	중학교	3.00	1.41	1.725 (0.165)
	일반고등학교	2.67	1.53	
	특성화고등학교	3.85	0.82	
	자율형고등학교	4.00	0.00	
	특수목적고등학교	4.00	0.00	
경제수준	100만원 아래	3.50	0.71	1.288 (0.290)
	100만원대	4.08	0.51	
	200만원대	3.25	1.04	
	300만원대	3.50	1.27	
	400만원대	3.86	0.69	
	500만원 이상	4.33	0.58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3.00	0.00	5.344 (0.002)
	고등학교 졸업	4.20	0.52	
	전문대학 졸업	4.25	0.50	
	대학교 졸업	3.07	1.07	
	대학원 이상	3.50	0.58	
전 체		3.74	0.90	

진로활동을 받은 자녀가 본인의 흥미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알아갈 것이라는 예상변화에 전체평균 3.74(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드러났으며 본인의 흥미나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알아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성별로 구분시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학교별 구분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평균보다 높았다. 경제수준별로 구분시 1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학력별로 구분시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졸업이 평균 이상의 결과를 드러냈다. 카이제곱검정(독립성)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학력별로 구분시 0.0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표 20-2]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는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79	0.72	0.170 (0.682)
	여자	3.89	0.74	
학교	중학교	3.50	0.71	0.935 (0.454)
	일반고등학교	3.67	1.53	
	특성화고등학교	3.91	0.67	
	자율형고등학교	3.00	0.00	
	특수목적고등학교	4.00	0.00	
경제수준	100만원 아래	3.50	0.71	1.025 (0.417)
	100만원대	3.92	0.67	
	200만원대	3.50	0.76	
	300만원대	3.80	0.92	
	400만원대	4.29	0.49	
	500만원 이상	3.67	0.58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4.00	0.00	1.924 (0.126)
	고등학교 졸업	4.00	0.65	
	전문대학 졸업	4.25	0.50	
	대학교 졸업	3.43	0.85	
	대학원 이상	4.00	0.00	
전 체		3.84	0.72	

진로활동을 받은 자녀가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변화에 전체평균 3.84(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구분시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학교별로 구분시에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평균이상을 차지했다. 경제수준별로 구분시 100만원대에서 평균보다 높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으며 학력별로 구분시에 대학교 졸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전체평균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0-3]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정도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96	0.75	1.055 (0.310)
	여자	4.00	0.58	
학교	중학교	3.50	0.71	4.494 (0.005)
	일반고등학교	3.00	1.00	
	특성화고등학교	4.06	0.55	
	자율형고등학교	3.50	0.71	
	특수목적고등학교	5.00	0.00	
경제수준	100만원 아래	4.00	0.00	0.626 (0.681)
	100만원대	4.08	0.67	
	200만원대	3.63	0.52	
	300만원대	4.00	0.82	
	400만원대	4.00	0.82	
	500만원 이상	4.33	0.58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4.00	0.00	1.163 (0.342)
	고등학교 졸업	4.15	0.59	
	전문대학 졸업	4.25	0.50	
	대학교 졸업	3.71	0.73	
	대학원 이상	3.75	0.96	
전 체		3.98	0.67	

진로활동을 받은 자녀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이 개발될 것이라는 예상변화에 전체평균 3.98(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이 개발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구분시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지만 차이는 미비하다. 경제수준으로 구분시 200만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에서 평균이상의 값을 드러냈으며 학력으로 구분시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평균이상의 값을 드러낸 것을 알 수 있다.



[표 20-4] 교육의 기회와 진학정보를 스스로 탐색, 준비성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67	0.70	2.086 (0.156)
	여자	4.05	0.62	
학교	중학교	3.50	0.71	1.039 (0.400)
	일반고등학교	3.67	1.53	
	특성화고등학교	3.91	0.62	
	자율형고등학교	3.00	0.00	
	특수목적고등학교	4.00	0.00	
경제수준	100만원 아래	3.50	0.71	0.795 (0.561)
	100만원대	3.83	0.58	
	200만원대	3.75	0.46	
	300만원대	3.70	1.06	
	400만원대	4.29	0.49	
	500만원 이상	3.67	0.58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3.00	0.00	2.126 (0.096)
	고등학교 졸업	3.90	0.64	
	전문대학 졸업	4.50	0.58	
	대학교 졸업	3.57	0.76	
	대학원 이상	4.00	0.00	
전 체		3.84	0.69	

진로활동을 받은 자녀가 교육의 기회와 진학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준비할 것이라는 예상행동변화에 전체평균 3.84(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으로 교육의 기회와 진학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구분시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임을 알 수 있으며 학교별로 구분시에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평균보다 높은 값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으로 구분시에 400만원대가 평균보다 높았으며 학력별로 구분시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이 전체평균보다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0-5]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학력 및 자격증의 준비성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88	0.80	0.160 (0.692)
	여자	4.11	0.88	
학교	중학교	3.50	0.71	1.128 (0.358)
	일반고등학교	3.67	1.15	
	특성화고등학교	4.09	0.83	
	자율형고등학교	3.00	0.00	
	특수목적고등학교	4.00	0.00	
경제수준	100만원 아래	4.50	0.71	0.934 (0.471)
	100만원대	4.25	0.75	
	200만원대	3.50	0.76	
	300만원대	3.90	0.99	
	400만원대	4.00	0.82	
	500만원 이상	4.00	1.00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5.00	0.00	4.453 (0.005)
	고등학교 졸업	4.35	0.67	
	전문대학 졸업	4.25	0.50	
	대학교 졸업	3.43	0.85	
	대학원 이상	3.50	0.58	
전 체		3.98	0.83	

진로활동을 받은 자녀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증에 관해 준비할 것이라는 예상활동변화에 전체평균 3.98(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증에 관해 준비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구분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학교별로 구분시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평균보다 높은 값을 알 수 있었다. 경제수준으로 보았을 때 200만원대와 300만원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평균값보다 높은 결과를 드러낸 것으로 알 수 있으며 학력별로 구분시에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이상의 구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전체평균보다 높은 값을 드러낸 것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검정(독립성)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학력별로 구분시 값을 보면 0.005의 결과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표 20-6] 진로의사결정능력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

구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79	0.72	0.405 (0.528)
	여자	4.05	0.78	
학교	중학교	3.50	0.71	0.680 (0.610)
	일반고등학교	3.67	1.15	
	특성화고등학교	3.94	0.74	
	자율형고등학교	3.50	0.71	
	특수목적고등학교	4.50	0.71	
경제수준	100만원 아래	4.00	1.41	1.206 (0.326)
	100만원대	3.92	0.67	
	200만원대	3.50	0.76	
	300만원대	3.80	0.79	
	400만원대	4.43	0.79	
	500만원 이상	4.00	0.00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5.00	0.00	0.793 (0.537)
	고등학교 졸업	3.95	0.69	
	전문대학 졸업	4.00	0.82	
	대학교 졸업	3.71	0.83	
	대학원 이상	4.00	0.82	
전 체		3.91	0.75	

진로활동을 받은 자녀가 진로의사결정능력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활동변화에 전체평균 3.91(5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로 진로의사결정능력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구분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학교별로 구분시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평균값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별로 구분시 200만원대와 300만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에서 평균값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학력으로 구분시 대학교 졸업을 제외한 모든 구분에서 전체평균값보다 높은 점수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난다.



[표 21] 자녀의 진로활동시 참여하고 싶은 기관

구분		자녀에게 참여시키고 싶은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자녀 학교별	중학교	2 (100%)	0 (0.0%)	2 (100%)	0 (0.0%)	1 (50.0%)	1 (50.0%)
	일반계 고등학교	2 (66.7%)	1 (33.3%)	3 (100%)	3 (100%)	0 (0.0%)	0 (0.0%)
	특성화 고등학교	16 (47.1%)	14 (41.2%)	28 (82.4%)	20 (58.8%)	9 (26.5%)	15 (44.1%)
	자율형 고등학교	1 (100%)	0 (0.0%)	1 (100%)	0 (0.0%)	1 (100%)	0 (0.0%)
	특수목적 고등학교	1 (50.0%)	1 (50.0%)	1 (50.0%)	2 (100%)	1 (50.0%)	0 (0.0%)
성별	남자	12 (52.2%)	9 (39.1%)	17 (73.9%)	15 (65.2%)	7 (30.4%)	9 (39.1%)
	여자	10 (52.6%)	7 (36.8%)	18 (94.7%)	10 (52.6%)	5 (26.3%)	7 (36.8%)
직장별	중학교졸업 이하	1 (100%)	0 (0.0%)	1 (100%)	0 (0.0%)	1 (100%)	0 (0.0%)
	고등학교 졸업	9 (47.4%)	7 (36.8%)	15 (78.9%)	12 (63.2%)	5 (26.3%)	9 (47.4%)
	전문대 졸업	3 (75.0%)	2 (50.0%)	3 (75.0%)	2 (50.0%)	1 (25.0%)	1 (25.0%)
	대학교 졸업	7 (50.0%)	5 (35.7%)	13 (92.9%)	9 (64.3%)	3 (21.4%)	5 (35.7%)
	대학원 이상	2 (50.0%)	2 (50.0%)	3 (75.0%)	2 (50.0%)	2 (50.0%)	1 (25.0%)
경제 수준별	100만원 아래	2 (100%)	0 (0.0%)	2 (100%)	1 (50.0%)	1 (50.0%)	0 (0.0%)
	100만원대	5 (45.5%)	3 (27.3%)	10 (90.9%)	6 (54.5%)	3 (27.3%)	6 (54.5%)
	200만원대	4 (50.0%)	3 (37.5%)	6 (75.0%)	3 (37.5%)	2 (25.0%)	6 (75.0%)
	300만원대	5 (50.0%)	7 (70.0%)	8 (80.0%)	7 (70.0%)	2 (20.0%)	1 (10.0%)
	400만원대	5 (71.4%)	1 (14.3%)	6 (85.7%)	6 (71.4%)	2 (28.6%)	2 (28.6%)
	500만원 이상	1 (33.3%)	1 (33.3%)	2 (66.7%)	2 (66.7%)	2 (66.7%)	1 (33.3%)
전 체		22	15	34	24	12	16

① 청소년관련기관 ②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③ 부산광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④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진로체험센터 ⑤ 공공기관 ⑥ 학교가 계획하고 교내에서 운영

진로활동이 전면 실시된다면 연계하거나 혹은 자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싶은 기관을 질문했을 시 전체적으로 부산광역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1순위로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2순위, 청소년수련원의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관련기관이 3순위로 비슷한 비율로 순위를 차지했다.



[표 22] 진로활동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구분		1-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5-우수하게 참여한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시상 및 공모의 참여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67	1,34	1,137 (0,293)
	여자	2,72	1,07	
자녀 학교별	중학교	3,00	0,00	0,194 (0,940)
	일반계 고등학교	2,33	1,53	
	특성화 고등학교	2,71	1,29	
	자율형 고등학교	2,00	0,00	
	특수목적 고등학교	3,00	0,00	
경제 수준별	100만원아래	2,50	0,71	2,052 (0,095)
	100만원대	3,25	0,97	
	200만원대	2,00	1,07	
	300만원대	2,10	1,20	
	400만원대	3,29	1,60	
	500만원이상	3,00	0,00	
전 체		2,68	1,23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가장 필요하는지 질문하는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2.69(5로 갈수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의 평균을 차지했다. 2번 문항 학교내 과정에서 물적, 시간적 지원과 3번 문항 국가에서 참가비용 지원의 내용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환경조성과 간접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성별로 구분시 어머니(2.72)가 아버지(2.67)와 비슷한 평균을 보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자녀가 본인의 직업을 희망하는 정도

응답		빈도(명)	퍼센트(%)
유 효	그 령 다	15	34,1
	그 령 지 않 다	20	45,5
	잘 모 르 겠 다	8	18,2
	합 계	43	97,7
결 합	측 계	1 44	2,3 100,0

마지막으로 자녀가 본인의 직업을 가지길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5.5%로 그렇다는 응답(34.1%)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decorated with vibrant, flowing wavy lines in shades of orange, red, yellow, and blue. Interspersed among these lines are numerous semi-transparent circles in various colors, including green, orange, purple, and grey, creating a dynamic and abstract visual effect.

Ⅲ.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설문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진로활동에 대한 인식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자신의 장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51.2%), ‘생각중이다’ (44.1%), ‘없다’ (4.7%)로 나타났으며 ‘진로 계획’에 대한 고민도 1순위가 ‘나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만 하고 있다’ (36.6%), 2순위가 ‘나의 진로에 대해 결정했지만 고민이 된다’ (24.4%)로, 3순위가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19.8%)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스스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로 계획을 세우거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1순위가 ‘적성과 흥미’ (71.4%), 2순위가 ‘성적’ (19.7%), 3순위가 ‘가정환경’ (6.1%)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업선택의 기준으로는 1순위가 ‘적성과 흥미’ (54.7%), 2순위는 ‘수입’ (11.6%), 3순위는 ‘보람과 자아성취’ (11.5%) 순으로 나타났다. 목표나 꿈이 없거나, 생각중인 청소년은 ‘적성과 흥미’ (55.2%), ‘수입’ (19.8%), ‘안전성’ (11.5%) 순으로, 목표나 꿈이 있는 청소년은 ‘적성과 흥미’ (56.8%), ‘보람과 자아성취’ (14.1%), ‘발전성과 장래성’ (10.5%) 순으로 응답하였다.

꿈이나 목표가 있는 청소년일수록 진로에 관련된 정보나, 본인의 관심 직업 분야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 전망, 특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상담을 하는 대상은 ‘어머니’ (37.6%), ‘또래친구’ (23.3%), ‘없다’ (15.8%)가 나왔다.

진로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과 도움이 되는 요인은 ‘경험적 지지’ (33.4%), ‘정보적 지지’ (23.0%), ‘경제적 지지’ (16.0%)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에 대한 준비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관심있는 진로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여학생(3.48)



이 남학생(3.39)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았으며, 특목고(3.83), 자율고(3.50), 중학교(3.46), 일반고(3.45), 특성화고(3.26)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정보력에 대해서는 ‘진로결정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하겠다’(3.71),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하는 일을 알고 있다’(3.53), ‘관심있는 직업의 전망에 대해 알고 있다’(3.46), ‘관심있는 직업의 특성-내용, 수입, 환경에 대해 알고 있다’(3.39),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증에 대해 알고 있다.’(3.28)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스스로가 ‘적성과 흥미’와 연결된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식 시켜야 하며, 진로에 대해 계속적인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청소년의 학교 내, 학교 밖의 진로활동에 대한 경험 유무와 만족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청소년이 진로나 꿈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졌던 시기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중학교 3학년 (26.5%), 중학교 2학년이 (18.7%), 초등학교 4~6학년 (15.5%)로 나타났다. 진로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1순위가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라서’ (46.9%), 2순위가 ‘직업에 대한 정보, 이해, 체험이 가능하므로’ (36.1%), ‘진로설계의 계기가 되므로’ (14.4%)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학교 내 진로활동 중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간은 ‘진로와 직업 수업시간’ (53.1%),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19.1%), ‘일반교과시간’ (14.1%)이다. 학교 내 진로활동이 진로를 모색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 (37.8%), ‘부족하다’ (32%), ‘매우 부족하다’ (16.5%)라고 응답하였다.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진로활동은 1순위가 ‘진로관련검사’ (19.4%), 2순위가 ‘진로교육’ (18.6%), 3순위는 ‘현장학습이나 탐방’ (11.4%)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진로관련검사로는 홀랜드진로발달 (25.7%), MBTI (20.9%), 학습능력검사 (20.6%) 순이었다.



셋째, 학교 내에 진로활동에 대해 만족은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26.%), ‘진로계획과 준비’ (21.4%),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19.9%)순이며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구체적인 진로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41.6%), ‘흥미나 재미를 끌지 못하고 강제성이 있으므로’ (17.4%), ‘내가 원하는 진로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17.1%) 라는 응답이 있었다.

넷째, 학교 밖 진로활동에서 진로활동 경험이 있는 기관은 ‘수련원’ (46.2%), ‘수련관’ (35.6%),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28.7%)순으로 나타났다으며, 학교 밖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진로찾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9.4%),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14.1%), ‘경력 쌓기’ (10.0%)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학교 밖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대학교 전공학과 견학’ (16.9%), ‘진로캠프’ (15.8%), ‘진로와 직업 특강’ (13.1%), ‘진로박람회’ (12.3%), ‘CEO, 전문직업인 초청특강’ (11.5%), ‘기업체 현장견학’ (11.1%), ‘미디어 영상을 통한 간접 체험’ (9.7%), ‘진로상담’ (9.6%)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진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는 ‘참여 할 시간이 나지 않아서’ (27.9%), ‘하고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26.2%), ‘참여기회가 부족해서’ (21.7%) 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진학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4~6학년부터 진로활동을 시작하여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관심있는 학교, 학과의 견학이나 진로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알아 볼 수 있는 진로캠프, 박람회 등 경험적, 정보적, 경제적인 지지 또한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움으로써 학업을 하는 목적을 구체화고 실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절실할 때이다.

다음은 청소년의 진로 성숙도에 대한 사항이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와 관심과 자원 활용정도를 나타낸다. 진로성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자원 활용정도, 진로의 정보와 계획성, 진로 선호의 일관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의 구체화, 진로 선호의 현명성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성별, 학교, 진로목표유무를 주요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5가지 영역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 문항별 주요변인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진로목표가 없는 학생보다는 목표가 있는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자원 활용정도이다.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읽는다’의 경우, 성별에 따라 여학생 평균(3.27)이 남학생(3.16)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진로의 정보와 계획성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의 경우, 진로목표가 없는 학생(3.69), 생각중이다(3.25), 진로목표가 있다(2.19)로 목표유무에 따라 정보와 계획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남학생(2.76), 여학생(2.69)로 성별을 변인으로 할 때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셋째, 진로 선호의 일관성이다.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 선택을 하는 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진로목표유무에 따라 없다(1.58), 생각중이다(2.12), 있다(3.33)로 진로목표가 명확할수록 진로에 대한 일관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넷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의 구체화이다. ‘나는 나의 흥미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받기를 원한다’의 경우 성별, 학교, 목표유무 모두 유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목표가 없는 학생보다는 있는 학생이 진로성숙도가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나타낸다.

다섯째, 진로 선호의 현명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한다’로 보아 남학생(3.93)보다는 여학생(4.08)이, 목표가 없는 학생(3.45)보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학생(4.12)이 보다 현명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탐색, 결정하는 과정에 따라 진로활동에 수행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청소년의 진로활동 요구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는 ‘교사’ (18.2%), ‘공무원’ (13.6%), ‘의사/연예인’ (8.3%), ‘사업가/요리사’ (8.2%), ‘경찰관’ (7.2%), ‘제과제빵사’ (6.4%), ‘상담전문가/패션디자이너’ (6.1%)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는 ‘교사’ (11.1%), ‘운동선수’ (9.9%), ‘의사’ (9.7%), ‘경찰관’ (9.5%), ‘건축사’ (9.2%)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24.2%), ‘연예인’ (11.0%), ‘상담전문가’ (9.1%), ‘제과제빵사’ (9.0%), ‘패션디자이너’ (8.8%)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미래의 직장으로 선호하는 곳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직’ (24.2%), ‘대기업’ (22.7%), ‘국가기관’ (18.7%)순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1-2순위가 전체 순위와 동일한 것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대기업 (28.0%) 1순위, 국가기관 (19.1%) 2순위로 여학생은 물론 전체 순위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하게 된다면 기대되고 재미 있을 것 같은 진로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일일인턴체험’ (22.5%), ‘원하는 대학, 학과(전공)관련 탐방’ (19.7%), ‘진로캠프’ (13.1%) 순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진로활동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28.9%), 학교 내 과정에서 ‘물적, 시간적 지원’ (27.7%), ‘참가비용을 국가에서 마련’ (19.4%) 순으로 답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은 행복한 직업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며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로활동’이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보아서는 전문직, 대기업, 국가기관,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교사, 공무원, 의사, 연예인순으로 보아 안전성, 수입, 명예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교육 담당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활동’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중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52.6%)이며, ‘진로와 직업 과목’ (37.2%), ‘상담시간’ (7.7%)로 나타났다. 수업시수로 3개년동안 17시간 미만(33.3%)이 가장 많이 응답했다. 따라서 현재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통해 진로활동을 실시하는 수업시수는 학교별로 다르며 공통적으로는 진로활동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진로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은 1순위 ‘진로관련검사(MBTI, 홀랜드검사 등)’ (17.0%), 2순위는 ‘원하는 대학 학과 탐방’ (12.1%), 3순위는 ‘산업체 진로직업체험’ (11.7%)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획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1순위가 ‘진로캠프’ (16.4%), 2순위가 ‘산업체 진로직업체험’ (15.5%), 3순위가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강의’ (12.4%)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의 4.49(5에 가까울수록 필요하다)로 진로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는 ‘자신의 미래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진로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9.6%), ‘직업세계의 트렌드와 변화로 창의적인 진로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17.7%), ‘청소년의 학습의 궁극적 이유는 진로 및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6.3%)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지도는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지도하거나 자기주도적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사회 성공한 직업인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거나 신문 스크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가장 많이 실시하는 진로관련검사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격검사’ (62%), ‘흥미검사’ (15.2%), ‘진로발달검사’ (10.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미래 희망 직업 선택가치로는 ‘적성과흥미’ (50.6%),



‘보람과 자아성취’ (19.0%), ‘지속가능성 및 자기발전’ (15.2%)로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교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요인으로는 ‘경험적 지지’ (29.1%), ‘정보적 지지’ (26.6%), ‘대화적지지’(24.1%)로 나타났다. 진로를 지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로정보와 수집 및 활용’ (34.2%)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진로 활동 후 변화로는 ‘긍정적인 자아 형성’ (4.14),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3.99), ‘정보의 스스로 탐색능력’ (4.09), ‘직업에 대한 준비’ (4.11), ‘책임감’ (4.11), ‘자기정체성 및 자존감’ (4.22), ‘학업성취 및 동기부여’ (4.33), 등 진로 활동 후 청소년의 변화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게 참여시키고 싶은 활동으로는 ‘인성 및 도덕성 함양활동’ (40.5%), ‘스포츠관련활동’ (26.2%), ‘선행학습 관련 교육’ (11.9%), ‘진로활동’ (9.5%)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81.0%), ‘불만족한다’ (19.0%) 라고 응답하였다. 진로활동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프로그램 부재’ (30.0%), ‘자녀의 호응도 저조’가 (30.0%)로 동일시 나타났다. 진로활동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1순위가 ‘자녀가 장래진로에 생각해 볼 기회를 줄 수 있어서’ (36.1%), 2순위가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를 돕고 진학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27.8%), 3순위가 ‘진로고민을 덜어 줄 수 있어서’ (20.0%) 라고 응답하였다.

자녀와의 대화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내 생활’ (34.9%), ‘진로 및 진학’ (32.6%), ‘교우관계’ (11.9%)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 활동 중 가장 높은 만족도가 높은 활동과 향후 희망하는 활동 모두 ‘상담중심의 진로교육’ (13.6%)이 가장 높았고, ‘진로체험과 진로 박람회’ (11.9%), ‘직업체험’ (11.9%) 동일하게 나타났다. 진로활동이 필요성(4.25)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세계의 다양화 및 유망직종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필요함’ (25.6%), ‘청년실업문제가 심해짐



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14.0%), ‘자녀의 학업의 궁극적 이유는 진로 및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9.3%)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자녀의 진로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활동영역은 ‘진로체험’ (35.7%), ‘진로이해’ (31.0%), ‘진로계획’ (23.8%)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진로를 선택의 가장 바람직한 기준은 ‘적성과 흥미’ (78.6%)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진로 결정에 있어 ‘교사의 영향’ (35.7%), ‘부모의 영향’ (21.4%), ‘또래친구’ (19.0%)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나타났으며, 자녀의 진로지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직업세계 이해’ (28.6%), ‘진로직업체험 현장연수’ (28.6%)로 동일시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활동을 받은 자녀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이 개발될 것이다’(3.98),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증에 관해 준비할 것이다’(3.98), ‘진로의사결정능력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것이다’(3.91)로 나타났다. 성별 구분시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응답률에서 변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아버지의 응답률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직업을 가지길 원하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45.5%), ‘그렇다’가 (34.1%)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제언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확대된 진로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고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성, 사회, 정서적 발달을 돕는 ‘진로와 직업’ 집중과정과 진로역량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적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진로를 선택해야하는 진로선택의 경로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진로 찾기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와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서 진로지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유연하고 능동적인 진로 경로 개척이 필요하다.

직업의 올바른 이해와 그 직업의 미래전망을 알려주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연결이 상호 인프라를 통해 체계화 되고 확충된다면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의 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진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 과정을 스토리 있게 진정성을 담아 내는 포트폴리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진로활동의 시작은 진학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4~6학년부부터가 적절하며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격과 학습습관, 인간관계, 진로 및 교육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보면 교과지식을 삶과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이라고 할 수 있다. 진학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부터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답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진로활동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목적인 것이다.

넷째, 상담과 효율적인 생활지도 경험을 수반한 다양한 형태의 진로활동 지도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주도적으로 진로역량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채롭고 내실있는 진로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대학교 탐방, 진로캠프, 직업체험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진로활동을 선호하였으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진로활동은 진로관련 검사, 상담중심의 진로교육 주를 이루었다. 이는 자녀 또는 제자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찾아 내고 빨리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이 선호하는 진로활동을 고려해보면 많이 경험해보고 스스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열린 형태의 진로지도가 더 필요한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발달단계를 반영한 진로집단상담의 형식을 띤 진로캠프나 저명인사 및 선배의 특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청소년 진로활동의 유용성을 향상 시키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진로활동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진로활동 One-Stop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진로역량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설계 등 4가지 영역을 단계적으로 한 공간에서 참여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활동에 체계적으로 참여 했을 때 변화되는 지표를 분석해 볼 수 있고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물적, 시간적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만 청소년 진로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 편집위원 ◇

- 위원장 : 임장근(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위 원 : 김동찬(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국장)
박선영(동서대학교 청소년상담심리학과 교수)
전영근(부산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 진로진학장학관)
윤현주(부산일보사 논설위원)
황동한(십대의벗 청소년교육센터장)
차정관(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홈스쿨링)
김경민(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부산관광고등학교)
최연희(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발간등록번호
BYSC-2013-7

2013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인쇄일 : 2013. 10
발행일 : 2013. 10
발행인 : 임장근
발행처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601-836)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초량동)
전화 (051) 852-3461~2
팩스 (051) 852-3463
홈페이지 www.bsyouthvol.net
www.dovol.net

〈비매품〉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으며 본 센터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